

PRSRT STD  
U.S. Postage  
PAID  
Elk Grove VLG. IL  
Permit #1320



# 美 集 書 大 同 窓 會 報

서로 돕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런 동문들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사무국 및 편집국  
730 Busse R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usa@ameritech.net  
website : http://www.snuaa.org

발행인 : 李龍洛  
편집위원회 총무 : 具瓊會  
편집인 : 金正守

월간 109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 A.

2003년 3월 28일

## 金允範(의대 58년졸) 동문, 면역학의 권위자 제 4회 함춘대상 학술연구상 수상

金允範(의대 58년 졸, 시카고 의과대학 교수) 동문이 지난 3월 19일(수) 오후 6시 30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회장 이길너, 의대 57년 졸)에서 매년 의대 동창 중 60세가 넘는 동문 중에서 학술연구, 의료봉사, 사회공헌 등으로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의대 동문들에게 수여하는 금년도 제 4회 함춘대상 학술연구부문 대상을 세계에서 위암수술 최다 기록을 가진 김진복 동문(58년 졸)과 함께 수상하였다(함춘대상 보도 23면 참조). 金동문은 제제다사(濟濟多士)의 회원들을 가진 의대 동창회가 엄선하는 淸春大賞을 미주 동문으로서는 작년 수상자인 鄭求榮 (Edward K. Chung, 57년 졸) 동문에 이어 두 번째의 수상자이다.

시카고의대 교수로 재직중인 김동문은 모교 졸업 후 43년간 인류 건강과 의학발전에 기초가 되는



면역학 분야의 연구에 전념하여 무균(無菌) 소형돼지를 이용한 면역기관의 개체발달 연구에 관한 先導的인 업적을 쌓았으며, 지난 1970년대 이래 항원(抗原)의 절대적 필요성과 기존 자연항체(自然抗體)의 면역조절기능을 규명하는 등 면역학(免疫學)분야에서 120여 편의 학술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수상소감 10면 하단 참조>

<사진설명> 帝國의 평화와 怪疾 SARS가 지배하는 가운데 새생명미 약동하는 계절에 도약을 소망하는 재미서울대총동창회



## 재미 총동창회 제8대 회장선출자 후보 공개 초빙 - 5월 27일까지 입후보자는 출마 서신 제출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제12차 정기 평의원회의(동창회보 2003년 2월 28일자 #108호 1면 및 2면 보도 참조)는 제7대 집행부 임원들을 선출하게 되는데, 그 중 부회장은 2년 후 2005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8대 집행부의 회장선출자이다.

이번 제7대 수석부회장의 선출 방식은 지금까지의 재미동창회 설립초기의 4대 지역동창회가 순번제로 집행부를 담당하며 이 순서에 따라 그 지역동창회 내에서 후보자를 추대하여 평의원회의의 인준을 받던 관행으로부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번에 재미서울대

총동창회는 지역순번제에 따른 관행을 평의원회에서 재검토하기 위하여 우선 평의원회 전까지 전국적으로 재미총동창회를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동문들에게 소속지역 동창회와는 관계없이 기회를 개발하여 입후보자를 공개 초빙하기로 하였다.

그간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평의원회의의 인선위원회(2001년 6월 9일 시카고에서 열린 제10차 평의원에서 재미총동창회의 임원진 구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선임된)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제7대 수석부회장 선출절차에 대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이번 선출

될 제 7대 수석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하는 동문들은 2003년 5월 27일까지 제12차 평의원회의의 인선위원장(박윤수, 문리대 52년 졸, 초대회장 역임) 앞으로 입후보 의사를 표명하는 서한을 제출하며 5월 30일 평의원회의의 전야 심포지움장에서 출마 소신을 공개 발표하며, 5월 31일에 열리는 평의원회의는 최종 입후보자 중에서 제 7대 수석부회장 겸 8대 회장선출자를 (2005년 7월 1일부터 2년간의 임기가 시작) 선출하게 된다(자세한 절차는 3면 입후보자 공개초빙 공고문 참조).

<3면에 계속>

## 오하이오 동창회 창립

"자주 만나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동창회"

-최인갑회장(공대 57입)

120여명의 동문들을 회원으로 가진 오하이오 지역동창회가 1년 반의 발족 준비 끝에 3월 2일(일) 오후 5시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경천식당(JingChuan Restaurant, 2680 E. Dublin-Granville Rd.)에서 30여명의

동문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발기총회를 갖고 이사회제를 도입한 회칙초안 수립, 금년도 사업계획안을 검토하고 금년 동창회를 이끌 임원진을 선임하였는데, 회장에 최인갑(공대 57년 입), 이사장에 이주영(의대 58입) 및 부회장(차기회장)에 정길화(의대 59입) 동문들이 이날 선출되었다. 앞으로 오하이오 동창회의 임원진은 동문들이 밀집한 주요도시에서 순번제로 담당하여 오하이오 지역동창회를 역동적인 조직으로 키워가기로

하였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이윤락 재미 총동창회장이 참석하여 동창회 창립을 축하하는 격려사를 하였고, 최인갑 회장은 인사말에서 "선배, 후배 동문들과의 만남은 오하이오 서울대동창회가 있으므로 자주 만나게 되며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진다"고 하면서 동문들의 친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전문지식을 나누는 세미나 등을 통하여 동문들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동창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2면에 계속>

### 목차

- 제 1부 : 총동창회 소식
- 제 2부 : 문필과 논고 - 4면
- 제 3부 : 동문 및 지역동창회 소식 - 15면





# 오하이오 지역동창회 창립을 마치고

崔仁甲(공대 57년 입, 오하이오 지역동창회장)

3월 2일(일) 콜럼비아 경천식당에서 약 30명의 동문가족들(동문은 18명)이 모여 눈이 온 불순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약 380 mile을 운전해 오신 이용락 회장(재미 서울대 총동창회장) 내외분이 참석한 가운데 오하이오 지역동창회 창립 모임을 성공리에 가졌다.

이 창립 모임이 있기까지는 무엇보다도 1948년에 공과대학에 입학한 대 선배님이고 현재 7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정열적으로 총동창회를 이끌어 가는 이용락 회장의 열성과 지도력에 힘입은 바 크다. 약 일년반전에 부산선배님께서 장거리 전화로 약 30분간 대화를 통하여, "120여명의 동문이 거주하는데 별도로 오하이오지부를 창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하셨다. 그 이후 콜럼버스에서 은퇴하신 이정섭 동문(의대 52년 입)을 어느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콜럼버스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의대 출신들의 명단을 부탁했다니 2001년 12월 19일 23명의 의대동문 명단을 집으로 우송해왔다. 동문들이 모두 바쁜 일정에 있으므로 금요일이나 토요일을 피하고 일요일을 창립총회일로 택하였다. 책임을 맡은 나는 우선 발기인부터 찾기 시작했다. 다행히 발기인으로 참여를 부탁받은 동문들은 모두 서명하거나 구두로 승낙하였다. 또, 몇 명은 e-mail로 확인 받아 발기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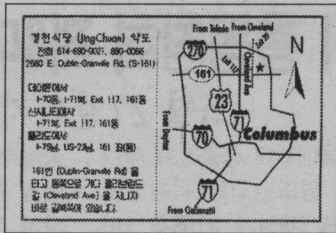
콜럼버스는 오하이오주의 중부에서 약간 남쪽에 위치하므로 큰 도시들 즉 Akron(Good Year Tires 소재지이며 콜럼버스 북동쪽), Athens(Ohio University 소재지이며 콜럼버스 동남쪽), Cincinnati (프로야구팀 Cincinnati Reds 소재지), Cleveland (프

로축구팀 Cleveland Brown 소재지), Dayton (공군기지이며 Wright Brother 형제 출생지이며 비행기의 발상지) 그리고 Toledo (University of Toledo 소재지)에서 약 2-3 시간 운전하면 도착할 수 있다. 급년 2월 5일에는 Toledo의 정운형 동문(문리대 53년 입)께서 13명의 명단을 보내왔고, Athens의 김성호 동문(법대 50년입)께서 4명의 동문, Akron의 김동광 동문(공대 62년 입)께서 6명의 동문 그리고 Dayton의 최용완 동문(공대 57년 입)께서 11명의 동문명단을 각각 보내왔다. Cincinnati의 김중혁 동문(공대 1973년 입)은 e-mail로 28명의 명단을 보내왔다.

재미 서울대총동창회 오하이오지부 창립 총회는 이경훈 동문(공대 85년입)의 사회로 6시경 시작되었는데, 校歌제창으로 창립총회를 시작하고자 했으나, 교가는 맨 마지막에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젊은 후배의 의견대로 맨 마지막 순서로 하였다. 이용락 재미 서울대 총동창회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현재 미주에 거주하는 약 7,000명의 동문들의 거주가 추산되며 오하이오 동문들도 적극적으로 재미서울대총동창회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在美서울대同窓會報(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는 매월 발간되는데 일년 소요예산이 약 15만불이며, 현재 1,500여명의 동문들이 일년에 \$60씩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앞으로 1,000명의 동문들이 \$60씩 성의를 표하면 재미서울대총동창회의 자조자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또 후회장은 현재 서울대동창회보는 주소가 확인된 모든 재미동



癸未年 雪原을 누비며 동창회 창립준비에 노력하고 있는 崔仁甲 동문의 忙中閑事인



오하이오 동창회 창립총회장소 약도

문들에게 배포되고 있는데 현재 납부되고 있는 구독료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으니, "미주동창회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미주관악후원회의 이사로 많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후원회비는 \$200 이상).

나는 일년 전부터 이 동창회보를 읽어보니까가 아주 탁월하고 새 동문 친구를 많이 만나게 되며 자기의 가장 가까웠던 많은 동문들

### 오하이오 서울대동창회 행사계획안(2003/2004)

- ◆ 하계야유회
  - 2003. 6. 28 (토) 오전 11:00
  - 장소: Delaware State Park, Canoeing Route 23 (after entering the park, keep right until reaching a picnic area near lake).
  - 점심은 각자 준비하되 서로 나눌 만큼 충분히 가져오기 바람
- ◆ 은퇴준비 투자 세미나개최 Investment (Retirement) seminar
  - 2003. 9. 6. 저녁 6시
  - 연자: AG Edwards & Sons(1887)
  - 장소: 가야(Gaya)
  - 참가비: 1인당 \$20-\$30
- ◆ 소득세 세미나(Income Tax seminar)
  - 2004. 1. 4. (토) 저녁 6시
  - 강사: 이성우 동문(상대 72년 입)
  - 장소: 가야
  - 참가비: 1인당 \$20-\$30
- ◆ 오하이오 서울대동창회 신년 총회
  - 2004. 3. 6. (토) 저녁 6시
  - 시암보고 및 새 임원진 선출
  - 장소: 경천(Kyung Chun)
  - 참가비: 1인당 \$20-\$30
- ◆ 골프대회 개최
  - 2004. 5. 29 (토) 오전 11시
  - 장소: OakHaven Golf Club 2871 US Rt 23 N., Delaware, OH
  - Tee time: 11 am (\$40 including cart)

이 어디에서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게되어 이 동창회보는 \$60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동창회보에 실

린 다양한 분야의 기사는 참 읽을 만했다.

총동창회에서는 워싱턴 DC의 공연실황을 녹음한 조수미(음대출신-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동문의 CD를 동창회보 발간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판매중인데, 그렇게 좋은 성악을 들어본 일은 일생동안 별로 없었다. (구입 희망자는 본인에게 연락바라며 CD 1장 가격은 \$15이며 우편료가 더 부가된다).

나는 발기인을 대표하여, "선배, 후배 동문들과의 만남은 오하이오 서울대동창회가 있으므로 더 자주 만나게 되며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 진다"는 동창회 창립총회의 소감을 말하였다.

이날 발기총회에서 임원선출이 있었는데, 이주영 동문(의대 58년 입)을 理事長으로 선출하고, 각 도시마다 理事 두 명씩을 두며 본인과 콜럼버스 지역 동창들이 초대 임원진을 맡기로 하고 임원들을 선출하였다. 이사장 이주영 동문은 인사말에서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이 합심하기를 역설하였으며 분야별로 자기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같이 나누는 seminar를 갖는 것을 연례 행사에 포함하기를 제안하였다. 이날 총회는 사업계획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약 8시 반경 발기모임은 한혜영(음대 60년 입) 동문의 先驅으로 모교 교가를 다함께 불렀다. 그리고 "오하이오 서울대학교 동창회" logo 와 오른쪽에는 태극기, 왼쪽에는 성조기를 세워놓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이날 총회장에서 이용락 회장에게 오하이오 지부는 Ohio State University의 National Football Champion Tee-Shirt를 선물하였고, 재미총동창회에서는 재미서울대동창회보와 아름다운 SNUAA in USA 로고가 새겨진 탁상시계를 참석동문들에게 기념품으로 보내왔다.

## 오하이오 동창회 1면에서 계속

이날 오하이오 동창회 총회에 참석한 동문들과 선출된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 ◆ 총회에 참석한 동문명단 :
  - 최재환(공대 84입), Mrs. 최인갑(하단), 이익삼(사대 58입)(상단), 이성우(상대 72입)(하단), Mrs. 최용철(상단), 최용철(공대 83입)(상단), 오용욱(약대 65입)(상단), Mrs. 김웅식(하단), 정운형(문리대 53입)(상단), 김웅식(의대 51)(하단), 최인갑(공대 57입), 이용락 회장, 이주영(의대 58입)(상단), 정길화(의대 59입)(상단), Mrs. 이용락, 이용재(공대 60입)(상단), 최용완(공대 57입)(하단), 이경훈(공대 85입)(상단), 김동광(공대 62입)(상단), 이수자(공대 62입)(상단), 김성호(법대 50입)(하단), 한혜영(의대 60입)(하단), Mrs. 정길화(상단), 박한영(의대 58입)(상단), Mrs. 이용재(하단), Mrs. 김성호(상단), Mrs. 이주영(하단) 이석재(인문대 86입) 송원길(의대 58입)

- ★ 선출된 오하이오 동창회 임원진 :
  - 수 理事長 이주영(의대 58입, Columbus)
  - 수 理事 : 송원길(의대 58입, Columbus), 최용완(공대 57입, Dayton), 김성호(법대 50입, Athens), 정운형(문리대 53입, Toledo), 이사김동광(공대 62입, Akron), 이동하(공대 57입, Cleveland), 수會長 최인갑(공대 57입, Columbus) 수副會長/차기회장

정길화(의대 59입) 수재무이성우(상대 72입) 수총무 이경훈(공대 85입) 수 감사 겸 이사 이익삼(사대 58입) (초대회장 및 집행부 임원은 Columbus 지역에서 맡고, 앞으로 주요도시에서 순번제로 동창회를 맡아 운영하기로 함)

◆ 최인갑회장 연락처: IN-KAP CHOI 914 Loch Ness Ave., Worthington, OH 43085 ☎ 614-436-5780, 팩스 614-447-3844

## 오하이오 동문들 동창회보 발행성금 출원

오하이오 동창회(회장 최인갑, 공대 57년 입)는 지부 발족 후 다음과 같은 8명의 동문들이 卍捐한 성금 \$1100을 모아 총동창회에 보내왔다.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는 창립지부의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금을 보내온 오하이오 동창회의 崔仁甲 회장님과 동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수 송원길(의대 58년 입), 이성우(상대 72년 입), 김웅식(의대 51년 입), 이익삼(사대 58년 입) 및 오용욱(약대 65년 입) 동문 회보 구독료 \$100
- 수 정길화(의대 59년 입, 관악후원회 이사), 최용완(공대 57년 입, 관악후원회 이사), 최인갑(공대 57년 입, 관악후원회 이사) 관악후원회이사회비 \$200

<오하이오 동창회 창립총회장 3월 2일 콜럼버스 경천식당> ① 참석동문들을 맞이하고 있는 이석재(86 입), 최재환(84 입) 동문 ② 격려사를 하는 이용락 재미 총동창회 회장 ③ 인사말을 하는 최인갑 오하이오 동창회 초대회장 ④ 오하이오 창립총회의 명사회자 Master of Ceremony 이경훈(85 입)동문 ⑤ ⑥ ⑦창립총회장에서 자주 만나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동창회를 만들자고 담소하는 동문들





<8대회장 선출 1면에서 계속>

이번에 8대 회장선출자 입후보자를 공개 초빙하게 된 것은 현재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점들을 타개하고자 하는 총동창회의 노력의 일환이다.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는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동창회보가 처한 현실은 많은 同門들의 방관자적 無關心과 각 지역동창회의 地域主義로 압축된다. 지난해 제 11차 평의회 전야 재미 총동창회 창립 10주년을 돌아보는 심포지움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재미동문들의 자체 발전을 지원하고 母校를 세계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는데 동문들의 熱과 誠을 모으며 미주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재미총동창회의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동창회와 총동창회가 有機的인 협력관계의 구축이 先決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주지역에 산재하는 21개 지역동창회를 하나로 연결하는 총동창회의 기간사업인 "

재미서울대동창회보'의 발행재원의 안정적 확보는 창립이래의 宿願과제였다. 지금까지 주소가 확인된 모든 동문들에게 배포되어온 동창회보의 발행은 동문들의 성금(회보 구독료 및 미주 관악후원회비)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그간 회보는 소수의 헌신적인 동문들의 성금 출연에 의존하여왔으나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동문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어 왔다. 장기적으로 전체동문들이 출연하는 "회보 구독료" 수입으로 재정자립이 이룩될 때까지의 과도기에 있어서는, 회보발행 소요재원은 각 지역동창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출연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작년에 열린 제11차 평의회(2002년 6월 15일, 시카고)는 서울의 총동창회에 보낼 연례 기여금과, 관악후원회비 출연금 감소로 인하여 금회계연도에도 회보발행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동창회보의 지속적인 발간을 위하여 1달 분의 동창회

보 발행비용을 평의원의 결의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하였고 이 금액을 각 지역동창회에 할당하여 그 납부를 작년 11월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소수 지역동창회(시카고, 뉴욕, 휴스턴, 하트랜드, 미네소타)만 두가지 납입금을 완납)를 제외하고는 다수의 지역동창회가 이를 이행치 않아 2003년 2월 28일 현재 있어 서울총동창회에 연례기여금(\$11,000중 8개지역동창회에서 \$7,800납입)을 송금한 이후 재미 서울대동창회보에 그 발간재원이 완전 고갈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재미 동문들이 총동창회와 동창회보의 발간재원문제에 조그만 관심을 모두 보인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나, 현실은 각 지역동창회 중심으로 동창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총동창회의 문제에는 아랑곳없는 "지역주의"가 재미동창회보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중 가장 많은 숫자의 동문회원들을 포함한 미주내의 최대 지역동창회 마저 평의회 결정

사항을 이행치 않는 상황에서는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재미 서울대동창회보의 존재 이유와 존립 가능성은 크게 의문시된다. 이 문제에 관하여 그 지역 총동창회의 전년도 회장은 새해 들어 이취임식이 끝난 후 해당 지부가 총동창회에 낼 납부금은 이월금 속에 남겨 두었다고 하였고 신입동창회장은 "지역 동창회와 총동창회는 회기가 다르므로 전년도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하여 현재까지 배정된 회보 발간지원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그 지역으로부터 8명의 정원 중 6명의 평의원이 지난 평의회에서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의원의 이 결의사항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의의사록을 미리 요청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그 기간사업인 동창회보의 존립의 가능성은 그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평의원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매년 평의회 회의는 그 의사정족수가 의문시 될

정도로, 지금까지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집행부를 담당해 온 4개 대도시 지역동창회의 평의원들을 제외하고는, 그 참석률이 극히 저조하여 평의원의 존재 이유가 의문시되었다. 이 상황에서는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역량과 지도력을 지금까지 4개 대도시 동창회(워싱턴 DC, 시카고, LA 및 뉴욕)가 순번제로 담당해 온 관행을 재검토하여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를 위하여 봉사할 임원진을 전 미주 동창회의 동문들 가운데서 추대하기 위해서는 평의원의회의에서 선출할 제7대 수석부회장부터 그 후보자를 공개 초빙하여 전 지역동창회가 명실공히 선출한 지도력을 확보하여 재미서울대총동창회의 발전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제12차 평의원의회의를 통하여 향후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동창회가 처한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많은 동문들은 기대하고 있다.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2003년 제 12차 정기 평의회 개최공고

2003년 5월 30일(금)~6월 1일(월)

LA,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7,000여 동문회원들이 母校를 高揚하고 동문들의 상호발전을 위한 견인차가 되고자 하는 조직입니다. 우리 재미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제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오신 동문들과 이를 대표하는 전미주 21개 지역동창회의 평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는 자체 발전을 위한 관악후원회의 사업, 母校의 後進을 위한 基金 모금과 관리, 동문들간의 友情을 交流하는 場인 재미 동창회보의 질적 수준 향상, 새로운 동문들의 발굴과 각 지역 동창회간의 협력의 활성화를 통하여, 전체동문들의 복지 증진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업에 관한 기본 방침은 평의원의회의 토론회 결의에 따라 수립됩니다.

재미 총동창회 회칙 제 14조와 2002년 평의원의회의 결의에 따라 2003년 제12차 정기 평의원의회의 개최와 관련행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평의원의회의와 관련행사 일정>  
가. 전야 Symposium : 5월 30일(금)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 다음 주제의 전체평의원과 동문들이 참석하는 공개토론회

1)제 1 주제 발표자 : 김기현 동문 (North Carolina Central Univ.교수),북한의 과학기술 교육제도 방문보고

2)제 2 주제 발표자 : 오홍조 수석 부회장, 미주 이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재미 서울대 동창회의 역할정립

3)제 3 주제 발표자 : 강경식 회칙 위원 :평의원의 활성화를 위한 재미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칙개정을 위한 회칙위원회 활동보고

4)제 4 주제 발표자 : 박윤수 인선 위원회 위원장

재미 서울대 총동창회 제8대 회장 선출방안과 후보자 소신발표  
나. 평의원 회의 : 2003년 5월 31일(토) 오전 9시-오후 4시 ▶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 ,3315 Wilshire Blvd. LA, CA (전화 213-381-7411)

평의원의회의 본부 Suite 341호  
다. 평의원 가족 LA 시내관광 : 5월 31일 (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라. 미주관악후원회의 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 평의원, 본국 순방단 및 관악 후원이사 초청 만찬

- 오후 8시부터 이체진 교수 (Claremont McKenna 대학) "

미국의 對韓半島정책'에 대한 특별강연

- 오후 9시부터 동문 음악회  
마. 6월 1일(일) 골프대회 및 만찬

- 평의원, 본국 순방단 초청 및 남가주지부 동창회 골프대회 및 만찬  
6월 1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장소: Palm Spring Mesquite 골프장

바. 2박 3일 미서부 관광: 6월 2일(월)-4일(수) 오후 7시까지

- 남가주 동창회 주관 서부 관광

이번 평의원의회의는 총동창회가 남가주 동창회와 협력하여 주관하는 평의원 가족을 위한 LA 시내관광과 남가주 동창회가 주관하는 6월 2일 월요일부터 2박 3일의 서부관광 일정이 마련되어 있으니 평의원님과 가족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평의원의회의를 위하여 임광수 본국 총동창회 회장 및 정명희 모교 부총장님 일행의 본국 순방단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평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가하셔서 재미서울대동창회를 위하여 일부러 멀리서 오시는 본국 순방단을 환영하여 주시고 母校 및 동창회 발전을 위한 평의원의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미서울대학교 제8대회장-선출자 입후보자 공개초빙

출마의사표명 서신 5월 27일까지 제출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오는 제12차 평의원의회의에서, 제 10차 평의회 (2001.6.9, 시카고)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6인의 인선위원회 (2001.7.1일자 동창회보 제 89호 제 7면 참조)의 주관으로 제7대 집행부 임원(수석부회장 겸 8대회장 선출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제 12차 평의원의회의 인선위원회 (박윤수, 강수상, 이병준, 오인석, 이용락

를 2003년 5월 31일 LA에서 개최되는 제 12차 평의원의회의에서 선출하기 위하여,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발전에 봉사하실 동문들을 그 후보자로 아래와 같이 공개초빙 합니다.

아 래  
1) 입후보자는 출마의사를 표명하는 서한을 인선위원회 위원장에게 2003년 5월 27일 화요일까지 제출한다. 2) 입후보자들은 2003년 5월 30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제 12차 정기 평의원의회의에서 열릴 전야 심포지움장에서 출마소신을 발표한다. 3) 입후보자들은 인선 위원장에게 당일 배부하는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한 이력서 1통, 명함판 사진 1매, 재미서울대학교 동창회보 당회계년도 구독료를 납부한 2인 이상의 동문들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최종 출마지원서를 2003년 5월 31일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인선위원장에게 접수한다. 4) 인선위원장은 그간의 위원의회의 활동결과와 최종 입후보자 명부를 제 12차 평의원의회의 본회의에 보고한다. 5) 평의원의회의 본회의는 인선위원장의 보고를 토대로 제 7대 수석 부회장 겸 8대회장 선출자를 선출한다.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제 12차 평의원의회의 인선위원회위원장  
朴允洙(문리대 52년 졸)

2003. 3. 28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 具 璵 會(의대 65년 졸) 회장 李 龍 洛(공대 53년 졸)



# 제 2차 對이락전쟁의 문제점

鄭澤洙(문리대 50년 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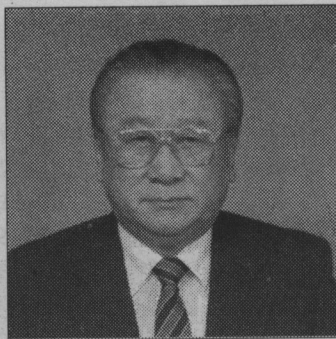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도 하지만 미국의 霸權主義에 의한 野慾은 癸未年의 새봄을 맞이하여 中東을 砲火속으로 몰아갔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자 그곳이 中東의 영원한 화약고(火藥庫)가 되리라는 것은 일찌기 예견되었던 일이었다. 나는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와 후원으로 야기된 미국의 偏頗적인 중동정책의 產物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국의 오랜 숙원은 質 좋고 경제적인 석유의 확보였고, 중국이 경제적인 약진을 꾀하고져 카쉬간유전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는 등 미래에 예상되는 중국과의 세계적 차원의 경쟁에 대비한 초석(礎石)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911 테러사건이 자국과 계기가 되어서, 드디어 지난 해 9월에 수립된 "예방적 공격" 군사전략이란 부시 독트린이 발동된 것으로 생각한다. 원래 국제관계는 國家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離合集散으로 결정되는 것이지만, 이번에 미국과 영국이 야기한 이 戰爭은 그 명분상 매우 無理한 결정이었다. 그동안 이번 사태는 미국의 이익에 상치(相馳)되는 나라 가운데 특히 불란서, 독일, 소련 및 중국 등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戰爭은 UN의 승인도 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세계와 미국내의 反戰 輿論과 運動을 무릅쓰고 내린 부시 정부의 이번 결정은 國際平和의 유지라는 관점에서는 크게 의문시된다.

지난날 후세인이 테러사건에 관련된 자들을 은밀하게 물심양면으로 도운 것도 사실이고, 현 대통령의 父親인 부시의 집권시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侵略하여 미국과

전쟁을 하였는가 하면 10만명이 넘는 쿠르트족을 生化學 무기를 동원하여 殺傷하는 만행(蠻行)을 저질러서 미국의 미움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의 이라크에 대한 미영[美英→米英→微影→?] 양국의 侵攻은 감정적인 발상이나 국제법상의 國家主權존중이나 人權保護라는 국제여론에 대한 대응이라고도 할 수 없다.

왜 이라크가 미국의 무력행사의 표적이 되었던가? 생각건대 그 근본적인 이유는 政治經濟적인 고려에서 質 좋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매장량을 가진 석유자원의 확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이번 戰爭의 주된 이유는 石油 자원확보라는 커다란 목적을 위하여 이라크를 거점으로 中東을 미국의 지배권 밑에 둠으로서 미국의 욕구 달성과 미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의 "中東 평화"를 유지하여 이스라엘 安保환경의 개선으로 미국의 부담도 덜게 된다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노린 現實主義에 입각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부연하면, 1) 현대 세계경제의 동력원이 되는 석유자원 확보가 용이하게 되어 미국의 경제 성장과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게 되며, 2) 專制的인 후세인의 독재 체제를 武力로 전복시켜 이라크를 民主化시킴으로서 이를 기점으로 회교권의 신정체제(神政體制)가 지배하는 중동지역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며, 3) 이스라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이라크의 軍事力을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평화적인 발전과 이를 바탕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미국의 中東政策의 세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하고자 한 것이 이번의 無理한 침략적 전쟁 정책에 잠재한 "合理性"(?)이라 할 수 있겠다.



□ 이제 미국은 3주만에 후세인 정권을 정복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軍政을 거쳐서 親美[米]정권을 세우려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은 自國의 이익만을 고집하지 말고 파괴된 이라크의 질서회복과 국가건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런 죄 없이 미영[米英]연합군의 포탄에 가족을 잃어야만 하였고 살 곳과 먹고 입을 것도 다 불태워진 이라크의 무고한 시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는 것은 美國의 책임이고 또한 人間의 도리일 것이다.

돌이켜보건대 戰爭이 발생할 때마다 強大國에게는 그들만의 명분은 항상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라크의 生化學무기나 대량살상무기의 예방적 제거라는 미국의 開戰이유는 戰後 지금까지 아무 것도 찾아낸 것이 없어 그 설득력이 없음이 분명하다. 정당한 名分이 결여된 이 전쟁후의 복구과정에 있어서, 미국은 테러를 근절하고 독재 정권을 축출하여 살기 좋은 민주국가를 세운다는 당초의 名分을 말만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無政府상태인 국제사회에서는 秩序를 새로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극적인 戰爭을 수행하는 것이 역사상 帝國의 행태이었던 것은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란 自由主義의 이념아래 창건된 美國은 오늘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진정으로 世界平和를 위하여 그 無敵의 國力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모범적인 본보기가 되어주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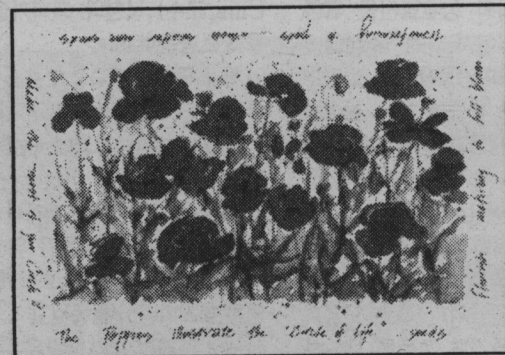
## 시랑

어제도 어제처럼  
난  
꽃잎 하나 떨어  
시내 물에 띄어  
당신께 보냈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난  
꽃잎 하나 떨어  
시내 물에 띄어  
당신께 보냈습니다

비록 영영 당신께  
마치지 못하겠지만  
내일도 모레도  
난  
꽃잎 하나씩 떨어  
시내 물에 띄어 당신께  
보낼 겁니다

소수 김택수(의대 '63 졸)



재미서울대 동창회원들에게 끊임없이 글을 보내어 동창회보를 풍요롭게하는 이태상 동문(문리대 59년 졸)이 회보편집실에 5월에 보내온 격려의 엽서에서

### 2부 文筆과 論攷 목차

면역학 연구과정/김윤범.....	1
오하이오 동창회 창립을 마치고/최인갑.....	2
시랑/김택수.....	4
제 2차 대이락전쟁의 문제점/정택수.....	4
4월 학생혁명의 의의/조시호.....	5
유관순 집안의 여인들/장명수.....	6
아니 이 늦봄에 뭘 함박눈이/조금희.....	7
건강하게 돌아오게 /장기남.....	7
SARS 퍼뜨린 후진중국 의료현실/김일훈.....	8
SARS,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오명돈.....	9
삼도봉시 강해/서승환.....	10
서울대학교 제 57회 학위수여식/임광수.....	12
박승서동문 추모사/김중을, 정정수, 김영근.....	12

### 自然의 循環

自然은 왕성한 여름, 結實의 가을로부터 冬眠의 겨울을 거쳐 새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약속하는 봄으로 사계절의 循環을 보여주고 있다. 새 봄은 구각(舊殼)을 벗고 새로운 생명과 사회질서를 생성하는 계절이다. 反文明的이고 反人類의인 9.11 테러사태의 여파는 미국이 주도한 무리한 전쟁을 가져왔으나 그 전쟁의 여파는 아직 헤아리기 어렵다. 우리는 專制的인 정권을 전복한 破壞의 殘骸로부터 세계 인류문명의 가장 오랜 發源地로부터 진정한 "中東平和"의 토대가 구축되기를 세계 인류는 이 봄에 기원한다. 미주 대륙에서 開拓者의 삶을 살고있는 7천여 재미 동문들은, 동문들의 발전과 유대를 다지며 미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오는 제12차 정기 평의원회의를 통하여 그 존립 목적을 구현하는 有機的인 하나의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2월 28일자로 발행재원이 枯渴된 재미서울대동창회보의 중단없는 발간을 위하여 긴급 특별관약후원이사회비를 卹捐하신 심상은(상대 54입), 방은호(약대 42입), 조시호(문리대 59입), 윤정옥(약대 50입), 이용락(공대 53졸), 박윤수(문리대 48입), 오인석(법대 58입) 終身理事 및 김호원(치대 52입), 강영국(수의대 67입)理事님과 광고료를 출연하신 박영규, 이용락, 임현재/조중행, 전영식동문께 재미 서울대 총동창회는 감사드립니다.



# 4월 학생혁명의 意義

조시호 (문리대 63년 졸)

## I. 정치적 배경 : 獨裁政府의 성장

주권재민(主權在民)이란 民主主義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官權을 동원하여 不法不正選舉를 자행하여 長期집권을 획책하던 獨裁政權을 일거에 붕괴시킨 1960년의 4월 학생혁명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4·19의 싸이 움틀 때까지는 10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6·25동란이 가져온 經濟的 위기에 처해온 우리나라는 政治的인 위기마저 맞고 있었다. 李承萬 政權의 독재적인 정치 성향은 李대통령이 취임하고부터,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게 하는 憲法개정을 주장하고서부터였다.

1952년 이승만 政權은 국회의 대통령 선거에서 그가 재선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政權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獨裁적인 政略을 수립하였다. 국민이 직접선거하는 大統領直選制를 들고 나왔으나, 이에 실패하자, 그때부터 李政權은 與黨 국회의원이 過半數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음으로 여당의 마음대로 국회를 이끌어 나갔다. 첫째로, 李政權은 1952년 5월 26일 戒嚴令을 선포하고 이 政權을 반대하는 野黨국회의원들을 투옥시켜 버렸다. 이것을 '5·26 政治波動'이라고 한다. 이러한 반대파 국회의원들의 투옥사건은 대통령 직선제를 수립하는 개정헌법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자행되었다. 나중에는 舉手투표를 하게 하여 이 政權에 반대하기를 무서워하는 국회의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거수 贊成하게 하여 대통령직선제의 헌법개정

안이 통과되었다.

1954년 5월, 이 政權의 自由黨은 強압정책을 써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여 국회의원 과반수를 차지하자, 한번밖에 重任할 수 없는 大統領職을, "초대 대통령만큼은 예외로 하자"는 헌법개정안을 내세워 자기네들의 永久執權을 꿈꾸고 있었다. 국회 재적인원 203명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통과되는 헌법개정안이 한 표 차이로 부결되자(可決定足數는 136표인데), 그 다음날 자유당은 "203의 3분의 2는 135.3인데 사사오입(四死五立)하면 135표이지 136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헌법 개정안은 可決된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이를 반대하는 民主黨의 전신인 國民黨과 無所屬 의원들은 "憲法 死守會"까지 결성했다.

이러한 자유당은 이 만행(蠻行)으로 국민의 지지를 잃었고, 1956년 副統領 선거에서는 집권당이 아닌 民主黨의 張勉 후보가 당선되었다. 또, 195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국회 재적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當選됨으로써 자유당의 이러한 만행을 저지 할 수 있는 세력을 확보하였다. 이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가 이긴 곳은 투표에서 속임수를 쓸 수 있는 地方에서나 겨우 得票할 수 있었고, 都市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자기네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음 번 대통령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執權政府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國家保安法을 만들고 또 집권 정부가 地方단체장 (도지사, 시장, 군수, 면장,



리장 등)들을 선거대신 任命制로 하려고 하였다. 이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저지에 부딪히자, 자유당은 반대하는 議員들을 체포하고 자 武術 警察들을 동원하였다. 그리고는 自由黨 의원들만이 참석한 국회에서 또, 憲法을 改定하였다. 이 사태를 후에 "12·24 政治波動"이라고들 한다.

## II. 경제적 배경 : 새 財閥들의 등장

한편 이러한 獨裁的인 政府와 병행해서 경제적으로는 獨占的인 企業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6·25 한 국전쟁이 불러온 무자비한 파괴는 한국의 經濟發展을 정지시켜 버렸고 전쟁비용 조달과 UN군의 막대한 지불 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造幣公社의 기계를 마구 돌렸고 이는 막대한 INFLATION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日用品의 가격은 매 6개월마다 곱절씩 뛰었고 온 국민들의 생계유지에 막대한 위협을 초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유당은 수입한 原資材(쌀, 설탕, 밀가루, 섬유 및 비누등)와 生必品을 與黨의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몇몇 기업인들에게 할당하여 그들로 하여금 막대한 이익을 국민들로부터 착취하게 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特惠용자, 換率특혜, 援助와 관계된 특별자금 유통등을 特惠기업인에게만 할당하였다. 미국 원조에 힘입어, 한국의 산업과 경제는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했지만 이로부터의 利得은 전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몇몇 特惠기업인에게 돌아간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이러한 기업인들이 銀行株式을 사들이고

이들 재벌(財閥)들은 한국경제를 좌우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경제적인 불평등은 갈수록 악화되어 갔다. 정부보증 용자 또는 은행 용자를 받을 수 없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갈수록 더욱 斜陽 路를 거듭해서 많은 경우에 결국은 파산 선고를 하고 말았다. 都市와 地方의 경제적인 不平等 惡化 또한 極點을 이루었다. 小作人들은 1949년의 土地改革으로 農地는 갖고 있었으나, 生計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태였다. 왜냐하면 정부는 쌀을 收入하는 특정 기업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策定해서 국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輸入米(양쌀)을 사서 먹었고, 농부들은 자기네 쌀을 팔기 위하여 생산 가격보다 싼 國定가격으로 팔아야 했다. 그리하여 가난한 농부들은 더욱 더 가난하게 되었다. 이러한 독재정부와 손을 맞잡고 새로 일어난 財閥들의 경제독점은 韓國社會에 쌓여온 緊張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 III. 4월 혁명의 계기

1960년 3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의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긴장은 결국 頂點에 이르러야 말았다. 自由黨은 여당의 選舉資金을 동원하기 위하여 여당 및 부패 관료들과 손을 맞잡고 막대한 獨資占積 利得을 도모한 특정기업으로부터 많은 不法 정치자금을 쥐어 짜내었다. 이승만 政權과 집권당인 자유당은 계속적인 집권을 위하여 폭력 政變 집단의 자유선거 방해(野黨의 선거 유세장과 선거 운동원들을 監禁을 동원하여 부수고 해산시켜 버리기) 등의 만행을 거리낌없이 자행하였다. 또 不正選舉를 위하여 공무원, 국공영 기관의 직원 및 경찰들을 動員하여 투표자들이 비밀로 野黨에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① 3인조 또는 5인조 집단 공개투표(투표소에 들어갈 때, 세 사람 내지 다섯 사람이 짝지어 들어가기) ② 투표함에 與黨후보를 지지한 투표지를 뭉터기로 넣거나(4월사전 투표) 투표함 바꿔치기(유권자가 실제 투표한 투표함을 여당이 조작하여 투표한 투표함으로 바꿔치기) ③ 완장부대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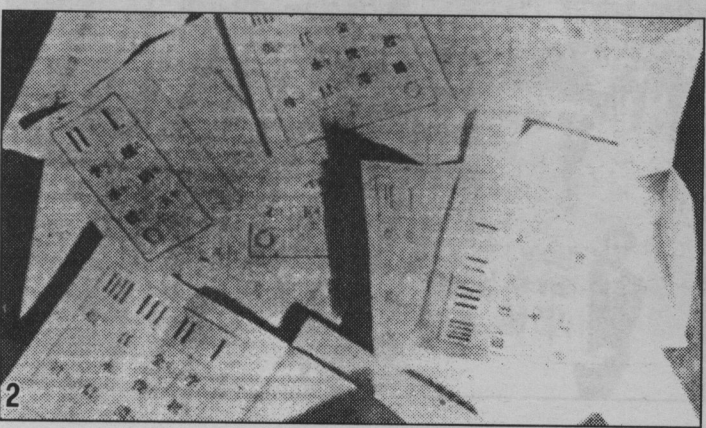
용 ④ 투표장의 야당 참관인 축출등의 부정선거를 위한 모든 만행을 거침없이 자행하였다.

이러한 不法과 不正 행위를 반대하는 농성과 데모는 3월 선거이전인 2월 28일 대구에서 "학교 안에서의 정치적인 간섭을 반대"하는 농성에서 시작하여 3월 15일 협잡선거(挾雜選舉)를 규탄하는 데모로 이어졌다. 이 데모에서 수 백명의 시위자(示威者)들을 향해 경찰의 총격으로 부상당하고 쓰러진 사람들이 생겨나고 시위자들을 해산시켰다. 그러나 4월 11일, 馬川 항구에서 한쪽 눈에 최루탄이 박혀 죽은 시체로 발견된 한 고등학생 [김주열(金朱烈/1943-1960)군은 전북 남원 출생으로 남원 금지 중학을 졸업하고 마산 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이 해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데모에 나섰다 실종되었다]의 시체가 떠올라 경찰의 포악성이 드러나자 馬川의 학생들과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와 궐기대회를 하였다. 이 마산사태가 촉발제가 되어 데모의 불길은 서울로 번져 갔다. 4월 19일, 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大學, 심지어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나와 3만명의 데모대는 서울 시내 중심지의 거리로 몰려 나와 "不正選舉 다시 하라", "민주주의 死守하자", "李 政權은 몰려나라"등을 외치며 그들의 처음 목적인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거기서 궐기대회를 가졌다(사진참조). 그리고 난 후, 그들은 제 2목적인 警務臺(대통령 관저)를 향하여 前進하였다. 孝子洞 終點까지 가서 경무대가 보이자, 경무대를 호위하는 경찰의 銃擊이 시작되었다. 경찰이 쏜 實彈에 맞아 부상을 당해 쓰러진 동료들을 보자 일부 학생들은 激憤하여 官用車에 불을 지르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는 戒嚴令을 또 다시 선포하고 거리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軍人들을 서울로 불러들였다.

학생과 시민들의 잇달은 示威 行진이 계속되고 심지어는 4월 25일 大學教授들도 데모에 나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관철 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다"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戒嚴令으로 동원된 軍人까지도 학생들에게 同調하여 "시위행진 대열을 향하여 발포"하라는 上士의 명령도 듣지 않았고 그들은 "같은 同族을 더구나 학생들에게 총을 겨누고 죽일만한 大義名分을 찾을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결국, 4월 26일 李承萬 대통령이 下野를 발표함으로써 계속된 데모는 멈추어 졌다.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후 공백상태에서 생겨난 마비(痲痺)된 公共秩序를 바로 잡기 위하여 學生들은 며칠동안 交通정리등의 警察의 역할까지도 서슴치 않고 맡아 나갔다. 나는 아직 까지도 그때 서울市警局長실에서 며칠간 봉사한 일을 잊을 수 없다.

<제 6면에 계속>





# 柳寬順(1904-1920) 집안의 女人들

장명수(한국일보 이사)

올해도 3월을 맞으며 유관순 열사를 생각한다. 민족의 심장에 뜨겁게 새겨진 이름 유관순, 그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언니고 누나다. 이화학당 시절 단짝 친구였던 보각스님은 유 열사가 "명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끝낸 방 친구들이 배를 잡고 웃다가 단체로 벌받던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친구 집에서 부쳐준 명태 반찬을 맛있게 먹고 저녁 기도시간에 장난치다가 사감 선생님께 들켰던 것이다. 그 천진난만한 소녀가 고향의 3·1 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옥에 갇히고, 옥중에서도 밤마다 "대한독립만세"를 불러 모진 고문을 받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의 나이 18살, 부모는 만세운동 현장에서 일경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나고, 오빠는 투옥되고, 두 어린 남동생은 마을을 헤매고 있

었다. 그 집안은 어떻게 되었을까? 최근 한 모임에서 유관순 가(家) 종부(宗婦)인 김정애(69)씨를 만나 집안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김 여사가 전하는 그의 시어머니 조화벽 여사의 이야기는 특히 감동적이었다. 강원도 양양의 부잣집 외 딸로 태어나 개성의 호수돈 여학교를 졸업한 조씨는 공주 영명학교 교사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오갈데 없는 두 소년을 돌보게 되었다고 한다. 유관순 열사의 동생들(인석, 관석)이었다. 감옥에서 6개월을 복역하고 영명학교 학생으로 돌아온 유 열사의 오빠(준석, 나중엔 우석으로 개명)는 세 살 위인 조씨를 누이라고 부르며 따르다가 "결혼을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며 열렬하게 청혼했다. 그들은 두 동생을 데리고 양양으로



가 살았다. 그곳엔 조씨의 부모가 세운 교회와 정명학교가 있었는데 조씨는 정명학교의 '호랑이 선생님'이었다. 그들은 세 아들을 두었으나 맏아들(제충)만 남고 둘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제충씨와 결혼한 김정애씨는 경기여고와 고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국제조직을 전공한 재원이었다. 뭔가 큰 일을 꿈꾸던 그는 유씨 집안의 며느리가 된 후 "이 집이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중앙여고 교사로 취직하여

34년 근속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독립노동당에 가입한 무정부주의자(anarchist)였다. 당국은 독립노동당을 공산당보다 더 위험한 당으로 백안시하고 탄압했다. 일제시대에 감옥을 이웃집 드나들 듯 하던 유 열사의 오빠는 해방 후에도 '위험 인물'이었다. 아들까지 뜻을 같이 했으니 살림살이는 여자들의 힘으로 꾸려야 했다. 3·1 만세사건 때 조화벽씨가 버선에 독립선언문을 숨겨 공주에서 양양까지 들고 가서 교회 청년들에게 전함으로서 그곳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1970년대에 한 학자가 찾아냈다. "왜 그 얘기를 지금까지 안 하셨느냐"고 며느리가 묻자 조씨는 "시부모님과 시누님이 순국하신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하찮은 일들 어찌 입밖에 내겠느냐"고 대답했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여장부셨어요. 8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독립운동가 집안의 며느리라는 긍지로 그 어려운 살림을 견디셨지요. 그러

나 노년에는 한평생 시아버님으로부터 저고리 한 벌 못 얻어 입었고 여자다운 불평도 하셨어요. 저도 남편에게서 저고리 한 벌 못 얻어 입었어요. 시아버님도 남편도 직업이 정당인이었으니 수입이 없었거든요." '政黨人'은 독립운동가나 마찬가지로 지사(志士)라는 뜻이 담긴 말이었다. 유관순 열사 때의 종부들은 그런 생각으로 '저고리 한 벌 못해 주는'家長들을 섬겼고, 자신의 '하찮은 공'을 숨겼다. "너희들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니 이 다음에 돈을 벌면 기념사업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 이보다 더한 부자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시어머니는 가난 속에서 가족들을 돌리겠다고 김씨는 회고했다. 그리고 그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할 일을 못한 것이 늘 부끄럽다"고 말했다. 유관순 열사의 올케와 조카며느리가 이처럼 든든하게 집안을 지켜왔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런 일인가? 우리 모두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한국일보 2003년 3월 3일자에서 전재함)

<5면 4.19혁명의 의의에서 계속>  
Ⅳ. 4월 혁명의 세대와 오늘의 젊은 세대에 대하여

이 4·19 혁명은 한국 역사상 학생과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아무 武器도 없이 두 주먹만 가지고 暴惡한 정부를 무너뜨린 첫 번째의 革命이었다. 그리고 이 혁명을 이끌었던 主體勢力이 學生이었음을 주목할 수 있다. 腐敗한 정치와 경제 질서가 학생들로 하여금 혁명의 대열로 나서게 하였으나 이들의 靑氣(靑氣)는, 국민들의 지지없이 성공할 수 없었다. 아직도 나는 그때 경찰과 군인을 피하여 달아나다가 어느 집으로 뛰어 들었을 때 그 집에서 나를 숨겨주어서 위기를 모면했던 때를 가끔 생각하곤 한다.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그때 軍警에 쫓긴 시위대원들이었던 어느 학생이건 어느 집에 뛰어갔더라도, 어느 집에서 이든 반갑게 자기 아들처럼 숨겨주었다고 한다. 이는 獨裁政권과 擄取적인 경제체제에 반대하여 함께 뭉친 국민들의 힘이 학생들의 시위로 뚜렷이 표현되어 하나가 되었던 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나는 4월 혁명은 한국 民主主義 발전에 아주 밝은 전망을 보여준 始點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요사이 나는 가끔 그때의 젊음의 패기(霸氣)가 끓던 우리 '4·19세대'와 요즈음의 '386세대'를 비교해 본다. 비록 나는 미국에 살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한국소식에 밝으려고 신문도 열심히 읽고 잡지도 열심히 본다. 그때 우리는 眞理와 正義와 義를 구함을 우리의 대학시절의 삶의 목적으로 하였고

이 젊은 세대의 진리와 정의의 理想과 喊聲이 구심점이 되어 既成세대가 이에 동조함으로써 자생적으로 하나가 된 4·19혁명을 가능하게 한 國民의 힘과 所望의 박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비록 멀리서 바라보지만 지금 우리의 祖國에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386세대'가 새로운 젊은 세대의 活力으로써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큰 요소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동창회보에서 장동만 동문께서 말하였듯이, 眞理와 正義와 義를 구하는 삶의 근본원칙들에 있어 쉽게 타협할 수 있는 듯 하다. 나는 가끔 생각해본다. '386세대 運動圈'은 4·19세대와 비교해 볼 때에 그들의 진정한 힘은 우리 세대보다 과연 더 強하고 華麗한가? 과연 그들은 말하는 것 이외에 그 행동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노파심을 금할 수 없다. 4·19때 학생들은 경찰, 군인, 관료 및 대통령의 폭압에 굴하지 않고 일어나 부패한 政權을 征服했다. 지난번 동창회보에서 한창섭 동문께서 관찰한 바와 같이 오늘의 '386세대'는 그들의 젊음의 상징이며 그들의 정열의 표상으로 '붉은 악마'의 깃발을 내세우는 것을 종종 본다. 그들이 의미하는 '붉은 악마'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의 우려는 그들이 말 그대로 '악마(惡魔)'를 정복하기는커녕 진짜 '붉은 악마'에게 정복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된다. 현재 우리의 조국에는 남북한 統一觀에 있어 세대간에 큰 異見대립을 보

여주고 있는 것 같다. 어느 시대나 世代간의 차이는 있는 법이다. 젊은 세대들이 가진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추구는 목표에는 共感하지만 해방 이후 비극적 곡절로 점철된 분단역사에서 오는 기성세대의 경험과 지혜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비록 기성세대는 때로는 眞理와 正義에는 눈을 감고 義를 구하지 않는 때도 있지만, 조국통일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이 붉은 악마의 힘은 진리와 정의의 이념이 구심점이 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또 그들의 행동에 공감하여 다시 힘을 합쳐 나설 때에만 손을 들것이다. 또 '붉은 악마'는 眞理와 正義를 두려워한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서울대학(특히 문리대)의 "학생운동권"을 두려워한 나머지 서울대학을 관악산 골짜기로 옮겨놓았다. 오늘날 韓國에는 형식론적인 平等主義와 平準化의 구호아래 부정부패에 연루된 고위층 인사들을 많이 배출한 特權集團인 서울대학

을 없애버리자고 주장하는 또 다른 "붉은 악마"의 기운이 더 센 듯 하다. 나는 가끔 가다가 다른 사람들로 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듣는다: '서울대학생(출신)들은 똑똑하기는 하나, 아주 利己적이고 몸을 무척 사리고, 남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정신이 희박해.....' 나는, "과연 그런가?"

라고 自問하곤 한다. 4·19 43주년을 맞이하며 그때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혁명대열의 선두에 섰던 친구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제는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세대의 同門들은 이러한 비판적 여론을 겸허하게 듣고 우리 각자를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 <5-6면 사진 설명>  
① 1960년 3월 15일 투표일에 선거무효를 외치면서 시위하는 마산고등학교생들  
② 3·15부정선거사태 - 사전에 투표된 투표용지들  
③ 1960년 4월 5일 서울 종로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야당당원들과 시민들  
④ 4월 1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협잡선거를 규탄하여 절규하는 학생(조시호, 이글의 필자)  
⑤ 1960년 4월 25일의 대학교수들의 시위.  
⑥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후에 거리질서회복에 앞장 선 학생들



# 아니 이 늦봄에 왜 함박눈이...

조금희

(농대 75년 입, 캐나다 알버타대 통계학 교수, 에드몬튼 동창회장)

나는 여행이 꽤 잦은 편이라 별 별 기후를 다 겪었다. 물론 태풍이나 남북극 기후 등 아주 드물게 다치는 특별한 날씨 말고. 내가 캐나다 에드몬튼의 알버타대학으로 옮겨왔을 때 여기는 5월에도 눈이 올 수 있다고 들었다. 차차 나는 그 말은 다만 고산지대의 산악기후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농담이라는 것을 알았다. 적어도 2003년이 될 때까지는 말이다.

올해 기후는 어디든 유별난 모양이다. 에드몬튼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좀 날씨 따뜻한 곳으로 살려갔으면 하고 쳐져있을 때 Victoria, BC Canada에서 방문한 학자를 만났다. Victoria는 그 당시 (2003년 3월) 영상 10-15 °C를 오르내리는 기후지만 이 방문객에 의하면 습도 때문에 아직 춥다. 에드몬튼은 건조하기 때문에 비록 -10 °C 밖에 안 되는 여기 기온이 더 낫다. 나는 그때 또 깨달았다. 여기 기온은 아무리 추워도 건조하기 때문에 뼈 속까지 시릴 정도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여기는 10-15 °C라도 젊은이들은 반바지 반팔 소매의 여름차림으로 나다닐만큼 편안한 기후다. 역시 우리는 어떤 기후든 그대로 만족할 줄 모르는 묘한 존재다. 원래 인간(人間)이란 모든 일에 만족하기 힘든 동물이 아닐까?

1996년 에드몬튼으로 오기 전에 나는 위니펙(Winnipeg, Manitoba, Canada)에서 4년을 살았다. 그곳에 사는 친구들은 듣기 싫겠지만, 사실 그곳 겨울은 정말 심했다.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서 긴 겨울 6개월 동안 별로 이웃과 말도 못했다. 하지만 Winnipeg은 지금(2003년 5월) 섭씨 20 °C 중반의 아주 유쾌한 5월을 즐기고 있다.

겨울에 에드몬튼에는 틀림없이 눈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에드몬튼을 겨울의 천국(Winter Wonderland)이라고 부른다. 겨울운동(스키, 스케이트 등등)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곳처럼 좋은 도시는 없다. 하지만 5월 6일에 한겨울처럼 평평 쏟아지는 함박눈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나의 동료들은 Banff, Jasper 등지로 스키여행을 가서 겨울을 더 즐길 꿈에 부풀어 있는데 말이다. 느닷없이 15-20cm 나 쌓인 눈은 어찌나 질척이고 무거운지, 우리 뒤뜰의 소나무가 눈에 파묻혀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그 눈을 털어 주느라 근 30분간 감강대다가 힘에 지쳐 중단했는데 나는 이제 거의 다시 살아서 나에

게 감사의 송진 눈물을 온통 뿌리는 것 같다.

그래도 나에게는 눈이 비보다는 좋다. 눈과 함께 더불어 오는 추위는 옷만 잘 챙겨 입으면 되지만 비는 우산만으로도 어떤 땐 대책이 안된다. 내가 여행 중에 느닷없이 내리는 비를 피해서 우산(雨傘)을 사야 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한번은 서울에서. 밴쿠버는 갈 때마다. 또 토론토, 시애틀, 런던 등 가는 곳마다. 우산은 에드몬튼에서 별로 쓰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 가족은 뒤뜰에서 바베큐하기를 좋아한다. 눈이 오거나 말거나. 영하 20 °C가 될 때에도 건조한 추위라서 가능하다. 하지만 드물게 오는 비지만 우리는 비가오면 영락없이 집안으로 갇힐 수밖에



에 없다. 에드몬튼 여름은 무덥고 찌지는 않는다. 나는 별로 쓸 일은 없지만 만일을 위해서 얇은 옷을 항상 챙긴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무덥고 찌는 날씨보다는 낫다. 요즘래 뉴욕에 갔을 때 온도가 35-37 °C로 올라 서울날씨처럼 무척 찌고 더웠다. 학회(學會)가 열렸던 호텔은 냉방을 너무 심하게 해서 모두들 스웨터에, 스톱킹에, 잠바를 껴입고 있을 수밖에 없어 할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호텔 안팎으로 종종거리며 드나들면서 견뎌야만 했다. 안에서 열고 밖에선 꿇고...

나는 에드몬튼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다. 이곳에는 한국 사람들의 자주 드나든다. 하지만 나는 상식적인 말이지만, 방문객들에게 기후에 대해 그리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다시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저 기후에 맞춰 옷을 입으면 되니까. 기후란 식당의 식단(食單)처럼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닌지라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고 각자 제 할 일을 보는게 상책이 아닐까? 이 말은 5월 8일 내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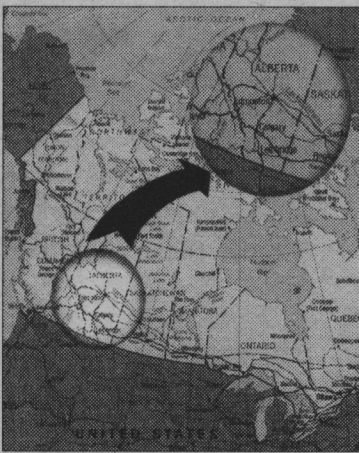


창밖에 내다보이는 새하얀 눈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타이르는 말이였다. 이처럼 나는 위에 말한 그 어느 도시에서 살게 되어도 개의치 않을 거다. 시간이 가면 어느 것에서나 그곳의 자연(自然)이 가진 좋은 점을 볼 수 있을테니 말이다. 그래서 지금 5월의 눈도 좋아하려고 노력한다. 이 눈은 몇 년째 계속된 가뭄에 허덕여온 알버타 농부(農夫)들에겐 더 없는 위안

(慰安)일테니 말이다. 이번 주말에는 나도 스키나 타러 갈까보다...

하지만 5월 9일, 온 눈은 사라지고 우리 동네는 순식간에 초록의 세상으로 돌아오고 반바지 차림으로 롤라스케이트를 즐기는 이들이 거리를 활보한다. 알버타의 하늘은 푸르고 넓고, 구름 한 점 없는 날이 많다.

사진 中 함박눈이 내리는 늦봄의 에드몬튼



# 건강하게 돌아오게

대이락전쟁에 출정한 작은사위에게

장기남(문리대 62년 입)

2003년 1월초 이락전쟁에 나가는 막내사위 (독일계 미국인 해병대 대위, 전차대대 지원중대장)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걱정하는(?) 막내딸을 격려차 San Diego에 간 우리 부부는 저 인기 놀란 반면 안심하였다. 장인, 장모로서는 전쟁터에 나가는 사위가 안스러워 하건만 오히려 당사자인 사위는 우리를 안심시키려 하였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걱정마세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영광스런 기회가 왔어요. 자랑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고 6월말에 조국에 돌아와 예정대로 10월 15일에 전역을 하겠습니다."

開戰을 앞두고 장병들의 轉役과 轉卹을 금지시킨 부시 대통령도, 이락전쟁이 젊은 병사들의 큰 희생없이 끝난 후에는, 예정대로 미국의 職業軍人제의 정상적인 충원 및 전역, 전출 제재로 환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戰場에 있는 나의 사위의 安全을 소망한다. 나는 軍服務가 국민모두의 의무인 韓國의 社會象에 생각이 가 맞는다. 우리의 조국에는 일부 젊은이들과 그 부모님들 가운데 그 얼마나 特權과 金權주의가 만연하고 있는가? 그들은 신성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얼마나 不法적이며 비상식적이고 낯뜨거운 일들을 서슴치 않고 있는가? 세계의 손잡는 經濟大國의 대열로 발돋움한 韓國의 국민들이 이제 그 경제대국에 걸맞는 훌륭한 一等國民의 자긍심을 갖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아닌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문화풍토가 우리의 조국에 되살아나기를 소망한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대 이락전쟁에 나간 兵士들은 아라비아의 砂漠에서 熱風과 모래 바람 속에서 매일 4시간도 못 잘 형편이며, 그나마 모래바닥에서 단잠을 잘 수 밖에 없단다. 고향에 부모와 처자를 두고 나와 死線으로 가는 병사들을 생각하며 나는 오늘도 사위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다.

"자랑스럽고 훌륭한 나의 사위야, 장인, 장모는 절대로 부질없는 근심, 걱정은 아니한다. 국가를 위해 자원봉사하여 出戰한 자네를 항상 그리네. 우리

는 미시간 湖邊 시카고에서 편히 잘 있네. 무척 힘들지만 자네를 애뜻하게 그리워하는 자네의 사랑스런 아내이자 이 장인의 딸도 잘 있어. 남편을 전선에 보낸 나의 딸에게, '괜찮느냐?' 하고 물어보면, '아빠 걱정마. 나 아주 잘 있어' 하며 매일 전화로 서로를 격려하며 즐거운 소식만 기다린다네."

나의 자랑스런 사위야, 재작년 여름, 온가족 같이 太平洋을 면한 바닷가에 가서 조개 잡던 때를 기억하는가? 그때 우리는 한 30분 동안 조개를 300여개를 주웠었지. 그때 그때들은 일인당 20개씩 8명(사돈내외, 두딸, 사위) 160개를 헤아린 후 나머지는 다시 바다 속으로 돌려보냈지. 그때 장인 장모는 우리의 사위들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누구도 우리가 조개를 몇 개 주워가는지 모르지만, 지켜야 할 法은 지킨다는 그대들의 실천적 준법정신에 나 자신은 그때 얼굴이 붉어졌음을 이제 고백하네. 이 시간에도 자랑스럽고 귀한 우리 사위가 곁을 떠나 砲煙이 자욱한 死線에 있으니 더욱 더 그립다네. 곧 돌아와 훌륭한 市民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며 사회의 큰 기둥이 되리라고 믿네.

그대들과 같이 훌륭하고 건전한 젊은 이들이 있기에 세계 속의 美國은 더욱 強하고, 건전한 국가로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자부심을 나는 갖고 있네. 건강하게 所任을 다하고 돌아오는 그날, 같이 거하게 술 한잔 할 것을 약속하마. 그리고 자네에게 정성스럽게 손수 과자를 만들어 보낸 친구, 격려편지를 보내는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한 친구들과 또 자네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많은 知人들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할테니 속히 몸 건강히 돌아오게나.

장인 장기남



사담후세인을 전복시키는 데 앞장선 전차부대 미해병 용사들



# SARS 퍼트린 後進중국 醫療현실

金日勳 (의대 57년 졸)

중국정부는 人命구제보다 國家 체면을 더 중요시하며 국제사회에 SARS 통계를 축소보도 해왔다. 그러다가 SARS 사태수습이 불가능해지고 WHO와 세계여론의 비난이 커지자, 공산당정부는 4월 20일 허위보도를 시인하고 책임자 문책만으로 실책을 보완하려 하고 있다. 정부대책이 없는 가운데, 국민들은 "中醫"란 풀뿌리 전통의학에 매달려 살아남으려고 아우성이다. SARS위기를 만나 폭로된 의료後進國 중국의 황당무계한 의료현장을 살펴본다.

## 1) WHO는 중국의료不信

작년 11월 괴질폐염이 광둥성에 발생하여 홍콩을 거쳐 세계도처에 전파되어, 3,200명 이상이 감염되고 159명이 사망했다(4월 16일 현재). 중국은 병 발생 후 몇 개월 동안 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병이 세계에 퍼지자 뒤늦게 WHO조사를 허용했다.

WHO에서는 현재 SARS 퇴치를 위해 의료후진국 중국을 도와 주고 있으나, 전염병관리의 기본 지식마저 없고 사실공개를 기피하며 비협조적인 중국을 상대하노라 애를 먹고 있다. 중국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 통계를 속일뿐만 아니라, 공산당식 비밀주의유지에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人命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서방국가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정부는 환자관리보다 자기네 약점이 폭로될까보다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한다.

美國 CDC(Center for Disease Control)와 日本의 연구를 토대로 WHO는 4월 16일 괴질의 病院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인됐으며, 따라서 백신개발가능성도 시사했다.

4월초 북경시내 SARS 발생은 22件이라고 정부서 발표했으나, WHO 전문가들은 실제 숫자는 몇 백 명은 되리라 추측하고 있다. 일부병원엔 의심나는 환자로 가득차 있고 몇 천명이나 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나, 당국에서 격리수용만 해놓고서 이들 환자를 조사해본 흔적도 없다고 한다.

WHO 전문가 말은 중국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여행이 불안하다는 것이다.

북경시내에서 SARS로 인한 사망자가 이미 143명이나 된다는 소문에 대해 4월 13일자 북경위생국장은 이를 부정하고 루머출처조사를 경찰에 의뢰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불미한 말을 퍼트리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고 발표했다. 통

계와 검증을 외면하는 의료가 중의라는 것을 WHO 전문가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월 중순 중국정부 의료책임자는 "군병원에 입원한 SARS 환자도 통계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인즉 군인환자는 별도로 비밀리스트에 포함되어있어, 허위 보고임이 탄로 났다. 중국의 SARS를 추적한 WHO전문가들은 황당무계하다할 중국보건의료에 실망하면서도 중국정부의 협조를 기대하나, 공산국가의 관료사상과 중의의 비과학성 때문에 WHO의 노력은 가는 곳마다 지연되고 방해받고 있다.

SARS 전염이 확대되고 사태의 위중함을 알고서야 중국정부서 WHO의 도움을 환영한다고 나섰는데, WHO가 보는 중국보건의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도 없이 후진적인 제도(중의)를 가지고 13억 인구를 커버하려는 무모한 짓이라고 했다. 그들의 의료기구와 시설도 부족하고 엉망진창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그들은 국민의 생명보호보다 국가체면유지가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WHO에서는 정부가 국민과의 대화를 넓힘으로서 국민을 도우라고 충고했어도, 국영 미디어가 지배하는 언론은 SARS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다.

중국전통의학의 과대망상과 만용으로 선진의료국가에 동참하려던 의료후진국 중국의 중의는 이번 SARS라는 비상사태를 만난 결과 그들의 허점이 세계에 공개되고, 중의가 아프리카후진국과 다를 바 없는 실상을 세계만방에 폭로하게되었다.

4월 21일자 주간타임스보도는 "중국 SARS 위기 정체폭로(Unmasking a Crisis)"라는 주제에다 "중국정부관리는 인명구제보다 체면유지를 시도한다(more intent on saving face than saving lives)"는 부제를 달아 중의와 공산당식 잘못된 SARS 대책을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중국 정부는 2008년도 올림픽과 2010년도 상해 만국박람회개최를 유치하고 나서, 세계를 향해 중국의 좋은 이미지만 과시하려 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제적 관심사인 SARS에 대해 최소한 축소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네 외국인엔 인명을 중요시하지만, 인구가 넘치는 우리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안정이다. 그래서 사망자수를 비밀로 하는 것도 사회안정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고 어떤 중국외사가 말했다는 정도다. 3월초 북경 군병원에서 첫 사망환자가 났을 때, 정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으나 여기서 병 예방과 퇴치를 위한 시달은 전혀 없었고, 보건책임자는 의사들에게 "사회안정을 위해서 병 사망자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시켰다.

SARS에 대한 정보봉쇄결과 치료법이 보급되지 않아 환자사망이 늘게되고, 또한 의사 간호원 등 의료요원환자가 늘고있다고도 했다. 즉 북경의 어떤 병원에서 격리 수용환자의 절반이 의료원이라고 한다.

## 2) 중국정부의 統計造作 시인

4월 20일 중국정부는 SARS에 대한 북경시의 허위축소보도를 시인하는 놀라운 발표를 했다. 실제 북경내 SARS환자 수는 종전의 10배나 되는 346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18명으로 늘어났으며, 여기에다 의심증상환자가 402명이나 된다고 했다. 발표전후 의심환자 수는 610명으로 증가하였고, WHO전문가는 이중 대부분이 진짜 SARS라 말해왔다.

이처럼 사실에 가까운 통계가 밝혀지고 시간마다 숫자가 추가됨으로써 4월 21일 저녁 신화사보도에 의하면, 북경시내 환자 수 588명에다 사망자 28명 그리고 중국 전역(홍콩 제외)의 SARS 환자 2,158명 및 의심환자 918명과 사망자 9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발표가 있기 몇 일전만 해도 WHO팀이 북경의 중일우호병원에 조사방문 했을 때, 그곳 직원(의사 간호원 등)환자 31명을 급속히 구급차에 옮겨 도피시켜서 중일 시내를 돌다가 조사팀이 병원을 떠난 후에야 병실로 돌아갔다. 이 사기극을 탐지한 WHO 책임자는 중국당국에 대해서 사실대로 공개해서 신용을 회복해야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지금까지 중국정부는 SARS 은폐작업과 축소보도를 조작해왔으나, 병의 확산과 국제적 비난으로 사태수습이 불가능해지자 부득불 진실을 말하게된 셈이다.

허위보도가 정부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실무책임자인 북경시장과 위생장관에게 전가시켜, 그들을 희생양으로 해임시켰으니 또 하나의 정부체면유지 방책이라 하겠다. 그리고 공산당식 일벌백계주의의 상투수법이기도 했다. 신임 보건위생장관(전 차관) 말이 "위생부는 여태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으며, 병에 관한 교육과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을 시달하지 못했다"고 자인했다. 또한 "고의로 통계를 조작은폐한

[편집자주] 生命工學으로 人間이 모든 疾病을 극복할 날이 가까운 듯 하나, 역사상 시대에 따라 새로운 怪疾이 등장해왔다. 이번 미국[米國]이 벌인 戰爭 탓인지 새로운 怪疾인 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의 축약어임)가 전 세계인의 새로운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한 과학적인 치료방안은 모호한 듯하다. 문필과 논고란은 이 괴질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김일훈과 오명돈 동문의 질병정치사회학에 관한 글을 여기에 글을 소개한다. 동일한 중국인이 主流을 이루는 나라인데도, 국가체제의 차이(중국본토는 중국식 社會主義 체제이며 싱가포르의 권위주의적 民主體制)과 의료제도의 차이(본토는 漢方과 洋醫를 합친 "中醫"이며 싱가포르는 現代의학)에 따라서 양 국가의 SARS 대책과 그에 따른 국민이 입는 피해는 하늘과 땅 차이임을 보여 주고 있다. 2003년 5월 10일 현재 sars에 의한 세계전체의 사망자는 526명이며, 중국인의 사망자는 235명이며, 전세계 25세계국에서 1,700여명이 이 괴질로 공포 속에 있다. 미국 정부의 웹사이트 [www.cdc.gov/ncidod/sars/faq.htm]나 Time지 (2003. 5. 5일자)등을 참조하시면 이 괴질의 대한 速報를 접하실 수 있음.

지방을 아직 발견치 못했다"고 말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조작행위가 중앙지시였음을 암시했으며, 앞으로 허위보고를 하는 지방은 엄벌에 처한다고 발표했다.

5월초 노동절 장기휴일여행을 종전에는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 권장해왔었는데, 이번에는 병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로 휴일을 폐지시켰다. 비행장과 기차역 등 교통요소에 검역소설치 계획도 발표했다. 이렇듯 중국정부는 뒤늦게나마 WHO 충고를 받아들였다.

## 3) 예방치료를 풀뿌리 漢方藥으로!

괴질이 확산되는 동안 정부가 공포에 질린 국민을 상대로 한 예방 등 병에 대한 교육은 전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길잡이 잃은 선량한 국민들은 제 나름의 풀뿌리의 학신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무지한 지도자와 미개국료정책이 국민으로 하여금 전통의학으로 뒷걸음치게 하는 것이다.

북경시내 한약방은 주야로 장사진을 이루게 되고, 괴질에 대항하기 위해 심신 즉 육체와 정신건강을 도와준다는 풀뿌리 우겐(wu-ge)은 풀절되어 가짜가 나돌게 되었다.

국민에게 손을 자주 씻어야한다는 주의를 해본 적이 없는 중국정부는, 국영미디어인 신문을 통해 한의학대가들의 치료비방을 게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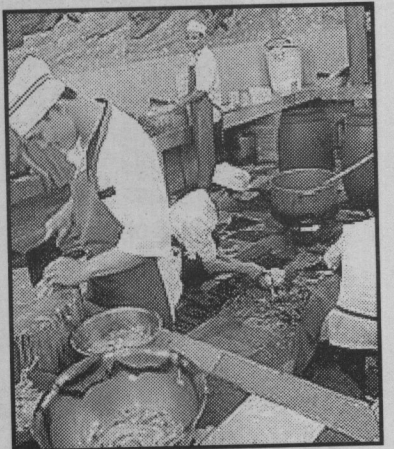
예를 들어 북경 2대 신문에서는 8가지 마른 약초를 25분간 끓여서 만든 탄약을 1일 2번 복용하면, 몸의 기(氣)를 조절함으로써 괴질예방이 가능하다고 했다. 여기서 기(氣)는 중의의 핵심으로 신체에너지의 평형을 다스린다고 한다.

국영언론은 이와 같이 한방의 기사만 대서특필하고 한방치료법과 한방의학의 문답기사로 지면을 채워왔고, 신임장관의 발표 후에도 정부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 아직 내용 발표가 없다. 이러한 한방치료일색의 신문기사

를 WHO의 미국외사는 반대해왔으나, 광둥 의학연구소소장이자라는 자는 오히려 신문기사 편을 들면서 "아시다시피 아직도 SARS를 고치는 약이 없는 현실에서, 중국 의학만이 병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다. SARS는 독감처럼 고열로 시작하기 때문에, 열을 다스리는 '중의'로 신체내의 독을 제거할 수 있고, 이것으로 병이 치료된다"고 말했다. 중국과학자대표의 식견이 무당과 다름없으니, WHO의사와 대화가 통할 이가 만무하다.

정부언론에 의한 중의치료장려 결과 한약국은 대성황이고, 천안문 근처의 T한약국에는 3시간이나 기다리는 장사열이 새벽부터 계속되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원시요법에 의지하여 방심한 나머지, 괴질은 확산해가기만 했다.

사실인즉 정부에서 자주 사용하는 '엄벌'의 대상은 이러한 흑세무민(惑世誑民)하는 자들이어야 하는데, 후진국중국엔 정부서 경영하는 국가미디어에서 전통의학을 보급하고 있다. 암흑중세기사회풍경이 21세기에 그것도 원자탄을 생산한다는 땅에서 횡행되고 있으니, 언어도단이다. 그리고 보면 등소평의 중국4대 현대화정책 가운데 의료현대화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주방에서 사람과 동물의 접촉에서 원인이 된다고 생각되는 신종괴질



# SARS,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 싱가포르 총리가 국민에게 보낸 편지를 읽고

吳明燦(의대 83년 졸, 모교 의대 교수)

최근에 중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입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열이나 기침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경역을 통과하기 위해서 해열제나 기침 가라앉히는 약을 먹고 비행기를 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입국할 때는 잠복기에 있다가 나중에 발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족에게 이 병이 옮는 것을 피하려고 여관에 투숙하는 경

우도 있으며, 병원에 가더라도 SARS로 진단되는 것이 두려워서 여행 사실을 숨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SARS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감기나 독감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가겠지만, 바이러스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나 병약한 몸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

파되면 치명적인 폐렴으로 진행합니다. 만일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발병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 위험성이 있는 행동(열, 기침 등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중 교통수단 학교, 회사, 교회, 백화점 등에 가는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 줄 알면서도 주변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만일에 공공장

소에서 SARS에 걸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발생하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 나라를 SARS 위험국가로 분류하고, 중국이나 홍콩과 마찬가지로 여행하기 위험한 나라 리스트에 올립니다. 이렇게 되는 날에는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사실 어느나라 정부도 호흡기로 전파되는 전염병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SARS 환자와 함께 사는 가족이나 SARS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들도 자칫 잘못하면 SARS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SARS바이러스

감염자가 무책임한 행동으로 사회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으로 도매 시장에 SARS가 확산될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사태에 즈음해서 싱가포르 고촉동 총리가 국민들에게 보낸 공개 서한을 아래에 첨부하니 한번 읽어보십시오. SARS 위험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비행기 내에서 입국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기내 방송으로 한번씩 꼭 들려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 친애하는 싱가포르 국민 여러분

<첨 부> 싱가포르 국무총리의 국민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지난 토요일, 저는 SARS와의 전쟁에서 국민 각자가 지켜야 할 개인의 의무를 다 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모든 규칙과 지침을 국민 여러분이 제대로 지키는 경우에만 우리는 SARS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 각자가 자기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지켜야만 SARS를 둘러싼 방어벽이 구멍이 뚫리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싱가포르 국민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보건 당국이 지시한 권고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SARS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물론, 우리 사회에도 위협을 안겨줍니다.

최근 Pasir Panjang 도매센터에서 발생한 감염 사례는 이런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도매 센터에서 일하는 72세 할아버지의 가족 8명은 열이 나자 동네 병원에 찾아가셨습니다. 동네 의사는 이들 가족이 SARS에 걸린 것이 의심된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앵블란스를 보내주라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앵블란스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 의사는 문제의 가족들에

게 마스크를 주면서 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료실 밖에서 의자를 갖다 주면서 앵블란스가 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 그 의사는 가족들이 지시를 잘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와 보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가족들은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옆에 있는 식당가와 한약 상점을 기웃거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지시한 바를 따르지 않으므로써 그 가족은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Pasir Panjang 도매센터에서 벌어진 또 다른 감염 사례도 무책임한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도매 센터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며칠 전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동네 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그 다음에는 종합병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의원 2 곳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Changi 종합병원에 가서야 Tan Tock Seung 병원(싱가포르의 사스지정병원임)으로 전원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의료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여러 사람에게 SARS에 걸릴 위험성을 안겨 준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병이 나는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진료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아프면 다시 처음에 진찰을 받은 의사에게 찾아가십시오. 그 의

사는 당신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적절한 처방을 해 줄 것입니다. 만일에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의사에게 가거나, 병원을 옮기면 새로운 의사는 당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따라서 당신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옮겨 다니는 동안에 당신은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증상과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말해 주어야만 의사가 당신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일에 당신이 열, 기침, 호흡곤란, 근육통과 같은 SARS 증세가 나타나고 당신이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한다면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서 앵블란스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SARS 지정병원인 Tan Tock Seng 병원으로 와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초기에 병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으면 빨리 회복이 됩니다. SARS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어 퇴원한 사람이 오늘 현재 110명이나 됩니다.

사스 지정병원인 Tan Tock Seng 병원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SARS에 걸렸다고 생각하면서도 Tan Tock Seng병원으로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Tang

Tock Seng병원에서 가서 SARS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SARS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 병원은 철저하게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렇게 엄격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 3월 31일 이후로 이 병원에서는 SARS에 걸린 사람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택 격리 명령을 받은 일부 국민들의 행동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당국의 지시에 협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보건 당국에서 전화를 걸어오면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건 당국에게 자신들을 귀찮게 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명은 자택격리명령을 위반하였습니다.

자택격리는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자택 격리를 당하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그 가족들도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건 당국에서 전화를 하는 것은 병세를 묻고 필요하면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자택격리를 더 엄격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자택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으므로써 SARS가 조기에 발견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까지 감염되는 사태를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SARS가 지역 사회에 퍼져 나가고 난 다음에는 SARS를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병을 퇴치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택격리 조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보건 당국의 전화에 응답을 하지 않으면 CISCO (경비요원)이 즉각 달려가서 전자 팔찌를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4월 24일에 열리는 국회에 전염병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입니다. 이 개정법에는 자택 격리명령에 불복한 사람에게 법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자택격리명령을 어긴 사람은 감옥에 가둘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SARS사태가 급박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법안을 긴급하게 처리하여 4월 24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조치들이 너무 엄격하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필요한 조치입니다. 우리가 전염병 확산의 연결고리를 끊는데 있어서 관대한 처분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싱가포르 국민을 SARS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철저한 방역망을 잠식하고 말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 SARS를 퇴치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협조해야 하며,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전에 겪은 재난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노력한다면 SARS를 퇴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촉동 총리 (2003. 4. 23. 싱가포르 총리가 국민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판별법

2003년 4월 24일 대한의사협회자료에서 발췌

◎ 다음의 경우에 사스로 의심할 수 있으며 인근 보건소에 즉시 연락하며, 환자는 격리수용하며 세척과 마스크 사용에 각별한 관

심을 가질 것  
1. 의심되는 환자(suspect case)  
○ 증상 발생 10일 이내에 사스 감염위험지역(중국 본토,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캐나다 토론토)을 여행(\*사스감염위험

지역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 탄 경우도 여행경력에 포함됨) 한 적이 있으면서 다음 증상을 보이는 경우  
○ 증상 발생 10일 이내에 사스 환자와 밀접한 접촉한 적이 있는 경우

- 환자와 같이 거주한 사람, 환자를 돌본 간병인, 보건의료인, 환자의 체액, 호흡기 분비물에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으로서 다음 증상을 보이는 경우
- ① 발열(38도 이상)
- ② 호흡기 증상이나 증후(기침, 빈호흡, 호흡곤란, 저산소증) 중 하나 이상
- 2. 추정환자(probable case)  
○ 의심되는 환자(Suspect

- ase) 이면서
- ① 흉부 방사선소견상 폐렴 소견이 있거나
- ② 호흡곤란증후군(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소견을 보이는 경우
- 부검후 조직검사상 원인불명의 호흡곤란증후군을 보이면서 설명되지 않는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환자



### 三道峰詩 講解

徐承煥(치대 61년 졸, 제 10대 시카고 지역동창회장 역임)

◆三峰은 鄭道傳 (1337, 고려 충숙왕 복위 6년-1398, 이태조 7년)의 호이다. 이 분은 李朝의 開國 功臣이며 고려말 조선조 초의 정치가이며, 문무를 겸한 학자였다. 본관은 奉化 자는 宗之였다. 그가 三角에 齋齋를 짓고 그 호를 自稱하여 三峰이라 함. 李朝 創業時에 이 性理學 大家의 죽음으로 李朝는 汚點을 犯하였다. 그는 고려말 이성계를 도와 이조개국 일등공신이었으며 1394년 정월에 判義興三軍府事로서 경상, 전라, 양광삼도 도총제사가 되어 재정 및 지방병권을 장악한 실력자가 되었다. 그는 朝鮮經國典, 高麗國史 37권을 편찬하였고, 1396년에 표정문(表箋文)문제로 명나라가 내정간섭을 시도하자 요동수복운동에 주력하여 군량미확보, 陣法훈련, 私兵력확로 중앙권력의

강화를 시도하였고, 王중심으로부터 宰相중심의 정치를 펴고자하였다. 그는 또한 학자지남도(學者指南圖), 심문천답(心問天答), 심기리, 불씨잡변등의 철학서를 차례로 저술하여 고려이래 귀족사회의 정신적 지주였던 불교의 사회적 폐단과 철학적 비합리성을 비판, 공격하고, 性理學만이 實學이요, 正학임을 이론적으로 정립하여 儒敎立國의 사상적 기초를 다지고자 하였다. 또한, 그는 漢唐의 공리적사상이나 부국강병에 유용한 제도, 문물을 포용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하층민과 무인들의 지위안정, 無田農民들의 구제 등에 주력하고 이의 보조수단으로서 基層信仰으로 굳어진 불교, 도교, 참살(禪說)등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필요를 인정하였다. 삼봉집(三峰集)은 그의 저술을 모은것



으로서 1397년(태조 6년)에 始刊되고, 1487년(성종 18)에 중간되었으며, 1791년(정조 15)에 누락된 것을 補수하여 재간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전해지고 있다[鄭道傳에 관한 자세한 것은 서울대 한영우 교수의 정도전 사상연구 1973년을 참고 하실 수 있다].

여기에서는 三道峰詩 가운데서 一部를 紹介한다. 人類文明의 수레바퀴의 歷史의 한 事件 卽日出 日中 日沒과 같이, 또 다시 말해서, 六千歲龍 七日来復 反復 基道 天行也. 이는 다른말로하면 儒佛仙의 三道の 돌아가는 三角

[편집자주: 필자 徐承煥은 花潭의 후손으로 일찍부터 東洋의 고전인 易經과 西洋文明 요체의 하나인 Judaeo-Christianity의 聖經을 오랫동안 穿鑿해온 바를 바탕으로 韓國傳來의 豫言書인 鄭鑑錄의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현대문명과 문화의 興亡盛衰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의 註解에 몰두하여 이제 심혈을 기울여 온 勞作의 출판을 준비중인 바 편집자의 요청에 의하여 여기에 민간에 전래해 오는 정감록의 일부인 三峰 鄭道傳의 三道峰詩의 일부의 講解를 통하여 對이러락戰爭이후에도 北韓의 核무기 彈導砲의 위협 속에 戰運이 감도는 世界와 韓半島의 時運을 조망하고 있다. 天機의 해설을 신중히 해온 先知者들의 傳統에 따라 여기에 註解한 原典의 자세한 해설은 探究者와 그 門徒의 직접 對話방식으로 留保하였다. 참고문헌으로는 解題鄭鑑錄(申一澈, 韓國의 民俗 宗教思想, 삼성출판사, 1981)과 鄭鑑錄集成(安春根편, 아세아문화사, 1981)을 들 수 있다. 筆者 연락처 전화 847-673-4663]

地이다. 三道峰詩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를 十字架에 處刑以後 이슬라엘과 로마의 멸망에 이른 역사를 그린 것과 같이 동방과 조선의 歷史를 내다보는 것과 같다.

覆轍在前 後車宜戒[넘어진 수레 자국이 앞에 있음에 뒤 수레는 이로서 마땅히 경계를 삼아야 한다]의 말씀이 등골을 싸늘하게 하는 구나!! 이 글이 鄭鑑錄의 이름한 그 본보기가 아닌가 싶다. 【詩經】墓門有棘 斧以斯之 夫也不良 國人知之 知之不己 誰昔然也, 墓門有鳩 有鳩聚之 夫也不良 歌以尋之

「予不顧 顛倒思予(墓門에 가시 나무가 있네. 누가 죽이었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가 그 도끼로 죽었지. 놈들은 나쁘지. 나라 사람이 다 알지. 알면서도 그만두지 않지. 누구도 죽었사람도 그러했으니가. 墓門에 올빼미가 배꽃 피어있는 속에 새벽부터 모여 앉아 있네. 놈들은 나쁘지. 노랫말에도 써 있으니가. 【내게 묻고 권고(眷顧)를 받지 않더니 넘어지고 자빠져서야 나를 찾는구나】 【올빼미야 내 집 병아리 잡아가지 마라】

RE道傳13. 萬事一千八十年 風風雨雨落梅筵◆高麗의 建國年 西紀920年+1080=2000◆墓門 有梅 有鳩聚之 夫也不良 歌以尋之 尋予不顧 顛倒思予 2000년이면 梅實이 대(竹) 자리에 風雨(봄의 人生秋收)에 떨어지겠음=陰의 運勢가 一千年이 지나면 陽의 運勢가 오겠음◆

RE道傳14. 鴻飛信息先南海 鵬搏精神後北天◆文明의 垂拱平章이 南海 卽 끝에 이르면 遊鵬獨運 凌摩絳霄(文明의 末世에는 사탄이 저녁하늘(日暮道遠=文明의 末世=人類의 墮落)을 앞 보고 주무른다◆聖道難善 過千祠而無靈◆◆鳥=龍, ◆◆遊鵬獨運이면 요나書가 됨◆◆日出月入 月出日入 日月盈仄◆◆文明이 六千年이 되면 地球는 더 이상 쓸수 없게 汚染된다 그래서 地球는 文明을 땅가 뜨리고 다시 堯天에서 始作하여야 한다◆

RE道傳15. 白首無情徒已矣 蒼生何事轉淒然◆東方에 새벽 하늘에 돌아오는 浮生달 다시 말해서 去年妄取東隣物 今日還歸北舍家 卽 墓門有梅 有鳩聚之 夫也不良 歌以尋之 尋予不顧 顛倒思予(人間들이 예수를 찾아 勸告를 받지 않더니 자빠지고 넘어져서야 예수를 찾는다)를 말하는 것이며 二十八君이 다스릴 나라 李朝의 百姓들이 옛날에도 그랬듯이 다시 무슨 일로 淒涼한 身世가 되야 하다◆

RE道傳16. 欲知乙乙弓弓處 只在金鷄木兔邊◆地上的 乙乙 弓弓處를 알고 싶으면 但只 金鷄 木兔邊에 存在한다 ◆◆ 땅의 乙乙處=西方,美國, 弓弓處=東方,朝鮮, 하늘의 乙乙(새(西)소리)=晝=天花, 弓弓(뿔개소리)=夜=月地=武弓+土弓, ◆◆(天弓=무지개,天 乙=太陽)弓乙=九之加一十勝◆

[直譯] (아래의 번역은 편집자가 天機를 漏泄하고자 하는 蠻勇으로 한 서투른 번역이므로 옆의 필자의 주석을 참조하시고,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자에게 顧問하시기 바람)

<道傳13> 세상만사가 1080년 남았구나. 바람이 계속 불고 비가 계속 내리면 매화꽃은 대자리에 떨어진다. <14> 큰 백조가 먼저 믿음의 소식을 남해로 날아오고 봉새가 정신을 일깨운 후에 북쪽 하늘로 날아간다. <15> 흰머리는 무정한 도배들이다. 창생은 어떻게 처량하게 되었고, <16> 乙乙弓弓의 곳을 알고자 하면 단지 금비둘기 올빼미쪽에 있다.

<道傳 17> 3가도회지 남쪽을 걱정한다. 이는 엄연히 대협객이 거주하는 표시이므로 <18> 노래 그치고 비파가 멈추니 북두드리는 차레가 돌아왔다. 술이 깨고 바둑을 파하고서 책을 본다. <19> 달이 떠있는 술밭에 들어온 학이 꿈을 깨고 구름과 물이 종적을 감출 때에 고기로 변한다.

RE道傳17. 三街都會市南廬 誰識儼然大俠居◆街=十字路, 三韓의 도회지 漢陽以南의 百姓을 念慮한다 太極大門旗의 旗 卽 孔子의 가르침 (孔岩爲面則稍可延詐矣=孔子의 가르침을 지키고 살아가면 次且 나라를 繼續해서 歷史를 이어 갈수있다)으로 扶木柿木되 있도록 生覺하고 大俠客이 사는 東洋禮義之國 사람이 사는 곳을 누가 알았느냐?◆

RE道傳18. 歌歇琴停還擊筑 酒醒棋罷又看書◆北虎와 南方의 倭가 번갈아 攻擊하고 蘇聯과 美國이 바둑판 땅 뺏기를 지웠다 썼다 하면서◆

RE道傳19. 月松入夢精神鶴 雲水潛踪變化魚◆아침이 찾아오게 될 적에 새벽달이 먼저 朝鮮에 찾아온다 그리고 太陽이 鶴처럼 떠 오르는데 太陽은 구름 속에 달같은 바다 물에 들락날락 할 적에 물고기가 바다위로 날 뛰면 當場 채 가시게 마련인데 朝鮮(아침 生鮮)은 道를 닦는 變化를 일으키라◆◆北方=義理, 天道,倫理등을 要求하며, 南方=正直, 秩序, 法秩序, 倫理보다 社會正義(公義)를 要求함◆◆鏡隱柳借三篙翠, 隔岸花分一脈香 卽 다시 말해서 해와 달이 東西로 넘나들 동안에 朝鮮에 南蠻과 北虎의 번갈아 侵略하면 三韓의 百姓은 自然的으로 北의 共產黨이 내려 오면 地主들을 죽이고 땅이 정마에 모래 쓸려 내려 가듯 사라지고(黨來田地水推砂) 南方이 侵略하면 無義로 일군 錢糧이 窮는물의 눈발 녹듯하게 마련인데 (無義錢財湯撥雪) 이런 일이 每 五十年마다 일어난다 보면 貧者生 富者死의 現象이 일어나고 廉和順性之士나 福生慈惠存이 發生하게 되었으며 北方이 쳐들어오면 儒家는 禍를

### 母校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함춘의학대상 수상소감

金允範

(의대 58년졸, 시카고 의대교수)

부족한 저에게 함춘대상(학술 연구부문)을 주신다니 뜻밖이며

무한한 영광이며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국하여 모교(母校)를 위해 헌신 못한 것이 끝내 저의 미련으로 남게 되어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를 키워준 모교와 동창회는 이제 또한 넘치는 배려를 해 주시니 다만 감사할 따름입니다.

특히, 저를 학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신 은사님 전종휘 교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많은 은사님

들과 선후배 동창들께도 그리고 함께 연구에 공헌한 제자와 동료들에게도 심심한 감사들 드립니다.

오랜 세월동안 개발해 온 Gnotobiotic Miniature Swine Model을 우리 母校에 드러 앞으로 이종이식에 대성하시어 많은 환자에게 큰 도움되는 날을 기대하며 기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면역학 발전을 위해서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母校 후배 2명에게

吳仁錫 등문 특지장학금 수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장 임광수)는 2003년 2월 19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3학년도 1학기 장학금 및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143명에게 277,835,000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하였는데, 그중에는 재미총동창회

의 吳仁錫(62년 법대졸, 재미총동창회 명예회장)등문이 출연한 「오인석 특지장학금」 수여식도 있었다. 이날 수여식에서 모교 재학생 김아름(인문계 과학군 3년)양, 김진휘(경제학부 3년)군 등 2명이 등록금 전액 3백 1만 6천원을 장학금으로 받았다. (자료원 : 서울대동창회보 2003. 3. 15일자 22면과 23면 초록)



<서승환 삼도봉시 강해 10면에서 계속>

謀免 하겠고 僧人血成江을 이룬다 南方 및 西方勢力이 오면 斥儒尙佛이 일어난다 그런 意味에서 秦始皇帝는 天下統一에 必須인 進歩 革新政策을 使用하였으며 政治는 北方思考方式이고 文明 西方의 社會正義(無識한 大衆을 意識)를 좇았다 할 수 있다 하늘은 三人行損一人의 原則에 依하여 西學大 熾 天運時代에는 不念儒書하고 非命橫死를 免한다 그리고 儒書를 無文道通할 수 있게 한 西洋의 基督教化하는 것이 得道하도록 하는 것이다 順天者生 逆天者 亡한다 함은 陰의 運勢가 一千年 陽의 運勢가 一千年으로 天運이 陽이나 陰이나 에 따라 罪없는 蘇父許由의 죽음이나 百五人事件이나 竹林七十二賢의 주검이나 모두 여기에 걸린 것이다 鄭夢柱, 鄭道저의 죽음이 이에 속한다 ◆

RE道傳20. 莫道世間工業晚 陳平去後一衝餘◆聖道雖善 過千祠而無靈 時代는 末世로 들어오면 卽 다시 말해서 西曆1850年 以後에는 西勢東漸하여 考證學에서 實學에 時代로 들어서면서 哲學 科學 工業 文明의 時代로 치닫게 되는데 이 時代를 基點으로 以後는 말 달리는 速度에서 自動車 飛行機 아니 超音速의 速度의 變化를 일으켜서 倫理가 社會正義에 밀려 人類는 急速하게 快樂 主義로 變하여 墮落하게 되며 朝鮮에 滿洲의 陳平이 侵略하여 지나가 면 日本의 一衝이 侵略 兵같이 가면서 하게 되서 ◆

RE道傳21. 生涯暫托一茅廬 他日經綸宜鼎居◆나의 生涯가 暫時 暫間 草家 三間에 依支하여 살다가 日月無光五九論이

지나 新天日月滿의 새로운 文明이 始作되게 되면 그때나 陰의 運勢時代一千年 (先天時代=仙儒佛, 後天時代=儒佛仙)의 敎訓을 술(鼎=釜)을 걸고 다시 한바퀴 六千歲龍 七日來復 反復其道 天行也를 돌려나 보세 ◆ 陰의 千年時代 卽 A.D,1000 A.D,2000年 이 時代가 지나면 陽의 一千年時代가 오며 다시 陰陽의 堯舜時代(二千年間)를 거쳐 여름의 陰의 時代가 기다리고 그 다음은 가을의 陽의 時代 千年이 順序를 맞게된 그리고 나면 겨울의 陰의 時代를 秋收期라 말함 이런 시간을 일컬어 六千歲龍 七日來復 反復其道 天行也라 함 ◆

RE道傳22. 不遇悲懷歌劍筑 無爲智略讀兵書◆世上에 戰爭이 없다면 兵書를 읽어 戰略의 智慧가 必要없음이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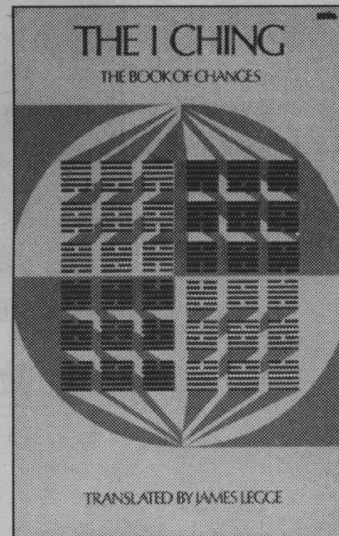
RE道傳23. 嗟吾未展藏椒櫞 憐爾難逃覆轍魚◆아름사 내가 椒櫞嶺고개에 얽힌 숨은 戰爭이 야기(아리랑고개)를 피놓고 알지 않았구나 너희들이 불쌍하다 물(水) 매 말라가는 수레바퀴 지나간 자리에 떨어진 물고기 같은 너희들이여! ◆

RE道傳24. 上甲初醒長夜夢 江山八城盛衰餘◆上帝께서 甯生달과 셋별이 긴 밤을 깨우니 八道江山이 興亡盛衰가 오는구나 다시 말하면 西洋의 가을 秋收를 마칠 무렵 東洋은 飽暖思淫慾으로 北虎와 鴨장사 할머니의 蘇萊山과 老姑山間에서 協商에 失敗하여 南侵과 北侵으로 盛衰가 每 五十年마다 일어나고 있으니 ◆

RE道傳25. 西有其東北有西 險岐坦道世難齊◆太陽은 西便에서 지고 東便에서 떠오르게 되었고 저 달은 西便에서 나타나서 北便으로 向하여 사라져서 東便으로 移動

면집자의 直譯

<道傳 20> 도가 없는 세상에 공업이 성한다. 진평이가 간 후에 일평이가 남는구나. <21> 생애가 잠깐 초가에 의탁하려고 생각하였는데 다음날 경륜은 술을 걸고 살게 한다. <22> 슬픔을 돌아보고 총검의 노래를 안 만나면 지략과 병서를 읽음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23> 아랴사 내가 아직 추풍령을 말 타고 달린 역사를 알리지 않았구나. 너희들이 가련하다. 수레자국에 고인 물고기의 운명처럼 도망하기 어렵구나. <24> 북방이 먼저 긴 밤잠을 깨우면 강산 팔도가 성하고 망하는구나. <25> 서쪽은 동쪽이 있고 북쪽은 서쪽이 있어 험한 갈림길이 아침의 도가 세상을 구하기가 어렵구나. <26> 만약 물이 없으면 맑고 깊으면 검다. 높지 않으면 하늘이 오하려 내려다본다. <27> 스스로 물고기와 용은 호수와 바다에 얽드리고 황하와 페수의 봉화는 대나무와 오동나무에서 산다. <28> 집안 안의 형편이 서로 반반씩임을 누가 알랴. 작은 산 아래에는 계곡도 작구나. <29> 대중들이 모두 고독한 옛적을 토로함을 함축하지만 말이 연하여 발두렁처럼 길게 연하여 달려있구나.



하여 긴밤을 깨우고 東便으로 돌아온다 繞隄拂借三篙翠 隔岸花分一脈香 인테 東西를 넘나드는 동안에 險한 地理의 갈림길과 變함없는 生活 慣習과 偶像崇拜의 各樣 模樣을 가지고 살아가는 世上을 가지런하게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다시말해서 여기서는 一三五豫定運(原始 新天地時代가 오면 卽 해가 뜨면 東方에 蘇日朝清이 나게 되었고) 穴下躬身一二九(해가 지면 卽 도가 어두어지면 蘇日美가 매 고주게 됨) 日月無光五九論(이렇게 되면 土의 나라의 經濟를 되돌릴 길을 찾음)이래서 運盡四牛登 玄裳來西北 赤年間幾何 昭烈加魚井 地危五馬馳 巽年垂危巖 新天日月滿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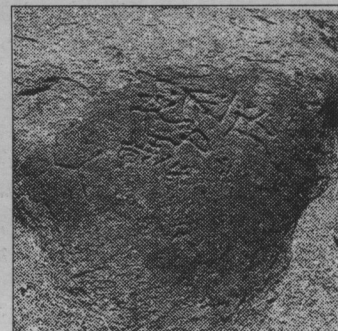
RE道傳26. 淡無若水深還黑 高莫如天遠反低◆물이 깊지 아니면 맑고 깊으면 漆黑같이 검다 그 깊은 속을 들여다 북수가 없다 다시 만해서 學問이 없으면 열으며 學問이 깊으면 그 속을 들여다 볼 수가없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人間들이 헤아릴 길이 없다 萬物이 하늘에 못 미치며 오하려 하늘이 낮은 데로 내려다보십이라 ◆ ◆美蘇는 超道士이다 ◆

RE道傳27. 自是魚龍湖海伏 河湭鳳鶴竹梧棲◆스스로 魚(朝鮮) 龍(倭)은 湖水와 바다에 얽드리고 黃河와 渭水의 鳳鶴은 대나무와 오동나무에 棲息한다 즉 다시 말해서 山鳥川魚(새는 山에 살고 물고기는 湖海에 산다) ◆ ◆湖水와 바다에 사는 어룡은 날뛰다가 空中으로 뛰어 나오면 독수리가 채 가시겠음이라 → 飛燕躍魚(中庸에서 말씀하고 계심) ◆

RE道傳28. 誰知相半家中計 小處山下小處溪◆以上과 같이 地球

의 西洋이 잘살면 東洋이 못살고 西洋이 잘살면 東洋이 못사는 家計簿이다 작은 나라에는 작은 溪谷이 있을 뿐이다 ◆

RE道傳29. 衆口同含孤古吐 方田連閉一時長◆이말은 누구나 옛날 불쌍했던 이야기를 입에다 물고 있지만 그러나 옥수수 같은 이빨을 길게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다 ◆



◆사인설명◆

<상주석각>: 南海尚州里石刻 50×100cm. 경상남도기념물 제6호. 경남 남해군 이동면 양이리에 위치한 선사시대의 石刻畫인데 금석문 화자들도 그 내용을 해독하지 못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이를 "徐氏過車"라 부르는 전설에 의하면 중국 진시황제가 東邦으로 보낸不老草를 찾는 善男善女들의 출행 기록이라 함.



"Love from Washing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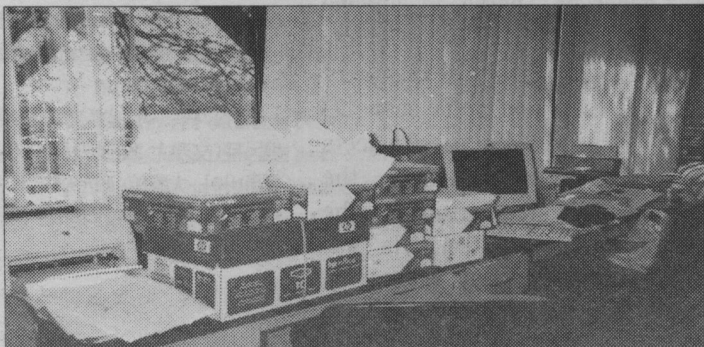
조수미 초청음악회 실황

녹음 CD 판매 계속

동창회보 발행財源

동문들의 구독료로 발간되는 재미서울대 동창회보

재미서울대동창회보는 우리 동문들의 삶을 기록하고 한국의 지성인으로서의 우리 동문들간의 友情을 글로써 나누는 소중한 지면입니다. 지금까지 주소가 확인된 모든 동문들에게 동창회보를 배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동문들의 성금인 구독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동문들이 취재자가 되고 필자가 되며 우리동문들의 지원으로 자조자립하는 재미서울대 동창회보가 되고자 합니다.





# 관악산을 떠나는 후배들에게

## 母校 제 57회 學位수여식 祝辭(전문)

### 林光洙

(공대 52년졸, 서울대학교 總同窓會長 會長)

尊敬해 마지않는 鄭雲燦 總長님! 歷代 總長님과 母校 教授 敎職員 여러분!

그리고 學士, 碩士, 博士 學位를 받고 情든 캠퍼스를 떠나 낯설기는 해도 希望과 夢의 未來를 向해 첫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後輩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卒業生들의 學父母님과 兄弟, 姊妹 여러분! 먼저 저는 서울대 20萬 同門을 代表하여 卒業生 여러분께서 奮雪의 功을 닦아 所定의 學業을 成就한 것을 祝賀드리며, 同窓會에 入門함을 歡迎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온갖 مبار라지를 다하신 學父母님의 精誠에, 또 熱情과 使命으로 가르침을 베푸신 敎授님들의 恩功에 깊은 敬意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親愛하는 後輩 卒業生 여러분! IT혁명과 함께 그 프런티어(Frontier)의 地坪이 一時에 넓어진 21世紀가 巴야흐로 世

界化, 國際化的 큰 물결과 함께 온 世界를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想像할 수 없었던 急速한 變化와 함께 未知의 新世界가 우리 앞에 展開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21世紀를 或者는 知識情報社會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또 不確實性과 不透明性이 支配하는 混沌의 世紀가 되리라 미리 걱정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知識情報社會에서, 깊이 그리고 오래 熟考해 보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知識이 果然 社會를 올라르고 값지게 살 수 있는 智慧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인터넷 서핑(Internet Surfing)과 미디어를 통해 取得한 情報量과 人間의 洞察力은 果然 比例하는 것인가? 疑問이 생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21世紀를 貫通하는 패러다임(Paradigm)은 果然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또한 確信을 不許하고 있습니다. 將來가 不確實하고

不透明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世紀와 時代를 不問하고 確實한 것은, 또 變하지 않는 事實은 모든 것은 끊임 없이 變化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卒業生 여러분은 學生의 身分으로 安住해 오던 日常에서 벗어나 力勳의 으로 急變하는 世上에 첫 발을 내 디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 디는 世上은 不確實하고 不透明하나, 希望과 勇氣로 굳건히 挑戰하고 해쳐 나간다면 無限한 可能性의 世上이, 創造性의 世上이 되기도 합니다. 學生身分으로 蓄積했던 知識과 情報를 바탕으로, 實際 社會生活에서 直接 體驗과 熟考로 自身의 智慧와 洞察力을 깊이 있게 가꿔 나간다면 世上의 變化마저도 主導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可能性과 創造性의 世上을 실현시켜 變化를 主導하는 Elite 에게 要求되는 道德的 責



務는 깊이 自覺해야만 합니다. 서울大人은 恒常 內部 構成員이 됐을 때 스스로 갖는 正當性과 外部人에게 比치는 信賴性을 恒常 生輝하면서 姿勢를 가다듬어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의 서울대인의 noblesse oblige(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과 마음으로 實踐해야만 합니다.

敬愛하는 서울大人 여러분! 지난 1월 여러분의 자랑스런 先輩이자 同門인 李鍾郁 博士가 世界保健機構-WHO 事務總長에 當選되는 慶事가 있었습니다. 韓國人으로서는 처음으로 UN 傘下 國際機構의 最高 責任자가 된 것입니다. 世界保健·醫療界의 首長이 된 셈이지요. 이는 李鍾郁 博士 個人의 榮光이기도 하지만 우리 서울대의 자랑이자, 이 나라의 自負心이기도 한 일입니다. 李博士가 後輩들에게 傳해주시기를 懇切히 當付한 말씀이 있습니다. 即 "서울大人은 달라져야 한다. 또 다른 學生과는 달라야 한다." "人氣있는 일에만 戀戀하지 말고, 우리의 利益, 나아가 人類社會에 裨益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라" 그렇습니다! 서울大人의 훌륭한 頭腦가 우리 社會 共同의 利益과 遺産으로, 또 疏外된 이 웃들의 빛과 소금으로 還元되는 地階에 眞正한 서울大人의 精神이 자리 할 수 있

기를 懇切히 當付한 것입니다. 우리 서울대의 創學精神인 VERITAS LUX MEA- 眞理는 나의 빛, 亦是 우리 서울大人이 살아야 할 삶의 指標로 刻 印되는 緣由도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 다. 사랑하는 서울大人들 - 오늘 캠퍼스를 떠 나는 後輩 同門여러분, 여러분의 世紀와 時代가 왔습니 다. 오랜 歲月, 지난 수世 紀동안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온 우리 國民과 民族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祖 國의 未來를 熾爛하게 밝혀줄 것을 바라 마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始作을 알리는 卒業을 祝賀합니다.

서울大人이 이 地球村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별들은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서울대 同門들이 때지어 德性을 보이면 큰 빛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同窓會의 캐치프레이즈는 서울대가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입니다. 祖國 앞에, 民族 앞에 責任을 지는 서 울大人들, 勇氣와 希望을 갖고 서로 도우 며, 謙遜하나 堂堂하게 앞을 向해 걸어갑 시다. 感謝하나 堂堂하게 앞을 向해 걸어갑 시다. 感謝하나 堂堂하게 앞을 向해 걸어갑 시다. 感謝하나 堂堂하게 앞을 向해 걸어갑 시다. 2003년 3월 3일 오전 11시 관악캠퍼스 종합 체육관 졸업식장에서

## 同門들을 사랑하시고 後進들을 기르시고 큰 仁術을 베푸신 朴昇緒 先輩님 편히가시옵소서

### 김중율

(사범대 55년 졸, 뉴욕지역동창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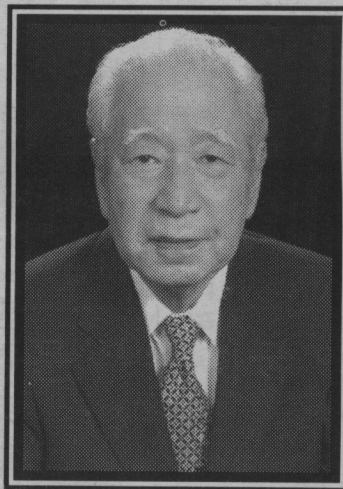
제 2대 뉴욕 지역 동창회 회장을 역임한 (1979-81) 元老이신 朴昇緒(의대 48년졸) 同門께서 지난 3월 2일 향년 79세를 두고 별세하셨습니다. 朴박사님은 1924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대전 중 고등학교를 거쳐 서울 의대를 1948년에 졸업하신 후, 서울대학 병원에서 修鍊을 마치고 인천 적십자병원 등에서 봉직하셨으며 1959년 渡美하여 Sea View Hospital과 Bronx Municipal Hospital 등에서 fellowship 과정을 마치시고 醫術을 닦으셨습니다. 1963년 Albert Einstein Hospital에서 醫術을 펴시기 시작하셨고 또한 1971년부터 Bronx Municipal Hospital의 Attending Physician 겸 Pulmonary Function Laboratory의 Director로 재직하신 후 1995년 Professor Emeritus로 의료계에서 은퇴하셨습니다. 朴박사님은 초창기 서울대학 동창회뿐만 아니라 서울의대 총동창회 설립을 도왔

고 1977-78년 미주의대 총동창회 회장직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주 의대 동창회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1991년부터 96년까지 이사직을 맡아왔고, 또한 대전 중 고등학교 초대 동창회 회장직을 역임하고 (1983) 장학재단도 설립하여 후진을 위한 장학사업에 기여하셨습니다.

故人께서는 미망인 梟鏡여사와 사이에 5남매(長男 贊亨, 次男 贊東, 三男 贊石, 四男 贊喜, 四男 贊存)를 두셨으며 8명의 손자 손녀를 둔 多福한 家長이셨습니다. 性稟이 온화하면서도 강직하시고 義와 不義의 분간에 언제나 엄격하셨으며 後輩양성과 불우한 僑胞학생들을 돕는데 앞장 서온 자랑스러운 원로 선배이셨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존경하는 선배를 보내면서 우리同門 일동은 박사님의 靈前에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2003. 3. 5 뉴욕지구 동창회장 김중율 근배

### 申辭



### 故 朴昇緒 (의대 48년 졸)

(의대 62년졸, 재미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장)

고 박승서 회장님은 우리 미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의과대학 총동창회 초창기부터 일편단심 그 설립과 발전을 위해 큰 공헌을 하신 巨木 원로이셨습니다.

母校 전신인 경성제국 대학에 입학하셔서 1948년 서울 의대를 졸업하시고 알버트 아인스타인 (1963-95) 의과대학 Pulmonary professor 로써 많은 연구 업적을 남기시고 자제들을 훌륭히 키웠을 뿐 아니라 사회 봉사의 신념으로 특히 동창회 장학재단 육성, 동창회 발전을 위한

많은 현명한 조언과 시 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예상하게도 저희를 두고 하늘나라로 가셨으니 그 조용하시고 인자하시던 웃음 띄운 모습을 우리 모두 그리워 할 것입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 평안히 쉬시면서 우리 동창회를 계속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에 잠긴 가족과 친지들에게 재미 서울대학교 동창회원들은 삼가 심심한 조의를 드립니다.

2003년 3월 5일, 재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장 정정수 드림

## An Eulogy for Dr. Sung Suh Park

by Young Kun Kim (March 6, 2003)

It is difficult to add to, let alone improve upon, the warm and moving tributes paid to Dr. Sung Suh Park last night. Nevertheless, it is my great privilege to formally express my deep admiration for his remarkable life and achievements and to thank him for enriching the experience of myself and many others by his exemplary conduct and good will.

First of all, he was a superb and caring doctor. He had a rare combination of healing

skills and selfless concern for the well-being of anyone seeking medical help from him. The fact that he was chosen to be the Director of the Pulmonary Function Laboratory at the Bronx Municipal Hospital alone attests to the professional recognition he received among his peers. I myself received wise medical advice when I turned to him when I was ill.

Secondly, he was a pioneer for Korean immigrants. He was one of the earliest Korean doc-

tors to work in some of the most prestigious medical establishments. The prejudices and discriminations faced by the early Korean medical doctors were so outrageous that it is shameful even to mention them now. Dr. Park endured and overcame them with patience and dignity in such a way as to gain a good reputation and respect. Thanks to him and people like him the path for social mobility for latecomers from Asia was eased.

Thirdly, he was a perpetual learner. Here, I can testify without hesitation that his curiosity and eagerness

to learn seemed to grow with his age. I was embarrassed to fail to answer some of his questions in my own field of specialization.

Fourthly, he was a virtuous man. Patient, generous, polite to anyone whom he came into contact, he was a modern example of the esteemed noble man [君子] described in the Analects [論語] of Confucius, the most revered writing in the Confucian tradition. He was gentle in manner, cautious in utterance, compassionate to the needy, and loyal and yield

ng to his friends.

There are other wonderful traits of Dr. Park which cannot be recited for lack of time. What should be said and what I would like to say with deep gratitude is that he was a fine, loving, and good man—the kind of man who helps make our lives meaningful and rewarding.

[편집자주: 이 追慕文의 필자 金永根동문(文理大 政治學科 1950년 입, 콜롬비아 大學校 政治學博士)은 현재 뉴욕 시립대학교 대학원 西洋정치사상사 敎授임]



# 이달의 추천도서

## Animal Minds and Human Morals :

The origins of the Western Debate (Cornell Studies in Classical Philology  
-Townsend Lectures, No 54) Ithca, NJ, Cornell University Pres., 1995

저자 Sorabji 교수(서양고대 철학 전공, King's College, London)는 서양 철학의 근본전제이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명제인, "人間만이 理性을 가진 동물" 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원에서 집을 짓고 있는 새나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고 있는 동물들의 행태를 보면 누가 동물들에게 思惟能力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 祝發展

知性人의 友情을 글로써 나누는  
재미서울대 동창회보



### 書評 (Natural History/ Philosophy/ Classics)

"Extremely impressive.... I believe this book can help us considerably to use more realistic methods... in ethics."

-Mary Midgley, author of Animals and Why They Matter

"[Sorabji] starts... by examining philosophical treatments of animals in ancient Greece. From there he goes on to current thinking and argues that the animal rights movement is philosophically incoherent. His philosophical analysis is so thorough that anyone who's thinking about these issues has an obligation to read this book."

-Vicki Hearne, Lingua Franca

"Sorabji's latest explorations of the ancient texts are concerned with arguments about the nature, and the proper treatment, of non-human animals... [His] grasp of the ancient texts... is that of a dedicated scholar... This is a very welcome contribution to the scholarly study of 'animal liberation,' and a powerful argument that we should change our ways."

-Times Literary Supplement

"In the process of supplying a fascinating historical narrative of an ancient debate, Sorabji makes a compelling case against two powerful but poorly supported dogmas of modern moral philosophy: the belief that nonhuman animals have no mental life, and the belief that the job of ethical theory is to supply simple and precise answers to complex practical problems. Aristotle would be pleased." -Bryn Mawr Classical Review

Richard Sorabji is Professor of Ancient Philosophy at King's college, London, and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Classical Studies. His most recent book from Cornell is Matter, Space, and Motion: Theories in Antiquity and Their Sequel.

Townsend Lectures Service/ Cornell Studies in Classical Philology  
Cornell University Press

#### Contents

#### Introduction

#### I. Mind

- 1. The cirsis: the denial of reason to animals 7
- 2. Perceptual content expanded 17
- 3. Concepts and perceptual appearance without reason or belief 30
- 4. Memory, preparation and emotion without rational belief 50
- 5. Forms, universals and abstraction in animals 62
- 6. The shifting concept of reason 65
- 7. Speech, skills, inference and other proofs of reason 78
- 8. Plants and animals 97

#### II. Morals

- 9. Responsibility, justice and reason 107
- 10. Oikeiasis and bonding between rational beings 122
- 11. Did the Greeks have the idea of human or animal rights? 134
- 12. Anarchy and contracts between rational beings 158
- 13. Religious sacrifice and meat-eating 170
- 14. Augustine on irrational animals and the Christian tradition 195
- 15. The one-dimensionality of ethical theories 208



한국의 名犬 진도개



SARS 환자 치료합니다

## 강영국 동물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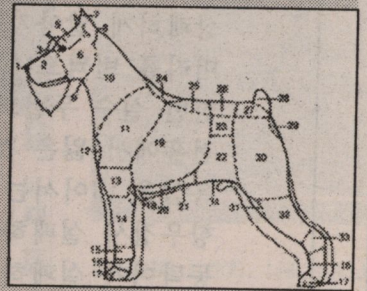
### Justice Animal Clinic

8507 S. Robert Rd.

Justice, IL 60456

Tel. (708) 599-4800 Dr. Young Kook Kang

姜永國(수의대 67졸)



당신은 愛犬의 신체 部分  
이름을 아십니까?





미동부 지역 최대 골프전문 백화점 그룹

# New York Golf 센터 그룹

회장 이 전 구 / Rhee Jun Koo

## Golf 인생

### 1. 치는 법을 배움

골프를 치려거든 치는 법을 배우시게  
팔과 어깨 목에서 힘을 주욱 뽑으시고  
백스윙은 천천히 공에서 눈을 떼지 말고  
고개를 들지 말고 의아들에 정성 쏟듯  
하얀공에 정성들여 다운스윙도 천천히  
스슬쩍 찰싹하고 내려치는 느낌이라!

### 2. 예의 지킴

골프를 즐기려면 예법부터 배우시게  
이세상에 신사놀이가 이만한 것 또 있을까?  
말조심, 서는 자리, 앞서가고, 뒤서는 것  
내 파트너 잘 칠 때엔 칭찬일랑 잊지 말고  
내 파트너 실수할 땐 그 실수가 내것인듯  
내 친구만 이웃인가 건너동에도 이웃일세  
호떡집에 불 안났네 말소리는 조용조용  
실례가 많아지면 친구들이 멀어지네  
나를 슬프게 하는 것중 이것 또한 으뜸이라.  
잘못된 모든 일은 그 모두가 내탓이며  
라이벌은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일세

### 3. 실패를 극복

골프를 치다보면 청개구리 공이란 놈  
곰배팔이 팽이친듯 좌측으로 우측으로  
오줌맞은 두꺼비가 웅덩이로 뛰어들 듯  
돌팔매에 놀란 토끼 숲속으로 도망가듯  
골프인생 우리인생 실수투성이 아니런가?  
관운장도 실수하여 조조에게 잡혔듯이  
이것들이 그 모두가 병가상사 아니겠소  
낙담일랑 하지 말고 초연함을 잃지 말게  
이번 실수 교훈삼아 새 성공을 기대하소

### 4. 과욕은 금물

핸디를 줄일려면 서두르지 마시게나  
열여덟개 기회있고 일흔두번 기대있네  
조금더 내 보낼까 팔과 목에 힘을 주니  
공이란 놈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누나  
상쾌하게 날아가는 공을 한번 바라볼까  
머리를 번쩍드니 뺨크뽀이 나는구나  
한번 실수 두번 실수 누구라고 아니하나  
전홀에서 잃은 것을 지금 당장 찾으려고  
욕심을 내어서는 공이 알고 도망가네  
항우장사 실패하여 유방에게 잡혔듯이  
동탁이가 실패하여 "여포"에게 죽었듯이  
과욕으로 인한 실패 실수야닌 업보라네

### 5. 운영의 묘

골프를 잘 치려면 나온거리 남은거리  
수학문제 풀어가듯 계산부터 하신후에  
풀 길이가 길었는가? 장애물은 어디있나  
그린 위에 팔락이는 핀을 슬쩍 노려본 후  
분수에 맞는 채를 꺼내 깊은 호흡 한번 쉬고  
마음부터 비운 후에 투옥하고 내려치면  
공이란 놈 날라가서 그린 위에 꽂힌다네

### 6. 정직함

골프를 즐기려면 이세상에 무엇보다  
"정직"보다 중요한 것 그 어디에 있을소냐?  
풀섶에 숨은 공을 발로 차서 꺼내놓을까?  
아무도 안보니까 공을 한개 놓고 칠까?  
모든 유혹 떨쳐버려 있는 그대로 올려보세  
자기 것을 계산하고 내가 나를 감독하고  
백에라도 단 한 번쯤 자기 양심 속일 때에  
공이란 놈 먼저 알고 숲 속으로 도망가네

### 7. 운

골프를 잘 치려면 운도 또한 기다리세  
모사는 재인이요 성사는 재천이라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한후에  
과욕은 극복하고 마음만 차분하면  
팔과 다리 허리 머리 오장육부 조화이뤄  
기적같은 동작들이 이따금씩 나타나서  
날아가는 새도 잡고 홀인원은 못할소냐?

### 8. 건강

이렇게 하여 열여덟 홀 한바퀴를 돌고 나면  
몸에서는싱그러운 풀 냄새가 향기롭고  
푸른 하늘 닮은 마음 한량없이 상쾌하네  
엔돌핀은 축적되고 백혈구도 많아지고  
혈액순환 순조로워 혈압도 뚝 떨어져  
허리뼈가 시큰 시큰 이따금씩 아픈 증세  
목욕 한번 하고난 후 씻은 듯이 없어졌네

### 9. 가정

하루종일 나 혼자서 좋은 시간 가진 동안  
사랑하는 우리 아내 골프과부 만들었네  
당신도 골프 배워 우리 함께 건강하여  
검은 머리 파뿌리 되어 한백년을 살아보세  
미안한 맘 금치 못해 혼잣말로 중얼 중얼  
운전일랑 조심하고 고속으로 가지마소  
천사같은 마누라와 토끼같은 우리새끼  
저녁밥상 차려놓고 아빠오기 기다리네

시인 이 전 구

New York • Manhattan • Chelsea Piers • Long Island • Port Chester • Valley Stream • Nanuet  
New Jersey • Fort Lee • East Hanover • Saddle Brook • Waldwick • Edison • Springfield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212-564-2255 Fax. 212-244-6941 www.nygolfcenter.com



### 남가주 소식

## 남가주 동창회 신년사업계획 "白球동창회를 知性人的 동창회로"

남가주 동창회(회장 곽철, 법대 68년 졸)는 3월 3일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금년도 사업계획을 성안하였다.

1. 곽회장은 지금까지 놀이와 골프에 치중된 "백구동창회"를 동문들간의 진지한 對話가 오가는 "知性人的 동창회"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韓美관계, 경제 및 종교분야 등 동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에 관하여 학술대회를 기획하며, 첫 세미나로 4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West LA 한인교회에서(3840 Grand View Blvd. CA90066, Tel: 310-397-2741) 이채진교수(문리

대 정치과 55년입)와 정종욱교수(문리대 외교학과 59년 입)를 초청하여 "부시의 對北韓 정책"과 "韓美관계의 제반문제"에 관하여 주제발표 후 참석동문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갖기로 하였다.

2. 4월말 춘계 정기 골프대회는 미주 총동창회 제 12차 정기 평의원회에 참석한 미주지역에서 온 동문들과 모교와 서울총동창회에서 오는 순방단 일행을 초대하여 6월 1일 Palm Springs에서 갖기로 하였다. 조성상 동문(상대)이 Palm Desert Country Club에 이어 'PGA Tour'급 골프장을 추가 인수 축하를 겸하게 되었다.

3. 재임중 남가주 총동창회 웹사이트의 개설을 주도하여 현대 첨단 전자기술에 매료된 任洛均 동문(약대 68년 졸, 남가주 총동창회 27대 회장 역임)은 동창회 인터넷 운영기금으로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월 \$1,000씩 快擲하기로 하였다. 남가주 동창회는 임동문의 誠心에 감사를 드린다.

4. 동창회를 젊게 하기위하여 구성된 "冠岳連帶"(관악산 교정 졸업생으로 구성)의 위원장인 정연진동문과 이경훈 동문등이 참석하여 회원들이 69명으로 증가한 관악연대의 활동상황을 보고하였다.

5. 음대동창회(회장 윤길숙, 49년 입)는 7월 24일에 음대 동문 음악회를 갖기로 하고, 많은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 이채진 · 정종욱교수 한미관계 토론회 4월 29일(화) 저녁 7시

남가주 동창회(회장 곽철, 법대 68년 졸)는, 지난번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젊은 세대의 熱風의 힘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 결과, 현재 한국내에 國際關係의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감정적인 反美풍조가 본국과 교포사회의 輿論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韓美간의 話頭"란 문제의식을 28대 남가주 동창회장 취임사에서 제기한 곽철회장의 남가주 동창회를 "知性人

의 동창회"로 바꾸고자하는 뜻에 따라, 韓美관계를 주제로 한 學術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니 많은 동문들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또, 성공적인 토론회를 위하여 각 단과대학 동창회에서는 많은 동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연락망을 통하여 알리고, 참석예상인원을 알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일시 : 4월 29일 (화) 저녁 7:00-9:00  
\*장소 : West LA 한인교회

耳840 Grand View Blvd. CA 90066 ☎ 310-397-2741

\*주제 및 발표자 : 이채진 교수(정치학과 55년 입, 메케나 대학 국제정치학 교수) "부시의 對北韓 정책", 정종욱교수(문리대 외교학과 59년 입, 전 모교 외교학과 교수) "한미관계의 제반문제"

\*연락처: 남가주동창회 사업국장 金(洪)玉子(음대 70년 졸) 동문 626-836-0588(H), 213-798-2141(C), 626-836-0589(F)

\*E-mail : hngok451@hotmail.com

## 美大 동창회 4회 작품 전시회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RADIO KOREA / DO SAN HALL

남가주 미대 동창회(회장 육선희, 미대 76년 입)는 제 4회 남가주 미대 동문 전시회를 4월 25일(금)부터 5월 4일까지 RADIO KOREA / DO SAN HALL (626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5, 전화 213-487-1300)에서 갖고 동문 예술가들의 역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미술전의 개막을 축하하는

Reception이 4월 25일 6시부터 9시까지 있을 예정인데,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는 24명의 동문들 명단은 아래와 같다.

Bai, Young Sun; Chang, Jung Yong; Choi(Kang), Young II; Chun(Kim), Kyung Ok; Hann, Jae Hyun; Kim(Park), Da Ale; Kim, Koo Ja; Kim, (Sunnwoo)

nyeu; Kim, Ok Kyung; Kim(Min), Soonjin; Kim, Yoon Jin; Lee(Kim), Hae Ran; Paik, Hai Ran; Park, Hye Sook; Park, Yoonchung; Park, Young Kook; Shim, Young Ja; Shin (Yim), Hae Ja; Shin, Jung Yun; Sohn, Nam Soo; Song, Kyoung Ja; Suh, Dong Hyun; Yook(Kim), Seonhye; Yoon(Lim), Jong Suk ; 연락처 육선희 미대동창회장(전화 310-541-0347, 팩스 310-377-7048, 이메일 Clayopatra@yahoo.com)

## 신년총회 특별협찬 동문께 감사드립니다.

남가주 총동창회 신년총회(2003년 2월15일 토요일)를 위하여 이병준, 오흥조, 이청광, 임낙균, 곽철, 김건진 동문, 각 단과대학 회장단, 박양중, 아주관광(박평식), 지구촌여행사(이종근) 및 약

사회는 아래와 같은 현금 및 경품(하와이 왕복 비행기표, 유럽관광권, 세도나 관광권, 17인치 LCD 스크린, 여행가방세트, DVD, 카메라 등)을 출연하였다.

### 남가주 총동창회 Website 基金 모집 추가出捐者 成敏慶 (공대 電子科 70년졸, 100불)

### 28대 회장 취임사

### 韓國과 美國이란 話頭 郭鐵 (법대 68년 졸)



어찌다 보니 南加州 서울대 총동창회 會長의 重任을 맡게 되었습니다. 同窓會란 원래 친목단체인 만큼 잘 놀고 특히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會長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런 면에서 缺格事由를 구비하고 있는 저로서는 걱정이 앞섭니다.

세월이란 단순히 지나치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지혜가 무르익으면서 원숙해 진다고 공자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과연 年輪이 쌓인 남가주 동창회의 2003년 한해를 어떻게 企劃해야 동창회를 한단계 높일 수 있을지 先後 齊 門 門 門 여러분께서 지혜를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前任 임낙균 회장님께서 力點을 두신 Website 제작 사업 등을 계승 발전시키고, 금년도에 미주 서울대 총동창회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오흥조 회장을 도와 미국내 서울대 동창들이 힘을 합쳐 서울대와 조국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昨年 韓國의 大選에서 表出된 世帶 갈등이 바야흐로 韓美관계에 돌풍을 몰고 오고있는 상황에서, 美 洲 동창들이 서울대 이름에 걸맞는 方向提示를 해주면 하는 바램이나 혼자만의 지

나친 기대가 아니기를 기원하며, 碩學들을 모시고 학술 토론회를 가져 우리 서로의 생각을 진지하게 성찰해 볼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한국이란 우물에서 미국이란 大洋에 나와 사는 서울대 동창들에게 그야말로 Noblesse Oblige 의 의무가 지워져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西洋 合理主義를 아직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면서 스스로를 과대 평가하는 교만에 빠져있는 듯한 祖國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이는 것은 제 우둔함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이기를 바랍니다.

同門 諸賢께서 각자의 전공분야에서 연마한 지혜를 합침으로 母校가 祖國이 나아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 미주 동창들이 先導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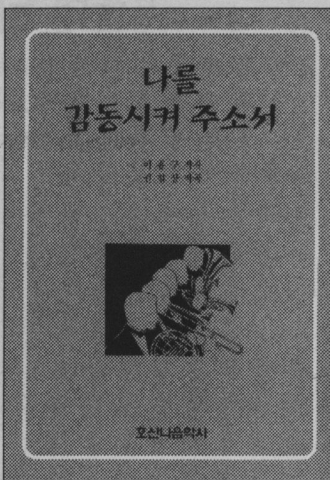
2003년 2월 15일  
남가주 동창회장 곽철배상



임광수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 LA 방문 환영만찬에 참석한 동문들 (2월 8일)

## 권길상 동문(음대 48년졸) 찬양작곡집/CD 출간

남가주에 거주하는 원로 童謠작가 權吉相 동문(음대 48년 졸)이 작곡하여 지난해 11월 10일에 열렸던 "감사와 찬양의 밤" (소프라노 최창경, 테너 박흥선, 첼로 엄교회의 살롱중창단과 성가대 출연)에서 발표된 讚揚曲들을 수록한 "나를 감동시켜 주소서"라는 願下의 樂譜集(작사 이흥구 목사)과 찬양발표회를 실황 녹음한 CD ("나를 감동시켜 주소서")가 발간되어 원하는 동문들과 교민들에게 무료배포할 예정이다. 이 CD에는 한 알의 밀알



헬로교회 성가대), 나의 소원(소프라노 최창경), 참 아름답다(테너 박흥선), 어머니처럼(살롱 중창단), 나를 감동시켜 주소서(전원합창) 등 16곡이 수록되어 있다. 찬양곡집 및 CD배포 문의처: 이흥구 목사(전화 714-879-5201, 931-7411(셀폰)Rev. Paul H. Lee 1401 S. Gilbert t. #15 Fullerton, CA 92833)



任洛均 27대회장 이임사

2002년이 저에게는 참으로 즐거운 한 해였습니다. 다시 서울대 학생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 서울대를 다시 졸업하는 마음으로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이라는 영광스런 자리를 물러나...

"I am free man. I am light as a feather."

저도 이임사를 끝내고 나면 남아갈 것 같은 마음입니다. 동창회장 자리도 즐거운 자리였습니다만, 이제 훌훌 털고 하나의 동창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열흘 후면 정오대를 떠나는 그 분 마음도 저처럼 흥분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지도해 주신 선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호조 미주 총동창회 차기회장님, 그리고 남가주 총동창회 전임 회장님들, 각 단과대학 회장님들, 이사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해주신 동창회 임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2002년 한 해 남가주 총동창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시도했습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협조와 참여로 여러 행사들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동창회는 무엇보다도 임원 여러분들의 헌신적 봉사과 동문 여러분들의 자발적 참여로 움직입니다. 제가 회장으로

서로도와 발전하는 남가주 동창회

있었던 2002년은 저의 능력이 할 수 있던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도와주신 선배님 그리고 후배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꼭 일년 전 오늘 저는 취임사를 하며 쬐어지는 동창회를 만들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일년 후 이 자리에 서서 보니 동창회 참석자 평균 나이가 적어도 다섯 살은 내려간 것 같습니다. 모교가 관악산으로 이전한 이후 서울대를 다닌 우리 관악연대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동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남가주 총동창회가 인터넷 시대에 들어가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사에서 말씀드린대로 새로운 시대에 따라가는 동창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열렸던 웹사이트 개발 기금 모금 만찬에서 거금 일만 5천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쪽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젊은 동문들의 노력으로 우리 웹사이트가 열렸습니다. 아직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꼭 들어가 보세요. www.snua.net 이 우리 웹사이트 주소입니다. 우선 자랑스런 동문들, 고 김영기 회장님, 이병준 전회장님, 정원훈 선배님, 오재인 박사님의 고귀한 말씀들이 동영상과 자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동문 사람 방에 여러 가지 재미 있는 아이디어와 자료가 신선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동창회 웹사이트는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돌보지 않으면 금방 폐가처럼 되어서 동창회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운 흉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미주 총동창회가 로스앤젤레스로 옵니다. 우리 남가주 웹사이트가 실질적으로 미주총동창회 웹사이트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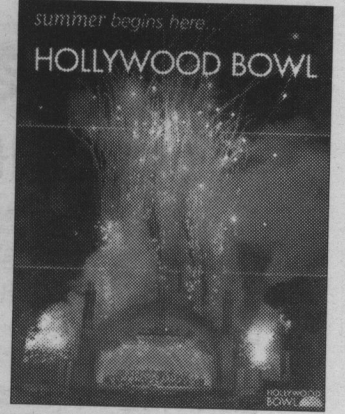
2003년 신임회장 박 철 동문과 임원 여러분이 저보다 남가주 총동창회를 더 잘 끌어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한 사람의 동문으로 총동창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웹사이트 운영과 개발에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2002년 한 해 즐거웠습니다. 총동창회에 나와서 존경하는 선배님들 그리고 사랑스런 후배 여러분들과 가깝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동창회 덕분에 골프장도 더 많이 갔었고, 노래방도 자주 갔고 회식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인생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천상병 詩人의 '귀천'의 마지막 구절을 변용해서 인사를 마쳐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동창회 소풍 끝내는 날 가서, 동창회장을 해보니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감사합니다. 2003년 2월 15일

제 3회 서울대 동창가족의 밤

7월 26일 (토) Hollywood Bowl

미리 입장권 구입바람

남가주 동창회가 무더운 한 여름 밤에 동문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기획행사로서 올해로 세 번째 맞는 "서울대 동창 가족의 밤"이 예년과 같이 "목련회"(가정대 동창회) 주최로 Hollywood Bowl에서 7월 26일(토) 오후 5시부터 Picnic이 있고, 오후 8시 30분부터 있는 한 여름밤을 수놓는 불꽃놀이와 함께 있을 Concert (ESPANA! with Fireworks)를 즐길 예정입니다. 해마다 인기를 더 해가는 행사인 만큼 각 단과



대학 동창회별로 서둘러서 Ticket을 구입해 주십시오. [연락처 제영혜(가정대 71년 입, 재미총동창회 관악후원회 이사)동문 ☎ 213-427-4377]

남가주 동창회 2002년도 재무보고

지난 1년동안 남가주 총동창회는 임낙균 회장께서 활발하게 큰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지난 1년 동안에 동창회 행사내용이나 재정면에서 거의 2배에 가까운 실적을 보였습니다. 2001년도 회장단으로부터 남가주 동창회 자산 인수 금액이 \$2,190인 것처럼 통상 남가주 총동창회 자산 인수인계는 매년 \$3,000내지 \$4,000수준이었는데 이번엔 인수인계하는 금액은 \$12,271로 1년 동안에 자신이 거의 \$10,000 이 늘었습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에 특기할 사항은 남가주 총동창회의 웹사이트(www.snua.net)를 운영할 기금인 Website Fund를 조성하고 이 Fund를 위하여 별도 은행구좌를 개설하였는바 총 \$15,600을 조성하여 웹사이트 설치비용으로 \$9,400을 사용하고 현

잔고는 \$6,200정도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남가주 총동창회가 재미서울대 총동창회의 제7대 집행부를 맡게 됨을 대비하여 계속적으로 이 웹사이트 기금을 모금하며 웹사이트를 계속 관리, 발전시켜 모든 동문들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nchor website로 키우고자 합니다. 임낙균 전회장께서는 계속 이 웹사이트 기금의 책임자로 수고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2월 15일 남가주 총동창회 재무국장 성주경(상대 68년입)



신년총회 속보

장기자랑으로 친목도모 간호대 하와이언 무도팀 1등

남가주 총동창회는 2003년 2월 15일(토) 오후 6시 30분부터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에서 225 명의 많은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총회가 끝난 후 김학천 동문(치대 78년졸)과 장윤정(법대 88년졸) 동문의 사회로 즐거운 여흥의 시간을 가졌다. 이 餘興시간에는 장기자랑이 있었는데 1등에는 간호대 하와이언 댄스팀 (남정화(97), 심진숙(68),

김수향(69), 남정희(96) 동문, 2등에는 인도춤을 선보인 음대문팀의 홍옥자(66), 백옥자(71) 동문팀이 차지하고 3등에는 장고에 맞추어 國樂 창부타령을 열창한 김익수(수외대 57년졸) 동문이 차지하였다. [108호 18면에 장기자랑 1등팀을 가정대로 보도한 것은 오шиб이므로 간호대로 바로 잡으며,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 간호대팀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남가주 동창회신년총회 사진설명

2003년 2월15일(토) 오후 6:30 레디슨 윌샤이어 플라자 호텔

- 1 이임인사를 하는 27대 임낙균 회장 2 취임인사를 하는 28대 박철 회장 3 차기수석부회장 김건진(문리대) 동문과 부회장 김영(수외대) 동문 4 동창회 총회에서 화목의 분위기를 돋구는 장기와 여흥순서에서 명사회를 본 김학천(치대) 장윤정(법대) 동문 듀오 콤비. 5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장기자랑 1등한 간호대 하와이언 무도팀. 남정화(97), 심진숙(68), 김수향(69), 남정희(96) 동문 6 장기자랑 2등한 음대팀의 인도춤. 홍옥자 동문과 백옥자 동문 7 장기자랑 3등한 창부타령. 김익수(수외대) 동문





### 온타리오 소식

## 동창회 신입 회장단 선출

### 신입회장 任東淳(치대 55년 입) 동문

지난 20년 동안 각 단과대학 동창회가 순번제도로 온타리오 총동창회를 운영하여서 동창회 활동의 내실화가 요청되어 동창회 회칙을 개정하고 이사회제도를 도입하는 등 동창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온 온타리오 동문들은 지난달 총회를 갖고 아래와 같이 새 회장단을 구성하여, 새봄과 더불어 활기찬 동창회가 되고자 한다. (투고자: 이이병동문)

\*회장 任東淳(치대 59년 졸)  
Dong Soon Yim

2092 Shawanaga Trail Mississauga, Ontario L5H 3G5  
☎ 905-278-2257

\*부회장(차기회장) 金峯秀(법대 74년 졸) Bong Soo Kim  
357 Commonwealth Circle Mississauga, Ontario L5B 3V3 ☎ 905-949-1789

\*총무 金致翎(농대 78년 졸)  
Chee Ik Kim ☎ (H)416-512-6601 (B)416-568-8314

\*재무 李英熙(간호대 65년 졸)  
Young Hee Lee ☎ (H)905-542-1982 (B)905-624-0512

## 동창회 신입회장 趙金熙(농대 75년 입) 교수

### 동창회 홈페이지 개발중

에드몬튼 동창회는 2003년 2월 11일에 열린 총회에서 새로 임원을 선출하였는데, 신입회장에 趙金熙(농대가정 75년입, Alberta 대학 수학 및 통계학과 교수) 동문, 총무에 趙成昊(공대 토목 61년 입) 동문을 선출하였다. 신입회장 조동문은 33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에드몬튼동창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정비중에 있다.

조금회회장 연락처  
Keumhee Chough (K.C.) Carriere

9535-88 Ave. Edmonton AB. T6C 1M7 Canada. ☎780-463-9684;  
Professor and Associate Chair (Research)  
Department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Sciences,  
University of Alberta, 632CAB, Edmonton, AB T6G 2G1 CANADA  
www.stat.ualberta.ca/~kcarriere (TEL) 780-492-4230 (FAX) 780-492-8206

□조성호 총무 연락처 Sung Ho Cho  
1509 Welwood Way Edmonton AB. T6M2M3 Canada. ☎780-483-



### 남가주 문리대 동창회 소식

## 동창회 총회 41명의 동문가족 참석

### 신입회장에 文炳吉(문리대 수학과 65년 졸) 동문 선출

남가주 문리대 동창회(회장 김건진, 영문 62) 2003년 총회가 41명의 동문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1일 저녁 6시 30분에서 11시까지, 타운내 JJ Grand Hotel 로얄 볼룸에서 열렸는데, 특히 이 자리에는 사회대, 인문대, 자연대 출신의 젊은 동문들로 구성된 남가주 관악연대 회원 11명이 참석하여, 學制개편으로 인하여 "大學中の大學"이었던 문리대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갈 선후배의 緣을 되살리게 되어 생동하는 동창회로 거듭나게 되었다.

식사 직후 시작된 제1부 총회 순서에서 지금까지 수고해온 회장 김건진동문은 "문리대 명부를 보면 LA 주변에 약 15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등 약 200여 동문들이 남가주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분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영문과 49학번으로 가장 어린인 노재민 동문은 격려사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할 당시 학장님께서 '여러분들은 대학 중의 대학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직도 귀에 쩌찜하다"라며, "이러한 전통을 계속 이루어 나갈 것"을 부탁하였다. 전임회장을 역임한 한태호 동문(국문 75)의 2002년도 사업보고에 이어 열린 신입회장 선출에서는 문병길 동문(수학 61)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문병길 동문은 인사말에서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다"며, "특히 올해에는 문리대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한가지 사업목표로 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열린 여흥시간에는 각 좌석별로 2명씩 나와 노래를 하거나, 재담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특히 나승욱 동문(외교 59)의 장기자랑

침사평은 그 자체가 하나의 장기 자랑이 될 정도로 爆笑에 폭소를 자아내었다. 11시 10분경 사진 촬영을 마지막으로 동창회가 종료되었다.

이임하는 전임회장 김건진동문은 현재 남가주 중앙일보 부회장이며, 지난 2월 15일에 열린 남가주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되어 내년에 공릉 남가주 동창회를 領導하게 되었다.

신입 회장 문병길동문은 고향이 충남 천안으로 동성고 (1961 졸) 출신으로, 數學과(1961-1965)를 졸업한 후, 공대 광산 공학과 (1968-1971)를 다시 졸업하여, University of Houston (1972-1975, 지구 물리학 碩士)에서 수학한 바 있다. 또, 그는 모교 졸업 후 ROTC 3기(2년)로 任官되어 국방의 임무를 다하였다. 전역후 국립 지질 조사소(2년)에서 지구 물리학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서울 Tenneco Oil Company (18년), Geophysical Manager, 휴스턴/오클라호마 LG/대

### 신임 문리대 동문회장 인사

### 文炳吉 (문리대 65 졸)

동문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생활 30여년 중 후반 10년은 한국에 나가 석유 개발분야에서 종사하며 근대화된 조국의 숨 가쁜 일상에 몰두하기도 하고 때로는 변해버린 동송동 거리에서 학교 앞 개천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하였습니다. 4년 전 오렌지 카운티의 가족과 합류하면서 문리대 동문회도 참석하게 되어 휴스턴이나 오클라호마에서는 맛볼 수가 없었고 서울에서 보낸 몇 년 동안도 찾아볼 수 없었던 東萊洞의 호흡을 다시 삶의 활력으로 삼고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남가주 총동창회가 관악연대를 조직하여 젊은 동문들이 동창회 활동에 대거 참여하여 문리대 동문회에도 연료와 젊음의 조화를 이루게 되어 앞으로는 모두에게 기대어지는 모임이 될 것을 믿어



마지 않습니다. 넓은 포용력으로 동문회를 이끌어 오신 김건진 회장의 뒤를 이어 올 일년을 봉사하게 된 본인은 즐거움과 보람으로 일꾼으로서의 임무를 다 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문리대 동문들의 웹사이트를 만들어 동문들 특유의 다양한 교양과 기지, 미주 생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할까 합니다.

2003년 3월 21일 남가주 문리대 동창회장 문 병 길배상



우/마두라 油田(10년)개발사업에 종사, 서울과 인도네시아에서 상무/전부이사를 지냈고, 현재 LA 지역에서 Morning Glory Stationery USA, Inc. 를 경영하며 수입 도매 및 직관을 하고 있으며, 취미는 여행이다.

이번 문리대 동창회에 참석한 동문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권봉성(지질학과 64학번) 부부, 김건진(영문학과 62) 부부, 김동주(지질학과 56) 부부, 김상찬(지질학과 65), 김성규(지질학과 64) 부부, 김성수(신문학과 80), 김용찬(생물학과 64) 부부, 김종하(영문학과 85), 김진형(불문학과 55) 부부, 김흥묵(물리학과 60) 부부, 나승욱(외교학과 卍

聆) 부부, 노재민(영문학과 49), 문병길(수학과 61), 박양중(외교학과 61) 부부, 성경경(정치학과 62), 유동웅(외교학과 56) 부부, 이경훈(정치학과 83), 이병삼(중문학과 59), 이세희(독문학과 81), 이원영(정치학과 81), 이진우(외교학과 59) 부부, 이준일(정치학과 61), 장병희(서어서문학과 86), 정연진(서양사학과 81), 정인택(물리학과 59), 추철호(외교학과 92), 한태호(국문학과 75) 부부, 하성욱(정치학과 84), 홍현표(외교학과 84)

<자료원:이경훈동문 보도>



### 뉴욕 소식

## 뉴욕지역 동창회 정기총회 및 백구대회 6월 21일(토) 신임회장 인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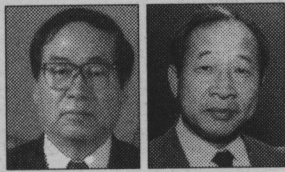
뉴욕지역 동창회 (회장 김종을, 사대 55년 졸)는 오는 6월 21일(토) 오후 6시부터 동창회 정기총회를 Lake MacGregor 골프장에서 갖고 7월 1일부터 뉴욕지구 동창회를 이끌 차기회장(현 수석 부회장 양순우, 법대 71년 입)을 선출하며 당 회계연도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 30분부터 동문들이 참석하는 골프대회가 있을 예정이다.

### 뉴욕동창회 정기총회 개최

뉴욕지역 동창회는 정기총회 및 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많은 동문들과 임원여러분들의 전원 참석을 바랍니다.

2003년 4월 12일  
서울대 뉴욕지역 동창회  
회장 김종을(사대 55년 졸),  
이사장 노용면(의대 55년 졸)



#### ★ 총회

일시: 2003년 6월 21일(토) 오후 6시  
장소: The Country Club at Lake MacGregor, 187 Hill Street, Mahopac, NY 10541

Tel: 845-628-4200

안건: ① 차기 회장 인준

② 총동창회 평의원 선출 ③ 회계보고 ④ 기타사항

#### ★ 골프대회

일시: 2003년 6월 21일  
Tee-off: 12시30분(11시 30분까지 도착 바람)  
장소: The Country Club at Lake MacGregor,  
Tel: 845-628-4200  
회비: 1인당 \$100이며, 부부참석의 경우 \$180  
연락처: 914-714-0587, 212-947-0600 914-738-4511

### 서병선 회장 자선 음악회 초대인사 초대의 말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뉴욕예술가곡연구회는 오는 5월 4일 뉴욕호신장로교회에서 제7차 탈북 난민돕기음악회를 갖습니다. 굶주림의 고통에서 탈출하여 중국 접경지역에 흩어져 있는 20만 난민들은 아직도 붙잡히면 가혹한 고문과 처형이 뒤따르는 강제송환의 무서운 공포에 떨며 매일 매일을 숨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2년 6월 12일 미국의 상, 하원은 탈북 난민구제 법안을 획기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13년 탈북 난민 역사상 가장 큰 결실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동포들의 감동적인 동포애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탈북 난민단체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힘을 합하여 겪고 있는 고통은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류의 참혹한 비극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을 바랍니다.

오는 음악회 성금은 현지에서 난민구제에 몸을 바치고 계신 선교사님들께 직접 전달됩니다. 내 민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열리는 오는 음악회에 가족과 함께 많이 참석하셔서 동포애가 넘치는 뜻있는 행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동포사회의 화합과 사랑을 노래하는 TKC 소년소녀 합창단이 특별출연하고 뉴욕의 정상 성악가들이 대거 출연하여 은혜로운 성가와 주옥같은 한국가곡과 세계명가곡을 독창과 중창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수놓을 이번 음악회에 오셔서 기쁨이 넘치는 보람된 문화 행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3월 21일  
뉴욕예술가곡연구회 고문 강현석  
법률고문 전일웅  
재정고문 최영태  
회장 서병선 드림



### 脫北난민돕기

### 모금 음악회

### 뉴욕예술가곡연구회

### 6,000달러 기금 마련

붕괴직전에 있는 북한으로부터 삶을 찾아 탈출하고 있는 동포들을 돕고자 자선 음악회를 통하여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뉴욕예술가곡연구회(회장 서병선)가 지난 달 29일 주최한 제6차 탈북난민돕기 모금 음악회에서 총 6,000달러의 기금을 마련한데 이어 오는 5월 4일 뉴욕 호신 장로교회에서 제 7차 탈북 난민 돕기 음악회를 갖는다고 하니 많은 동문들과 교민들의 지원을 바라고 있다. 최근 모금액 집계를 끝낸 서 회장은 "이 기금은 중국 연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 3명에게 골고루 나눠 지급할 계획"이라며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준 동포들에게 한없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올해 초 체포된 최요섭(가명) 선교사는 조만간 재판을 통해 국외 추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최 선교사 체포사건은 연방의회에서 탈북난민구제법안을 마침내 통과시키는 결실로 이어졌다. 이에 최 선교사도 '이는 하나의 밑알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게 된 것'이라며 추근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고 전했다. 서 회장은 "현재 중국 연변의 탈북난민들은 혹한 속에 숨어 쫓겨야 하는 비극적인 삶을 연명하고 있다. 인류적 차원에서 범동포적으로 이들을 돕는 동포애를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6차 모금 음악회는 뉴욕 한국일보와 뉴욕호신장로교회, 베이사이드 가족처 등이 후원했으며 뉴욕에서 활동하는 테너 서병선, 소유영, 바리톤 노대산, 소프라노 이철화, 홍승희, 박숙형, 메조소프라노 정수연, 피아니스트 김혜원씨 등 정상의 음악가들이 대거 참여, 한국가곡과 타령, 세계의 가곡과 찬송가 등을 선사했다. (자료원, 한국일보 2002년 10월 30일자에서 이정은 기자 보도)

### 워싱턴 DC

### 간호대 동창회 소식

### 4월 30일(수) 12시

간호대 동창회(전임회장 백옥희, 신임회장 김희자)는 지난 1월 18일 신년축하 파티와 정기총회를 가졌다. 게임과 노래자랑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 중 하나인 주미공사관 재매입 운동에 함께 동참하였다.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회장 김희자, 총무 전희순이 선출되었으며 다음 모임은 4월 30일 수요일 12시 조덕희 동문(☎703-359-0277) 자택에서 있다.

### 오레곤 소식

## 신임 동창회장에鄭聖國(인문대 77년졸) 동문

오레곤 동창회(회장 羅濟寬, 공대 전기과 76년졸)는 총회를 통하여 2003년도 신임회장에 정성국 동문을 선출하였다고 알려왔다

재미서울대동창회는 오레곤 동창회의 활동을 자세히 보도하고자 하니 소식과 임원들의 사진 및 동문들의 자료를 보내주시요!.

## 휴스턴 동창회 소개

### 음악회로 장학기금 마련, 후학 지원

### 金永昌(공대 72년 졸, 전 휴스턴 동창회 회장)



미국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이며 약 4만여 명의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텍사스 주 남동부의 휴스턴. 인구가 약 1백 78만 7천명(1998년)인 휴스턴은 세계 석유산업의 중심지이며, 합성고무를 비롯한 화학공업과 멕시코만에 풍부한 석유, 천연가스, 황 등의 자원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휴스턴이라는 명칭은 멕시코의 영토이던 1836년 당시 발생한 텍사스 독립전쟁의 영웅 사무엘 휴스턴 장군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다. 20세기 초 이래 석유 화학공업의 대확장과 운하의 완성으로 번두리에 지나지 않던 휴스턴은 급격한 성장을 하여 1900~1950년 사이에 인구가 14배로 격증했다. 휴스턴은 M.D. 앤더슨병원 등 많은 병원과 의과대학이 있어 텍사스주 의료의 중심지이며, 美항공우주국(NASA)의 우주비행관제센터가 소재하고 있어 1967년 7월 인류 최초의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를 비롯한 우주선의 관제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 현재 美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부시 前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며 지금도 거주하고 있어 정치적으로도 미국 남서부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휴스턴지부에 거주하는 동문은 약 1백 80여 명으로, 그 수는 많지 않지만 어느 지부동창회보다 단란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필자가 현재 회장을 맡고 있으며, 동문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조그마한 힘이나 보태려 노력하고 있다. 휴스턴이 세계 석유산업의 중심도시인 탓에 많은 동문들이 공대 출신으로 엔지니어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李振洙(의대 74졸) 동문은 휴스턴의 M.D. 앤더슨 병원 암센터에서 흉부종양내과 교수를 지낸 명실공히 폐암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다. 미국 의료발전에 일익을 담당한 李동문은 현재 한국 국립암센터 병원장으로서, 이제는 국내의료발전에 역량을 쏟아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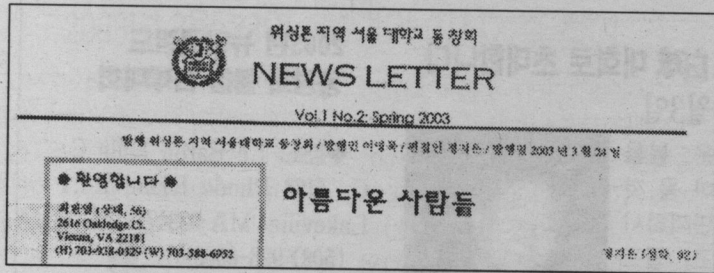
휴스턴 지부는 동문 골프대회, 만찬 등 친목 도모의 활동뿐 만 아니라 한국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후학들에 대한 관심도 이어가고 있다. (위의 사진참조) 매년 봄, 동문 골프대회를 개최해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은 물론 동문간에 유용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장을 마련한다. 늦가을인 11월경에는 동문주소록 발간과 기타 용도에 필요한 기금을 위해 저녁 만찬을 열고 있으며, 12월에는 송년 만찬을 겸한 지부 전체모임을 열고 저물어 가는 한 해를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모임에서 차기 회장단과 임원진이 소개되고 현 임원진은 연말 결산보고를 한다. 또한 동창회는 장학사업을 통하여 한국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後學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 것은 휴스턴 지부의 독특한 사업이자 자랑거리이다. 매년 봄, 학업·예능·지도력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함을 보인 다섯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매년 가을에는 장학기금마련 음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서양음악과 국악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인을 초청해 훌륭한 연주를 감상하며, 장학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가족동반으로 연주회장을 찾는 또 하나의 동문모임이 되고 있다.

장학사업의 확대, 행사의 다양화, 유기적이고 신속한 연락망 구축 등 해야할 일들이 남아있다. 가족적인 분위기와 생동감, 활력이 넘치는 휴스턴 지부동창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고국과의 연계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재미서울대총동창회는 동창회의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재미서울대동창회보 발간지원금을 보내준 휴스턴 지역동창회에 감사사를 드린다]. (서울대동창회보 2002년 12월 15일자 7면 보도 전제)



### 워싱턴 DC 소식

## NEWS LETTER 제 2호 발간



## 박윤수 동문 퇴임 축하연 은퇴와 새로운 출발 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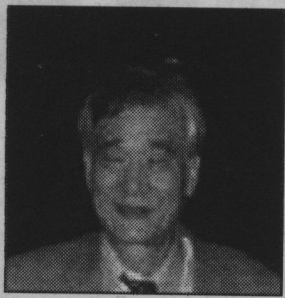
지난 2월로 박윤수 박사(물리, 48입)는 40년간 몸담았던 직장 미

생 70부터 라는 말이 있듯이 저의 공직생활 은퇴를 새로운 삶의 시

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저에게 계속 일하라고 격려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이웃과 사회를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라는 인사로 축하연을 열어준 지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방은호 동문이 친구 대표로, 이내원 동문이 서울대 동창회 대표로 인사말을 전했다. 박 동문은 1952년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초를 닦는데 중요한 자문역할을 한 공로가 인정되어 1997년에는 한국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였고 작년 12월에는 재미한국계 시민연맹(LOKA-USA, 전국의장 신현웅, 회장 김밀러) 만찬에서 커뮤니티 봉사상을 수상하였다.

워싱턴 DC 지역 동창회(회장 이영목, 공대 63년졸·사진)는 1년에 4회씩 발행예정인 워싱턴 지역 소식지 2호를 (NEWS LETTER, Vol. 1:2, Spring 2003, 발행인 이영목/편집인 정지은, 음대 92년 입) 3월 24일자로 발간하였는데, 정지은(성악 92)동문의 '아름다운 사람들'과 백순(법대 58입)동문의 '워싱턴 지역 서울대 동창회의 흐름'과 방은호(약대 45년졸)동문의 '동문회의 珍珠' 등의 글과 오는 4월 26일(토) 12시에 열리는 2003년 서울대 동창회장배 정탈 골프대회등 동창회와 동문들의 소식을 6면에 담고 있다. 아직까지 워싱턴 DC지역 동창회 NEWS LETTER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워싱턴DC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of Greater Washington, P.O.Box 1273, Annandale, VA 22003, ☎ 703-307-3123)로 연락하면 된다. 또, 주소변경, 경



조사, 광고 및 소식이 있으면 언제나 유희렬 총무에게(☎703-307-3123) 로나 E-mail (ryuh@gocom)로 제보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또, 동창회는 동문들로부터 NEWS LETTER 발간과 동창회 제반사업을 위하여 동창회비(연 \$30), 이사회비(\$100, 이사회비를 낼 경우 일반회비는 면제) 및 찬조금을 접수하며 NEWS LETTER에 게재할 광고비(전면 광고 \$400, 반면 \$200, 1/3면 \$150, 1/4면 \$100)도 접수한다. 광고 게재시 광고주는 광고문안을 가급적이면 인쇄가능한 형태로 하여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 한동대 김영길 총장 초청 간담회

2월 3일 비엔나에 있는 와싱턴중앙장로교회(담임목사 이원상)에서 한동대 미주후원회 워싱턴, 볼티모어 지역 본부(회장 진금섭·사진)와 공동으로, 한동대학교(경북포항소재) 김영길 총장 내외 초청 간담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진금섭 동문, 축사를 한 이영목 회장을 비롯하여 많은 서울대 동문들이 참석하였다. 김영길 총장의 소개자, "See the

Invisible, Change the world"가 저자의 사인과 함께 배포되었으며 한동대 학생들이 제작한 학교 소개 비디오 상영도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본국 학교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김영길 총장은 미주 최초의 후원자로서 워싱턴지역 후원회가 한국이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97, 98년 한동대에 큰 힘이 됐다고 치사하고 워싱턴지역 후원자들



과 교계의 기도, 후원에 감사했다. 연락처

The Handong International Foundation Inc. (HIFI) Washington-Baltimore chapter 6600 Ptruck Ct., Centreville, VA 20120-3754 (703-631-0631)

##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 주최 조영남 콘서트 성황리에 마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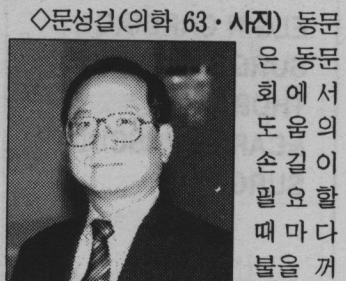
지난 3월 2일 저녁 7시, 페어팩스 소재 조지 메이슨 대학 콘서트홀은 한인들로 자리가 가득 메워졌다. 이민 백주년 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워싱턴DC지역동창회에서 중심이 되어 적극 후원한 조영남 콘서트가, 참석한 모든 한인들의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워싱턴지역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

로 마련된 이번 콘서트는, 저렴한 입장료와 적절한 초대가수 선정, 그리고 지역 오케스트라의 협조로, 지역 한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축하할 수 있도록 한다는 행사의 취지가 그대로 잘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은호 이사과 콰테조 부회장 등 음악위원들의 발로 댄 수고-팝플렛 제작에서부터 티켓판매, 오케스트라 구성, 음악편곡에 이르기까지-가 진가를 발휘한 공연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이모저모로 참여하고 후원해 준 동문들이 없었다면 성공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에 다시 한번 우리 동문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 회원동정

◇김학성(약학 81) 동문이 원광대 약대교수로 초빙되어 귀국하였다

◇공순옥(간호 66) 동문은 CCBC에엑스 캠퍼스와 UMAB에서 강의하며 심리상담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워드카운티 한인회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3월 23일 취임식을 가졌다.



◇문성길(의학 63·사진) 동문은 동문회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불을 꺼주니, 문성길 동문은 소방수인가보다. 작년 음대 재학생 순회연주회 때도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몸이 좋지 않아 급히 문동문의 도움으로 링겔주사를 맞고 건강을 회복한 바 있었는데, 이번 백주년 기념사업회의 콘서트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조영남씨도 공연 당일 무리한 일정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문 동문의 신세를 졌다. 급할 때마다 우리 동문들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문동문께 감사!

### 정우순 동문 돕기

뉴스레터 1월호에 정우순 동문(체육교육, 57)의 투병 소식이 게재된 후, 정 동문을 알고 있는 여러 동문들이 염려하고 있는 중에 정우순 동문의 외로운 싸움을 격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 2월 초 이영목 회장의 호소편지가 발송된 후 많은 동문들이 관심을 보여 주었으며, 스물 여섯 명이 후원금을 보내와 동문회에서는 총 4천 4백 80불의 금액을 정 동문 앞으로 보낼 수 있었다. 병마와 싸우는 정 동문,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보내온 모든 동문에게 감사드립니다.

### 사범대, 가정대 합동 춘계모임

사범대학 동문회(회장 정요섭)는 오는 4월 27일(일) 오후 4시 김인순 동문(가정, 70)의 자택에서 가정대 동문과 함께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골프 티칭프로인 사범대 동문회 정요섭 회장이 골프 입문자와 중급자를 위한 특강을 할 예정이어서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모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범대와 가정대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 김인순 동문의 주소와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7167 Pindell School Rd. Fulton, MD 20759

◆각 단과대학동창회 모임시 촬영한 사진을 재미서울대 동창회 편집실로 보내주시요.

### 골프 동호회 춘계골프대회

유난히도 눈이 많았던 긴 겨울을 지나고 새 봄을 맞아 골프 동호회(회장 김국)에서는 오는 4월 6일 12시 버지니아에 위치한 Bris

ol Manor에서 춘계골프대회를 개최한다.

회비는 70불(저녁 포함)이며 4월 1일까지 참석여부를 알려주기 바란다. 문의는 김국회장(703-304-2129)

### 약대동창회 야유회

5월 31일 12시  
Rockville Rock Creek Park

약대동창회(회장 진학송)는 오는 5월 31일 12시 락빌에 있는 Rockville Rock Creek Park

에서 야유회를 갖는다. 회비는 없으며, 한 가족 당 한 접시씩 음식을 만들어 와서 나누어 먹으며 함께 봄날을 즐길 예정이다. 약대 동창 가족들의 많은 참석을 기대한다. 문의는 장성훈 총무(301-827-2177)에게로



### 뉴잉글랜드 소식

## 미주한인 100주년 기념 사업회 학술강연회 개최

3월 22일, Lexington, MA 소재 소망감리교회  
미주류사회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한국인상

뉴잉글랜드 이민백주년기념사업회(회장 박경민, 의대 53입)에서는 지난 3월 22일, Lexington, MA 소재 소망감리교회에서 기념 강연 및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가졌다. 여러 연사들의 강연이 있은 후, 신상철 문화위원장(공대 74 입)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경민 회장은, "우리 한민족이 미국주류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식(2세)의 교육을 중요시하여야 하고, 시민으로서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또 지역사회봉사에 열심히 참여하여야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민백주년기념사업회에서는 앞으로도 유길준 선생(사진·한인 최초의 유학생으로 보스턴 에

883년에 도착) 추도회, 기념 만찬, 한인음악회 등등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 계획하고 있는데, 본 지부 동창회의 여러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서 열심히 활동하여 오고 있으며, 박경민 회장 이외에도 수석부회장인 정정욱(의대 60년 입) 동문과 김은한(의대 60년 입) 동문 등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 (투고자 : 윤상래 재미동창회보 뉴잉글랜드 특과원)



① 동창회 명예회원인 백리선생의 이민사 강연 ② 신상철(공대 74년 입) 문화위원회 위원장, 박경민(의대 53년 입) 회장이 연좌 토론회에서 자신의 소감을 밝히고 있다. ③ 박경민(의대 53년 입) 백주년 기념사업회 회장이 정정욱 부회장(의대 60년 입)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④ 박경민(의대 53년 입) 이민 백주년 기념 협회장의 인사말씀

### 訃告

#### 洪春澤 동문 (문리대 정치학과 60년졸) 別世

洪春澤 동문이 지난 3월 7일 워싱턴 DC 근교의 베델교회 부설 베델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영여 강의도중 뇌졸중으로 향년 65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국회부의장 수석비서관을 지낸 후 75년 도미, 23년간 볼티모어 카운티 교육청에서 재직하였으며 ESOL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였고, 베델 한국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홍영희씨와 1남 1녀(근배, 수봉)가 있다. 엘리콧 시티 소재 베델교회에서 3월 10일 영결예배 후 유해는 티모니움 소재 무궁화 동산에 안장되었다. 워싱턴 DC 동창회와 재미총동창회는 유가족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 워싱턴DC 공대 동창회 신년모임

지난 2월 8일 공대 동창회(회장 장효강)는 포토맥에 위치한 장효강 회장 자택에서 신년모임을 가졌다. 70여명 가까운 동문 부부들이 참석하여 새해 더욱 우의를 돈독히 할 것을 다짐하였다. 특히 이날 모임에서는 시사에서부터 과학,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3시간이 넘게 진지한 대화가 오고가서, 한 동문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보다 생산적인 동문회로 자리를 잡아가는 초석이 된 듯 싶어 무척이나 즐거웠다."고 이날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공대 동문들은 장효강 현 회장의 성실한 봉사를 높이 사서 회장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학,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3시간이 넘게 진지한 대화가 오고가서, 한 동문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보다 생산적인 동문회로 자리를 잡아가는 초석이 된 듯 싶어 무척이나 즐거웠다."고 이날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공대 동문들은 장효강 현 회장의 성실한 봉사를 높이 사서 회장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이재신 회장 새봄의 인사  
동문여러분을 푸른 잔디위의 白球 대회로 초대합니다.  
2003년 5월3일

뉴잉글랜드 서울대학교 동창 여러분, 올해 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예년보다 더 추운 듯합니다. 동문 여러분들은 가나간 뉴잉글랜드의 겨울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동문 여러분에게, 특히 골프를 즐기시는 많은 동문들에게, 추위를 녹일 수 있는 좋은 봄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 새 봄을 맞이하여 서울대학교동창회 뉴잉글랜드지부에서는 동창 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뉴잉글랜드에서 경관이 좋고 course가 좋은 것으로 잘 알려진 Massachusetts주의 Lakeville에 위치한 private 골프 코스인 Le Baron Hills C.C. 에서 아래와 같이 열릴 예정입니다. 동창여러분과 함께 배우자나 친지들과 白球를 날리면서 뉴잉글랜드의 아름다운

봄을 마음껏 만끽하시고, 골프가 끝난 후에는 아름다운 four star restaurant에서 마련하는 dinner로 좋은 하루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골프대회에는 참가 인원이 40명으로 제한됩니다. 참석하실 동문께서는 참가하실 인원을 3월말까지 변종원(공70입) 총무에게 연락을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동창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晚福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03년 2월 28일  
뉴잉글랜드지구 서울대학교 동창회장 이재신 드림

#### 2003년 뉴잉글랜드 동창회 봄철 白球대회

- ◆장소: Le Baron Hills C. C. (183 Rhode Island Rd., Lakeville, MA 02347) (508) 923-6000
- ◆Tee Time: 2003년 5월 3일 토요일 정오
- ◆회비: 일인당 100불 (골프비, Cart비, 점심, 만찬 포함)
- ◆참석자 40명은 先着順으로 참가신청을 접수함
- ◆접수마감: 2003년 3월 31일
- ◆참가신청 접수처: 변종원 총무 (508) 366-2743

Chongwon Byun  
22 Crestview Dr.,  
Westboro, MA 01581  
email: chongwon252@yahoo.com

◆白球대회 준비위원: 이재신, 정정욱, 윤희경, 한병의, 변종원

## 祝發展

자랑스런 우리동문

가족들의 삶을 기록하는

재미서울대 동창회보

일리노이주  
심장외과, 흉부외과, 혈관외과

ELGIN CARDIAC SURGERY, S.C. THORACIC & CARDIOVASCULAR SURGERY

915 Center Street, #1003  
Elgin, IL 60120  
Tel: (847) 695-1620  
Hyun Jae Ihm, M.D.  
임현재(의 65졸)  
Joong Haeng Choh, M.D.  
조중행(의 69졸)  
W. Craig Thatcher, M.D.  
C. Steimle, M.D.  
T. James, M.D.

## 수의대 62년 입학 동기동창 소식

人情이 메마른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4.19, 5.16등의 정치적인 혁명을 치루면서 농과대학에 과편입으로 강등하는등의 갈등 속에서, 함께 수원으로 입학하여 팔자에도 없던 농대생 중에서 庶子(?) 취급을 당하면서도, 굳은 결속과 끊임없던 鬪爭(?)으로 푹푹뭉쳐서 대학생활을 지냈던 수의대 62년 입학 50인의 동기들! 그 중에서 6명이 미국에 이주하였는데 한 명은 이미 他界를 하였고, 남은 5명중에서 4명이, 지난 2월 17일의 미국의 Presidential Holiday Weekend를 맞아,

ouisiana 주립 대학교 수의대 병리학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조두연 박사의 자택에서 모임을 가졌다.

실속이야 골프를 실컷 쳐보는 것이었지만, 더 크게는 그 동안의 그리웠던 情과 또 학부시절의 옛날로 돌아가 다시 한번 찰떡같이 뭉치고자하였다. 이 모임을 위해서 서울에서도 많은 동기들이 함께 자리를 같이하면서, 전화로나마 서로의 궁금한 소식을 들어보는 등, 友情이 넘치는 화목의 시간을 가졌다. (투고자 : 윤상래 재미동창회보 뉴잉글랜드 특과원)



수의대 62년 졸업동기인 이연상(오하이오주에서 사업경영), 조두연(Louisiana 수의대 교수), 주한수(Minnesota 수의대 교수), 윤상래(Massachusetts에서 동물병원 경영) 동문이 옛정을 다지는 한때



### 시카고 소식

## 동창회 제 1차 이사회

### 2003년 3월 23일, 96명의 이사가족 참여

시카고 동창회 22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젊은 紅衛兵 친위대로 "시카고 동창회 재건 최고위원회"를 구성한 Generalissimo 張의 "긴급조치령 1호"에 의하여 비상(?) 소집된 제 1차 이사회에 96명의 이사가족들이 참석하여 강영국 부회장의 사회로 작년 동창회 송년 총회를 방불케하는 滿場의 성황을 이룬 가운데 금년도 동창회 행사와 사업계획(연박스의 행사 계획표 참조)을 심의하였다. 내달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羅城에서 열릴 재미 총동창회 제 12차 평의

원회에 파견할 시카고 평의원은 5인인데 장기남회장(당연직, 2002.1.1 -2003.12.31), 전현일(2003.1.1 -2004.12.31), 강화영(2003.7.1 -2005.6.30), 소진문(2000.7.1 -2003.6.30), 송재현(2001.7.1 -2003.6.30) 평의원이며 금년 6월 30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소진문 및 송재현 평의원 후임으로 김정주(2003.7.1 -2005.6.30) 및 박영규(2003.7.1 -2005.6.30) 동문을 금년 7월 1일부터 2년 임기가 시작되는 시카고 평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또,



시카고 동창회 임원들 좌로부터 간사 심명원(음대), 부회장 최희수(문리대), 부회장 강영국(수의대), Mrs. 강영국, Mrs. 장기남, 회장 장기남(문리대), 총무 사남순(간호대), 간사 김재환(사대), Mrs. 김재환

차기 부회장 선출을 위한 인선위원회와 장학생 선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 4월 27일 일요일 열릴 제 2차 임원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시카고 동창회 중흥을 위한 무거운 과제를 짊어진 임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삼정교육대식" 강행군으로 오전 10시부터 白球대회를 Oak Brook Hills 골프장에서 갖기로 하였고, 제 2차 임원회는 낮에는 놀고, 밤에는 일하는 정신으로 오후 6시부터 전현일 수석부회장 댁에서 갖기로 하였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전영식(의대 78년 졸)동문은 서울대 동창회를 韓人社會에 奉仕하는 조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을 역설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동문가족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사회에서 재미서울대총동창회 현황을 설명하고 시카고동창회의 지원에 감사하는 구경회(의대 65년졸, 재미서울대총동창회 사무총장)동문

### 2003년 동창회 행사 계획

- ♣2월 9일(일) 오후 3시/ 제 1차 임원회 (장기남 회장자택)
- ♣3월 23일(일) 오후 6시/ 제 1차 이사회 (Radisson Hotel)
- ♣4월 27일(일) 오후 6시/ 제 2차 임원회 (전현일 수석부회장 자택)
- ♣5월 24일(토)/ 춘계골프 대회 (Willow Crest 골프장)
- ♣5월 30일-6월 2일/ 미주총동창회 평의원회 (L. A. Wilshire Plaza Hotel)
- ♣6월 21일(토) 오후 5시/ 하계 야유회 (Ravinia Park)
- ♣8월/ 제 3차 임원회 (한재은 고문 자택)
- ♣9월 13일(토) 오전 11시/ 추계골프 대회 (Willow Crest 골프장)
- ♣10월 4일(토)/ 제 2차 이사회 (Oak Brook Hills Resort Hotel)
- ♣10월/ 제 4차 임원회 (김영 재무 자택)
- ♣11월 29일(토)/ 총회 및 송년회 (Radisson Hotel)



### 동창회 사업광고

1. 오는 12월말에 열릴 연말 파티에는 새로운 program으로 slide show를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동문들의 어렸을 때의 사진이나 campus에서 찍은 기념 될 만한 사진들이 있으면 저희 임원들에게 미리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심명원(음대)이사(847-478-8939)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 올해 주소록을 새로 발간할 예정이오니 동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소 변경이 있으신 분들에게서는 이형준(농대) 간사(773-478-3842)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시카고 지역 동창회 Web Site 가 2000년도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동문들의 많은 이용과 건설적인 비평을 부탁드립니다. [www.snuaachicago.org](http://www.snuaachicago.org)
4. 2003년도 시카고 지역 동창회비(\$30)는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Mrs. Young Kim / Treasurer, SNUAA  
24 Concord Drive, Oak Brook, IL60523, 630-655-2320

## 동창회 기구 임원 선출 제 1차 이사회에서 선임

- \* 신임 장학금 관리위원 2004- 구경회(의대) 강화영(2003-2005)- 김호범(상대) 노재욱(의대) 김경숙(공대) (문리대) 최일주(공대) 이윤모(농대) 한의일(공대) 김인원(의대)
- \* 신임 장학금 선발위원 (2003-2004)- 조대현(공대) 이광선(의대) 이종일(의대) 박연희(간호대) 김태기(의대)
- \* 신임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평의원(2년직)- 김정주(문리대) 7/1/2003-6/30/2005 - 박영규(농대) 7/1/2003-
- \* 신임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평의원(2년직)- 김정주(문리대) 7/1/2003-6/30/2005 - 박영규(농대) 7/1/2003-

### 동창회 이사(2003-2005년도)명단

- ▶선출이사 30명 명단  
강영국(수)강창만(의)김봉현(법)백준철(공)김운경(치)김영자(간)곽영로(수)김정주(문)김태기(의)김영호(의)박중희(의)김용주(공)배건재(공)송순영(문)송재현(의)심기창(문)전영식(의)정경근(농)김병윤(문)노갑준(의)이승자(사)박연희(간)임근식(문)임현재(의)전현일(농)이설희(간)진관보(의)최길용(문)최순분(간)심명원(음)
- ▶당연직 이사 15명 명단(\*9명은 선출 이사겸 당연직 이사)  
\*장기남(문, 회장) \*전현일(농, 수석부회장) \*강영국(수, 부회
- 장) 최희수(문, 부회장) \*박홍근(공) 유태원(농) \*최길용(문) \*송원희(문) 지명식(사) \*곽영로(수) 김인상(약) 이종일(의) 이정숙(간) \*서승환(치) \*김선영(음)

### 이기억박사 수술후 회복중

시카고 초대회장을 역임하신 이기억(문) 박사께서 심장수술을 받으신 후 자택에 요양 중입니다.  
860 N. Dewitt Pl. #1808  
Chicago, IL 60611  
Tel. 312-787-7060

### 조중행, 박숙동문 부부 귀국 영전

동창회 부부동문으로서 시카고 동창회를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던 조중행(의대 69년 졸, 시카고 동창회 理事), 박숙(의대 70년 졸, 동창회 理事 및 부회장 역임) 부부 동문이 이번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서울대부속 분당병원에 副院長으로 榮轉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창회에서는 두 분께 감사패를 증정 하였습니다.



장기남회장으로 부터 감사패를 받는 박숙, 조중행 동문 부부

### 조수미 동문 시카고 공연

#### 2003년 5월 11일(일) 오후 7시 30분

미주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여 미주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시카고 지역동창회가 후원하는 조수미동문(음대)의 시카고 공연이 2003년 5월 11일(일) 오후 7시 30분에 CHICAGO ORCHESTRA HALL (220 S. Michigan Ave., Chicago, IL)에서 있을 예정이다.



## 祝發展

知性人의  
友情을 글로써  
나누는  
재미서울대  
동창회보

### Park's Accounting & Tax Service

5850 N. Lincoln Ave.  
Suite 109 Chicago, IL 60659  
Tel. 773-271-2626(사무실)  
847-985-0618(자택)  
朴泳圭 (농대 61졸)  
Stephen Y. Park



# 모교소식

## 제57회 학위수여식

### 총 5천5백3명 학위 받아

鄭총장 "굵은 길 아니면 가지 않는 용기 필요"



모교(총장 鄭雲燦)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 모교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2002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孔大植부회장, 李世震사무총장을 비롯해 모교 權壽赫·李賢宰·朴奉植·李基俊전임 총장과 鄭雲燦총장, 鄭明熙부총장, 白忠欽대학원장, 李喜祥기성회장, 보직교수, 학부모 등 2만여 명이 참석했다.

金宇哲교무처장의 학사보고에 이어 박사 4백44명, 석사 1천7백38명, 학사 3천3백21명 등 총 5천5백3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鄭雲燦총장은 식사를 통해 『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여러분들이 원칙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는 커다란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므로,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올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굳센 용기를 여러분들께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대인의 훌륭한 두뇌가 우리 사회 공동의 이익과 자산

으로, 또 소외된 이웃들의 빛과 소금으로 환원되는 지점에 진정한 정신이 자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당부한다』고 역설했다. (식사·축사 요지 참조)

이어 음대 성악과 朴世源교수가 축가로 「희망의 나라로」를 선사했으며, 졸업생을 대표해 의대를 수석 졸업한 羅偵王양이 인사를 했다. 특히 이날 졸업식에서는 崔仙勳(미대 서양화과) 동문이 51년만에 졸업장을 받았다. 52년 미대에 입학한 崔동문은 졸업을 1년 앞두고 가정형편상 휴학을 해야 했으며, 2001년 재입학 형식으로 복학을 해 감격적으로 학사모를 쓰게 됐다.

또 전체 16개 단과대 중 10개 단과대에서 여자 수석이 배출됐으며, 전통적으로 여학생이 적은 법대, 의대, 치대에서도 여학생이 수석을 차지했다.

각 단과대학별 수석과 차석 졸업생에 대한 총장상과 동창회 장상 시상도 거행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인문대 : 한경진-박미선 △사회대 : 황유리-이승호 △자연

대 : 권혁훈-허 단 △간호대 : 조원임-한수진 △경영대 : 이성욱-김재립 △공대 : 홍성근-이미정 △농생대 : 박지현-기창석 △미대 : 손형우-정연우 △법대 : 김혜진-김 진 △사대 : 정지현-김보연 △생활대 : 서정혜-문성윤 △수의대 : 오세운-대상자 없음 △약대 : 전공주-강태경 △음대 : 강상미-정소윤 △의대 : 나정임-최종원 △치대 : 이정은-윤현민

### “신입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교 200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월 26일 거행돼 동창회는 5천5백3명(학사 3천3백21명, 석사 1천7백38명, 박사 4백44명)을 신입회원으로 맞이했다. 이로써 동창회 총회원 수는 27만6천2백95명(준회원, 단기과정 포함)으로 늘어났다.

### 단과대학(원)별 회원현황

구 분	2월졸업	총회원
인 문 대 학	224	8,832
사 회 과 대 학	349	11,372
자 연 과 대 학	229	8,744
생 활 과 대 학	77	3,331
간 호 대 학	51	3,041
경 영 대 학	182	5,325
공 과 대 학	830	35,713
농 업 생 명 대 학	305	18,486
문 리 과 대 학	-	9,731
미 술 대 학	103	4,378
법 과 대 학	191	14,350
사 범 대 학	271	23,170
상 과 대 학	-	6,723
수 의 과 대 학	3	1,961
약 학 대 학	81	5,631
음 악 대 학	153	6,414
의 과 대 학	173	10,079
치 과 대 학	99	5,498
대 학 원	2,005	66,493
경 영 대 학 원	-	701
교 육 대 학 원	-	653
보 건 대 학 원	55	2,679
사 범 대 학 원	-	508
신 문 대 학 원	-	264
행 정 대 학 원	47	3,822
환 경 대 학 원	75	1,882
소 계	5,503	259,781
준 회 원	-	13,338
(단 기 과 정)	499	9,118
총 계	-	276,295

## 수의과대학

### 관악으로 이전... 신축교사 준공



수의과대학(학장 李興植) 관악캠퍼스 준공식이 지난 2월 12일 수의대 대강당에서 모교 鄭雲燦총장, 鄭明熙부총장, 李喜祥기성회장 등 모교 관계자와 수의대동창회 李佑宰회장, 류리나코리아 金基鏞회장 등 동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스 시대를 맞아 자연과학, 공학 및 사회과학 등 인접학문 분야와의 본격적인 학제적 협력을 통해 세계 정상의 교육력과 연구력을 발휘하는 획기적 발전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李興植학장은 『수의학은 인류 보건향상과 질 좋은 값싸며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수의대 교직원 모두는 앞으로 이 건물 일 뿐 아니라 최우수 연구집단의 전담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공식에 앞서 「21세기 수의

학교육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준공 기념 국제 심포지움이 열렸다. 日훗가이도대 후지타 부총장과 美워싱턴주립대 수의과대 베일리 학장이 각각 21세기 동·서양에서의 수의학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동경대 농생명과학부 하야시 학장이 「아시아에서 최고의 권위와 역할을 맡아온 서울대와 동경대가 어떻게 상호 협력하여 국제 수의학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문제제기를 했으며, 李학장은 최근 수의학 연구 및 교육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이에 대한 대책과 전망을 제시했다.

모교 캠퍼스종합화 계획에 따른 사업의 일환인 수의대 관악캠퍼스 이전은 총 1백74억여 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98년 12월 착공돼 올해 1월 17일 이전을 완료했다.



### 鄭雲燦총장 졸업식사 요지

졸업이란 한 단계의 끝이자 새로운 단계의 시작입니다. 특히 대학에서의 졸업은 학생신분을 벗어나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제부터는 삶과 노동, 학문과 직업, 자율과 책임에 대해 한층 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배우는 데만 골몰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배운 것을 실행에 옮겨 자신을 개발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적극적인 길을 모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서울대학교가 역사와 사회에 책임을 지는 지성인을 길러내는 교육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믿어왔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과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자라온 우리 서울대학교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묵묵히 헌신할 수 있는 참된 일꾼들을 길러내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학생이 우리 대학에 입학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을 능력과 더불어 책임감을 갖춘 진정한 지성인으로 키워 낼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교양과 능력뿐 아니라, 책임감과 봉사정신까지 갖추었다는 평가가 자리잡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맡겨진 교육의 소임을 적절하게 달성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참된 일꾼들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능력은 있으나 윤리와 책임감이 결여된 기형적 전문가는 결코 참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간혹 우리 서울대학교를 향해 쏟아지는 질책이 과연 어디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혹은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그것은 자랑스럽게 여겨야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일생의 자랑으로 여긴다 해서 아무도 나무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부심이란 윤리와 책임감을 포괄하는 것이며, 이 점에서 본다면 단순한 오만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귀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나 올바른 방법이 아니면 취하지 않는다(富與貴 是人之所欲也 不以其道 得之 不處也)』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익보다 더 우선하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부와 이익을 무조건 백안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부나 출세를 인생의 제일 원리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흔히들 사회는 정글과 같다고 말하지만, 따지고 보면 나름대로 원칙이 있고 이를 살아가는 바른 길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여러분들이 원칙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는 커다란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올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굳센 용기를 여러분들께 기대해 봅니다.

참된 지성인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학교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각 계각층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려는 자세, 또한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흔쾌히 도움을 주는 자세-바로 이것이 참된 지성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마음이 결여된 채 원칙만을 고수하는 것은 자기만의 독선개 빠지기 쉽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졸업에 즈음하여 여러분들은 각자 많은 생각과 꿈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서 그 동안 갈고 닦았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취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는 동시에 서울대학교도 그 이름을 더욱 빛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첫발을 내디딜 우리 사회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좀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의 복잡다단한 상황은 앞날을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사회의 문턱으로 들어가려 하는 여러 졸업생들에게 특별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높은 차원의 역사적 비전과 사회적 사명감을 갖고 이 시대, 이 사회의 역사적 과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두 팔을 활짝 벌려 여러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희망에 찬 가슴으로 그 품에 뛰어들기 바랍니다. 봄을 맞아 새싹이 돋기 시작하는 관악캠퍼스의 아름다운 정경처럼, 여러분들을 맞은 우리 사회의 여기저기서 기쁨과 희망이 가득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 冠岳大賞 수상자 공적 및 수상소감

지난 3월 21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5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을 수상한 2명의 동문과 1개 단체에 대한 공적사항과 수상소감을 소개한다.

## 참여 부문 경원대학교 李吉女총장



▲1957년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길의료재단 이사장과 가천문화재단 이사장, 경인일보 회장 등을 맡고 있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모교 의과대학 동창회장을 맡으며 의과대학 동문들의 숙원사업인 함춘회관이 준공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분당 서울대병원의 건립과 개원을 위한 후원에도 정성을 다해 왔다.

또한 본회에 모교 재학생을 위한 특지 장학회도 설립해 후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모교와 동창회를 위한 공적 외에도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을 설립해 양평, 철원 등지에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계층을 위해 의료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쳤으며,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와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 한센국제협력후원회 등을 설립, 지원함으로써 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한편 학교법인의 경영을 통해 인재 양성을 위한 중·고등교육을 위해서도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李총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저에게 이런 영광을 안겨다주고 지난 삶을 반추하게 해주신 동창회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그리고 동창회 가족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이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하고 「그동안 모교는 학문과 인격의 토양이자 우리에게 원대한 꿈을 심어준 마음의 고향이며, 참다운 인술의 길로 이끌어준 스승이자 어머니였고 박애, 봉사, 애국이라는 가치관을 세워준 기반이었다」고 답했다.

또 「언제나 모교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사회에 베풀고자 노력했고 서울대인의 긍지를 지키며 최고의 엘리트답게 삶을 영위하고자 절제와 봉사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고 전했다.

더불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닌 심리적인 세월은 찰라에서 영원까지 마인드 컨트롤에 의한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믿고 있어 아직도 청장년 못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며 「이 열정과 함께 모든 존재는 자기 자리에 제대로 있을 때만이 의미가 있고 아름답다는 말처럼 서울대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동창회의 역사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 협력 부문 (주)포스코(대표 : 姜昌五사장)



▲(주)포스코는 지난 30여 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으로서 투명·정도·책임경영을 통해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선도해 왔으며, 기업의 공익적 책무수행에도 타의 모범이 되었다.

특히 (주)포스코는 모교내에 생활체육관을 건립·기증함으로써 교직원에게는 후생복지를, 모교 재학생에게는 건전한 문화교양인으로서 전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다.

또한 모교에 포스코 연구기금을 출연해 제어계측, 토목공학, 금속공학분야 학문과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한 바가 크다.

▲이날 (주)포스코를 대표해서 수상한 姜昌五사장은 수상소감에서 「오늘날 우리 기업들이 세계무대에 진출해 선진 글로벌 기업들과 당당하게 경쟁하게 된 것도 서울대 동문 여러분들의 창조적인 지성과 도전정신에 힘입은 바 크다」며 「우리의 작은 정성이 서울대학의 발전에 조그만 밑거름이 됐다면 우리에게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고 보람」이라고 밝혔다.

## 영광 부문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趙完圭이사장



▲1952년 문리과대학 생물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한국생물산업협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趙이사장은 우리 나라 최초의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를 모교 연구공원내에 유치·설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과 정성을 다함으로써 백신연구 개발과 국제 보급을 통해 인류의 보건증진과 의학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이학분야의 저명한 학자로서 교육과 연구를 통해 우리 나라의 기초과학 학문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특히 모교 제19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민주적 학사운영과 대학문화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다.

▲趙이사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전임 총장으로서 모교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하며, 총장 재임 당시 나라 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일한 것뿐인데, 이렇게 관악대상이라는 영광을 안게돼 곤혹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하고 「이런 자리를 통해 국제백신연구소를 알리고 지원을 요청할 기회를 갖게 돼 기쁘고 앞으로 연구소를 위해 동문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제 5회 관악대상 시상

## 관악대상 참여상 이길녀(의대 57년 졸)동문 협력상 (주)포스코, 영광상 조완규(문리대 52년졸)동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임광수, 공대 52년 졸)는 지난 3월 21일 신라호텔 다이내스티 홀에서 열린 2003년 동창회 신입회원경 환영회 겸 제 35회 정기총회에서 제 5회 서울대 총동창회 관악대상 시상식을 갖고 금년도 수상자로 참여부문에 경원대 이길녀(57년 의대졸)총장, 협력부문에 (주)포스코 (대표 강창오사장), 영광부문에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조완규(52년 문리대졸)이사장을 시상했다(위의 수상자 공적 및 수상소감 및 아래의 시상식 후의 사진참조).

이를 위하여 총동창회는 지난 2월 28일 한국인문재단 목련실에서 제 5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1월 31일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참여부문에 3명, 협력 부문에 1개 법인단체와 2명, 영광부문에 6명을 추천받았다. 지난해 수상하지 못한 후보가 자동으로 재추천됨에 따라 전체 후보자는 참여부문 3명, 협력부문 1개 법인단체와 2명, 영광부문 12명이 추천됐다. 이날 회의에는 林光洙회장과 孫一根운영위원장을 비롯해 白文基·楊銀淑·韓斗鎭·金哲洙·朴世熙·金讚

淑·李炳均·李世巖운영위원, 朴英俊감사, 모교 柳根培 기획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李世巖 사무총장의 공적사항 보고 후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장시간 후보자들을 검토한 끝에 참여부문에 경원대 李吉女 총장, 협력부문에 (주)포스코, 영광부문에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趙完圭이사장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자 선정을 마친 후에는 「관악대상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제진 사무총장은 「관악대상 창설 당시 용품성있게 운영하자는 의미에서 규정을 자세하게 기술하지 않았다」며 「4년이 지났으므로 개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논의 결과 제 7조 제 3항 「당해년도 수상에 탈락한 경우에 계속 후보로 추천된 것으로 본다」는 항목이 영구히 후보로 남을 수 있다는 오해의 여지가 있어 「추천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라고 개설했다. 이어 운영위원회 규정과 수상자 선정을 포괄하고 있는 제 8조를 제 8조 운영위원회 구성「과 제 9조 수상자의 선정」두 부분으로 분리했다. 제 8조 제 1항 「관악대상 운영위원회를 동창회장 소관하에 둔다」를 「관악대상운영위원회를 동창회

에 두며 위원수는 30명 내외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개정, 운영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늘리고, 모교 학생처장화·기획실장·서울대 발전기금 상임이사를 당연직 운영위원으



뒷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孫一根상임부회장, 林光洙회장, 鄭明熙부총장, 金讚淑부회장, 국제백신연구소 朴相大특별고문, 趙完圭이사장, 한국차문화협회 李貴禮이사장, 李吉女총장, 姜昌五사장 부부.



# 동 정

## 수 상

▲趙東元(58년 法大卒·민주평통 자문위원) = 지난 1월 8일 평화통일기반 조성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음.

▲趙東一(62년 文理大卒·모교국어국문학과 교수) = 지난 2월 11일 프랑스 파리 앙데탈리에 클럽에서 한국 문화를 프랑스에 알리는데 기여한 공로로 2002년 한불 문화상을 수상함.

▲金炳斗(65년 敎大院卒·前강원도 교육감) = 지난 2월 11일 교육인적자원부 대회의실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음.

▲孫 郁(67년 工大卒·삼성종합기술원장) = 지난 2월 12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수여하는 기술경영인상(CTO부문)을 수상함. 또 3월 1일 홀리데이인 서울 무궁화홀에서 3·1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44회 3·1문화상(기술상)을 받음.

▲郭柄善(70년 師大卒·前한국교육개발원장) = 지난 2월 11일 교육인적자원부 대회의실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음.

▲鄭忠始(76년 工大卒·오미아

코리아 사장·本會 副會長) = 지난 2월 11일 노동부로부터 쾌적하고 안전한 사업장으로 선정돼 「CLEAN 사업장 인정서」를 받음. 또 2002년도 강원환경대상 기업체부문 최우수 기업상을 수상함.

▲李秉澤(79년 工大卒·전남대학교 교수) = 최근 광관련 연구를 통해 광산업 육성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광주시민대상(학술부문)을 수상함.

▲金在熙(80년 工大卒·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 지난 1월 23일 원자로 자동탐상 시스템을 개발한 공로로 한국과학재단과 서울경제신문사가 주관하는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을 수상함.

▲金大植(85년 自然大卒·모교물리학부 교수) = 최근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수여하는 제6회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됨.

▲金澤辰(89년 工大卒·엔씨소프트 사장) = 지난 2월 12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수여하는 기술경영인상(중소기업 최고경영자부문)을 수상함.

▲강원희(11기 APICP·인터뷰 대표) = 지난 2월 12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수여하는 기술경영인상(중소기업 최고경영자부문)을 수상함.

## 이동·선임

▲金城完(63년 文理大卒·삼양사 고문·유태대 석학교수) = 최

근 생체고분자 인공장기 연구분야의 성과를 인정받아 미국 국립공학학술원(NAE) 종신회원에 선출됨.

▲孫吉丞(63년 商大卒·SK그룹 회장·本會 副會長) = 지난 2월 7일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총회에서 제28대 회장에 취임함.

▲柳莊熙(63년 商大卒·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 지난 2월 13일 연세대 상경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총회에서 제33대 회장에 취임함.

▲高仁錫(64년 工大卒·前한국전력공사 부사장) = 최근 대한전기학회 제32대 회장에 취임함.

▲許永燮(64년 工大卒·녹십자 회장·本會 副會長) = 지난 2월 12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총회에서 제4대 회장에 선출됨.

▲李炯均(64년 文理大卒·한국신문방송인클럽 회장·本회 부회장·본보 논설위원) = 지난 2월 19일 한국기자협회로부터 제35회 한국기자상 및 2003년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장에 위촉됨.

▲姜哲求(64년 法大卒·광주고등법원장) = 지난 2월 5일 특허법원장에 임명됨.

▲宋基弘(64년 法大卒·법원도서관장) = 지난 2월 5일 춘천지방법원장에 임명됨.

▲曹忠煥(64년 法大卒·한국타

이어 사장) = 지난 2월 21일 대한타이어공업협회 정기총회에서 제22대 회장에 선임됨.

▲李鉉求(65년 文理大卒·모교수리과학부 교수) = 지난 2월 14일 전북 전주시 상산고등학교 제7대 교장에 취임함.

▲崔秉鶴(65년 法大卒·대전지방법원장) = 지난 2월 5일 수원지방법원장에 임명됨.

▲趙容武(66년 法大卒·제주지방법원장) = 지난 2월 5일 창원지방법원장에 임명됨.

▲千璣興(66년 法大卒·변호사) = 지난 1월 27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崔圭徹(66년 法大卒·동아일보 논설주간) = 지난 1월 29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제48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제14대 회장에 선출됨.

▲林昌烈(66년 商大卒·前경기도지사) = 지난 2월 22일 민영뉴스통신사인 뉴시스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됨.

▲金相駿(67년 文理大卒·풍산사장) = 지난 2월 20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3년의 제10대 회장에 추대됨.

▲柳泰鉉(67년 文理大卒·대전시 자문대사) = 지난 2월 21일 주베트남 대사에 임명됨.

▲金相基(67년 法大卒·청주지방법원장) = 지난 2월 5일 서울

행정법원장에 임명됨.  
▲洪日約(67년 法大卒·특허법원장) = 지난 2월 5일 사법연수원장에 임명됨.

▲玄基榮(67년 師大卒·민족문학작가회 이사장) = 지난 2월 17일 한국문예진흥원에 임명됨.  
▲朴允在(68년 文理大卒·송실대 교수) = 지난 2월 22일 한국유통학회에 취임함.

▲黃仁行(68년 法大卒·인천지방법원장) = 지난 2월 5일 서울가정법원장에 임명됨.

▲崔賀敬(68년 師大卒·前현대택배 사장) = 지난 2월 11일 현대통신산업 대표이사에 선임됨.

▲朴容炫(68년 醫大卒·모교병원장) = 최근 홀리데이인서울 호텔에서 열린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사회에서 제3대 이사장에 선임됨.

▲李光鎭(68년 醫大卒·충남대총장) = 지난 2월 15일 공주대에서 열린 전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의에서 임기 1년의 회장에 선출됨.

▲姜完求(69년 法大卒·서울가정법원장) = 지난 2월 5일 대구고등법원장에 임명됨.

▲金東建(69년 法大卒·수원지방법원장) = 지난 2월 5일 서울

## 母校 2003년 입학식 거행 신입생 4천 1백 55명

모교(총장 鄭雲燦)는 지난 3월 3일 오전 11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분회 林光洙 회장, 孔大植 부회장을 비롯해 교직원, 신입생, 학부모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학년도 입학식을 거행했다(아래사진). 학사보고, 신입생 선서, 기관장 소개에 이어 鄭雲燦 총장은 직사를 통해 "단순한 지식 습득에 그치지 말고, 진리추구

의 열정에 불타는 참된 지성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항상 깨어있는 비판정신을 함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사회에 대한 봉사이념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신성한 의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사회의 구성요소를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늘 열린 마음으로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보일 때 대학의 생명인 자율성이 더욱 그 빛을 발하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음대 성악과 徐慧妍 교수가 가곡 '선구자'를 부르며 신입생들의 입학식을 축하했다. 이

날 행사이후 문화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신입생 환영회는 대구 지하철 방화참사로 인한 사회적인 추모 분위기를 감안해 희생자를 애도한다는 의미에서 취소됐다. 2003학년도 신입생 최종 등록 결과는 수시, 정시전형 3천 9백 21명, 재외국민 98명, 농어촌 출신 88명, 외국인 40명, 특수교육대상 8명 등 총 4천 1백 55명이다.

**제4회 함춘대상·공로패 시상식  
학술연구상 金鎭福(58졸),  
金允範(58졸)  
의료봉사상, 文國鎭(55졸)  
사회공헌상, 姜信浩(52졸)**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吉女)는 지난 3월 19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호텔에서 동문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제4회 함춘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우측사진).李회장은 개회사에서 "모교의료발전의 역사와 함께 해온 시계탑과 함춘동산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우리는 그 곳에서 배운 지식과 기량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고 "동문들의 숙원사업

인 함춘회관이 완공될 수 있도록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주시는 국내외 동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모교 李鍾鉉 학장은 "이번 학기부터 의사와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수년간에 걸쳐 연구한 계획이 재학생과 사회 전체에 꼭 필요한 내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날 열린 함춘대상 시상식에서 세계 최다인 1만 3천 5백여 건의 위암수술을 실시, 수술을 받은 위암환자의 생존율을 25.5%에서 50% 가까이 이끌어낸 金鎭福(58년졸, 모교 명예교수, 인제대 백병원 의료원장) 동문과 조유를 먹이지 않은 무균소형돼지를 이용해 면역기관의 개체발달 연구에 공헌한 金允範(58년졸, 미시카고 의대 미생물학, 면역학 주임교수) 동

문에게 학술연구부문을 수여했다.  
또 고려대 의대에 법의학 교실 창설, 법의학회를 창설하는 등 각종 범죄 사건의 부검 및 법의 감정을 실시하며 증거주의 재판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文國鎭(55년졸, 고려대 명예교수) 동문에게 의료봉사부문상을,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하며 국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크게 이바지해 온 姜信浩(52년졸, 동아제약 회장) 동문에게 사회공헌 부문상을 시상했다. 한편 임원 개선을 통해 현 李 회장을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지방법원장에 임명됨.

▲金在晉(69년 法大卒·울산지방법원장)=지난 2월 5일 청주지방법원장에 임명됨.

▲金英南(70년 工大卒·前해양수산부 항만국장)=지난 2월 18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에 임명됨.

▲金龍潭(70년 法大卒·법원행정처 차장)=지난 2월 5일 광주

고등법원장에 임명됨.

▲鄭文秀(70년 法大卒·前주나이지리아 대사)=지난 2월 21일 주카타르 대사에 임명됨.

▲安聖會(70년 法大卒·서울지법 서부지원장)=지난 2월 5일 울산지방법원장에 임명됨.

▲梁承泰(70년 法大卒·부산지법원장)=지난 2월 5일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됨.

▲鄭鎬瑛(70년 法大卒·춘천시방법원장)=지난 2월 5일 대전지방법원장에 임명됨.

▲李熙範(71년 工大卒·한국생산성본부 회장)=오는 4월 1일 서울산업대 총장에 취임한다.

▲趙東成(71년 商大卒·모교 경영학과 교수)=지난 2월 19일 기업 윤리경영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업계 전반으

로 확산시키기 위해 발족된 「倫經포럼」 공동위원장에 선출됨.

▲黃榮一(72년 新大院卒·前극동방송 부사장)=최근 기독교TV 부사장에 선임됨.

▲韓松(73년 齒大卒·강릉대교수)=최근 강릉대 제4대 총장에 선출됨.

▲金相潤(77년 社會大卒·외교안보연구원 연구관)=지난 2월 21일 주에티오피아 대사에 임명됨.

▲文國現(77년 經大院卒·유한김벌리 사장)=지난 2월 19일 기업 윤리경영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업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발족된 「倫經포럼」 공동위원장에 선출됨.

▲朴在承(40기 AMP·前서울지방변호사회장)=지난 2월 24일 대한변호사회 협회 제42대 회장에 선출됨.

### 16대 참여정부 첫 내각 발표 高建총리...장관 11명 입각

盧武鉉대통령은 지난 2월 26일 高建(60년 文理大卒)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인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高建총리의 제청 절차를 밟아 27일 「참여 정부」의 첫 내각 인사를 발표했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金振杓(71년 法大卒)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으며, 통일부 장관에 丁世鉉(71년 文理大卒) 장관이 유임됐으며, 외교통상부 장관에 尹永寬(75년 文理大卒) 모교 외교학과 교수, 법무부 장관에 康錦實(79년 法大卒) 변호사를 임명했다.

또 과학기술부 장관에 朴虎君(70년 文理大卒)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정보통신부 장관에 陳大濟(74년 工大卒) 삼성전자 사장, 보건복지부 장관에 金花中(67년 看護大卒) 국회의원, 노동부 장관에 權奇洪(73년 文理大卒) 영남대 교수, 건설교통부 장관에 崔鍾璦(72년 商大卒)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발탁했다.

더불어 기획예산처 장관에 朴奉欽(72년 商大卒) 차관, 국무조정실장에 李永鐸(69년 商

大卒·本會 副會長) KTB네트워크 회장을 기용했다.

한편 3월 3일 재정경제부 차관에 金光琳(80년 行大院卒) 특허청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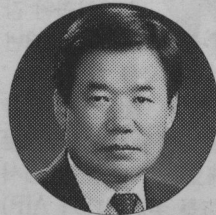
통일부 차관에 趙建植(75년 文理大卒) 남북회담사무국 상근위원, 외교통상부 차관에 金在燮(68년 文理大卒) 주인도네시아 대사, 과학기술부 차관에 權五甲(75년 工大卒) 기획관리실장, 문화관광부 차관에 吳志哲(73년 法大卒)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농림부 차관에 金正鎬(72년 工大卒) 차관보, 환경부 차관에 郭決鎬(80년 環大院卒) 기획관리실장, 노동부 차관에 朴吉祥(76년 社會大卒) 서울지방노동위원장, 여성부 차관에 安載憲(71년 文理大卒) 충북 행정부지사, 건설교통부 차관에 崔在德(74년 師大卒) 차관보, 법제처장에 成光元(70년 師大卒) 차장을 기용했다.

한편 조달청장에 金敬燮(72년 文理大卒)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 병무청장에 金斗星(82년 行大院卒) 한국병역정책



高建 국무총리



金振杓 경제부총리

연구소장, 경찰청장에 崔圻文(42기 ACAD) 경찰대학장, 산림청장에 崔鍾秀(75년 環大院卒) 차장, 특허청장에 河東萬(78년 環大院卒) 국무조정실청장에 沈昌求(71년 藥大卒) 모교 제약학과 교수, 철도청장에 金世浩(85년 行大院卒)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을 발탁했다.

또 대통령 경호실장에 金世鈺(83년 行大院卒) 전경찰청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卓秉伍(38기 ACAD) 명지대 교수를 각각 발령했다.

### 청와대 비서진 확정

### 장·차관급 동문 12명 등용

최근 제16대 「참여 정부」에서 盧武鉉대통령을 보좌할 청와대 비서진이 확정됐다.

장관급인 비서실장에 文喜相(68년 法大卒) 국회의원, 정책실장에 李廷雨(72년 商大卒) 경북대 교수, 국가안보보좌관에 羅鍾一(63년 文理大卒) 주영 대사가 임명됐다.

차관급인 정책기획수석에 權五奎(75년 商大卒) 조달청장, 정무수석 柳寅泰(74년 文理大卒) 전국회의원, 홍보수석에 李海成(77년 經營大卒) MBC 북경특파원, 국민참여수석에 朴珠賢(85년 法大卒) 변호사를 기용했다.

또 외교보좌관에 潘基文(70년 文理大卒)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국방보좌관에 金熙相(73년 文理大卒) 전국방대 총장, 경제보좌관에 趙潤濟(76년 社會大卒) 서강대 교수, 인

사보좌관에 鄭燦龍(74년 文理大卒) 광주YMCA 사무총장, 정보과학기술보좌관에 金泰由(74년 工大卒) 모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이로써 장·차관급 13명의 비서진 가운데 민정수석을 제외한 12명이 동문으로 밝혀졌다.

한편 정무수석실 정무기획비서관에 申鳳浩(79년 社會大卒) 동문, 지방자치비서관에 朴基煥(77년 經營大卒) 동문,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에 李錫兌(82년 法大卒) 동문, 법무비서관에 黃德南(80년 法大卒) 동문이 임명됐으며, 국민참여수석실 민원비서관에 梁珉湖(84년 人文大卒) 동문, 국정모니터비서관에 郭海坤(85년 社會大卒) 동문이 내정됐다.

(燮)

### 교육 부총리에 尹德弘동문

盧武鉉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尹德弘(69년 師大卒) 대구대 총장(사진)을 임명했으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黃斗淵(74년 環大院卒) 본부장을 유임시켰다.

이어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에 徐凡錫(75년 師大卒)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검찰총장에 宋光洙(71년 法大卒) 대구고검장, 법무부 차관에 鄭相明(72년 法大卒) 기획관리실장을 임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姜哲圭(68년 商大卒) 부패방지위원장, 부위원장에 趙學國(72년 商大卒) 사무처장을 내정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 李晶載(69년 商大卒) 전재정경

제부 차관, 부위원장에 李東杰(77년 社會大卒) 한국금융인구원 은행팀장을 발탁했다.

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장에 申弘(62년 法大卒) 노사정위원장, 노사정위원장에 金鎬守(61년 文理大卒)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을 내정했다.

또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칭) 위원장에 成冥隆(77년 社會大卒) 한림대 교수를 내정했다.

### 검찰 고위간부 대거 기용

법무부는 지난 3월 11일 서울고검장에 鄭鎭圭(69년 法大卒) 인천지검장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대전고검장에 金相禧



- 黃斗淵 통상교섭본부장
- 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
- 李晶載 금융감독위원장
- 申弘 중앙노동위원장
- 金鎬守 노사정위원장
- 成冥隆 균형발전위원장
- 徐凡錫 교육부 차관
- 鄭相明 법무부 차관
- 宋光洙 검찰총장
- 鄭鎭圭 서울고검장
- 金相禧 대전고검장
- 林來玄 대전고검장
- 李範觀 광주고검장

(73년 法大卒) 제주지검장, 대구고검장에 林來玄(77년 法大卒) 전주지검장이 각각 승진 발

령됐고, 李範觀(24기 ACAD) 광주고검장은 유임됐다.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에 朴相吉(76년 法大卒) 서울지검 남부지청장, 법무실장에 洪景植(74년 法大卒) 대전고검 차장, 검찰국장에 洪錫肇(75년 法大卒)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金振煥(71년 法大卒) 대구고검 차장이 각각 전보됐다.

또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文永皓(74년 法大卒) 서울고검 공판부장, 중수부장에 安大熙(73년 法大入) 부산고검 차장, 강력부장에 郭永哲(71년 法大卒) 마약부장, 공안부장에 李棋培(75년 法大卒)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공판송무부장에 朴滄烈(66년 法大卒) 법무부 법무실장, 검찰부장에 柳聖秀(70년 工大卒)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으며, 金源治(66년 法大卒) 형사부장은 유임됐다.

이밖에 인천지검장에 李鍾伯(74년 法大卒) 대검 기획조정부장, 춘천지검장에 林采珍(75년 法大卒) 서울지검 북부지청장, 창원지검장에 林承寬(74년 法大卒) 서울고검 차장, 울산지검장에 安永旻(77년 法大卒)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장, 광주지검장에 黃善泰(70년 法大卒) 대전지검장, 제주지검장에 蔡秀哲(71년 法大卒) 창원지검장 등이 전보됐다. 대구고검 차장에는 高永宙(71년 工大卒) 광주고검 차장이 전보 발령을 받았다.

한편 3월 19일 부산지검장에 金在琪(72년 法大卒) 울산지검장, 대전지검장에 金熙玉(76년 新大院卒) 대검 공판송무부장, 전주지검장에 姜忠植(77년 法大卒) 서울지검 서부지청장, 청주지검장에 李炳基(75년 法大卒)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이 임명됐다. (燮)



행사·출간

▲權純亨(55년 美大卒·모교 공예과 명예교수)=지난 3월 8일부터 27일까지 San Diego City College LRC Hall에서 열린 「韓國陶藝 傳統과 變奏」 전시회에 출품함.

▲李信子(55년 美大卒·갤러리 우덕 고문·美大同窓會長)=지난 2월 11~21일 갤러리 우덕에서 모교 독어독문학과

高源(73년 文理大卒)교수, 서양화과 徐庸宣(79년 美大卒)·尹東天(85년 美大卒)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어머니의 방」이라는 주제로 제2회 특별기획전을 가짐.

▲金濤浩(56년 法大卒·금노八九회장)=지난 2월 19일 북창동 「신라 다람원」에서 금융산업노조 이용득 위원장을 초청, 「조흥은행 매각과 독자발전」을 주제로 정기모임을 개최함.

▲李吉女(57년 醫大卒·경원대 총장·가천학원 이사장·새생명 찾아주기운동본부 이사장·醫大同窓會長·本會 副會長)=지난 2월 6일과 14일 가천길 대학과 신명여고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을 격려했으며, 2월 11일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정기이사회를 열고 의료지원 사

업계획 등 예산안을 가결함.  
▲俞東濤(60년 農大卒·한국단미사료협회장·수원지부동창회장)=지난 2월 14일 농협 서울지역본부 강당에서 한국초지학회와 공동으로 「수입조사의 유통현황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함.

▲徐丙喆(63년 文理大卒·통일연구원장)=지난 2월 18일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 통일·대북정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함.

▲權丙鉉(63년 法大卒·재외동포재단 이사장)=지난 2월 25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해외동포 지도자들을 초청, 동포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재외동포정책포럼」을 가짐.

▲李笑雨(64년 看護大卒·모교 간호학과 교수·모교 간호센터 소장)=지난 2월 17~18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신관에서 간호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말기암환자 통증관리교육」을 실시함.

▲卞柱仙(64년 師大卒·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세계 걸스카우트 아태지역 의장·本會 副會長)=지난 2월 14일 아광희부띠끄 남산 본사에서 「사랑의 수호천사」 판을 전달받고, 후원행사를 개최함. 또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방글라데

시에서 제34회 세계 걸스카우트 아태지역 이사회를 개최함.  
▲孫文子(66년 美大卒·서양화가·내잔갤러리 관장)=지난 2월 15~20일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개최된 「ARTSEO-UL」전에 작품을 출품함.

▲李周行(67년 師大卒·중앙대 교수·한국화법학회 회장)=지난 2월 19일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 멀티미디어실에서 「교사의 화법」을 주제로 전국 학술대회를 가짐.

▲曹相鎬(67년 行大院卒·前체육부 장관·창조장학회 이사장)=지난 2월 22일 서울 강북대성학원 강당에서 2003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가짐.

▲張萬基(68년 經大院卒·인간개발연구원 회장)=지난 2월 13일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우리금융그룹尹炳哲(3기 AIP) 회장을 초청, 「한국 금융산업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CEO의 역할」을 주제로 제1287회 인간개발경영연구회를 개최함.

▲李相驥(69년 工大卒·에너지경제연구원장·환경정책학회 회장)=지난 2월 21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환경정책평가연구회를 개최함.

▲金學元(70년 法大卒·자민련 원내총무)=지난 2월 12~15일 訪日외교단장 자격으로 金權泰(72년 商大卒)·朴源弘

(40기 AMP)국회의원 등과 함께 일본을 방문, 일본측 여야 고위인사를 만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조방안을 모색함.

▲黃龍昇(75년 醫大卒·모교 소아과학교실 교수)=지난 2월 22일 모교 병원내 임상제2강의실에서 간질수술 1천회를 기념하는 제9차 서울 국제간질심포지엄을 개최함.

▲金明坤(76년 師大卒·국립극장장·해오름극장과 문화광장에서 2003년 새봄맞이 해오름 축제를 개최함.

▲李珉柱(80년 美大卒·한국화가·모교 강사)=지난 2월 15~24일 미국 이민 백주년 기념으로 뉴욕 로드갤러리와 메트로폴리탄 아트센터에서 제19회 개인전을 가짐.

▲崔吉大(82년 環大院卒·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이사장)=지난 2월 21일 인터컨티넨탈호텔 하모니볼룸에서 제3회 국제사회기반시설 안전세미나를 개최함.

▲朴永大(92년 美大卒·화가)=지난 1월 8~14일 인사동 공화랑에서 그림산문집 「새들이 날아간 자국」 출판기념 개인전을 가짐.

▲金明圭(24기 AMP·한국가스공사 사장)=지난 2월 5~9일 인도네시아 페르타미나사와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사를 방문, 천연가스 수급안정을 위한 중기 도입계약 방안에 대해 협의함.

▲金澈運(33기 AMP·충효예 실



천운동본부 총재)=지난 1월 28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시립양로원과 마포구 아현동 노인정을 방문, 「사랑의 떡살 나누기」행사를 개최함.

▲洪貞植(9기 AIP·시민단체 활동단 단장)=지난 2월 12일 일부 연예인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 한미병사들에게 노래방 기기를 전달하고 위문공연을 펼침.

▲朴永淳(43기 ACAD·현대시멘트 상임감사)=최근 ACAD 동문 20여 명과 함께 타이페이를 방문,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만의 전통 민속과 관광산업에 관련한 현장시찰 및 관광연수를 다녀옴.

▲姜武燮(52기 ACAD·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지난 2월 19일 한국언론재단 대회의실에서 「학력중시사회에서 능력중시사회로의 전환」이란 주제로 제15차 정책포럼을 개최함.

(정리=安興燮기자)



華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조일형(00년 保大院卒)군·이명선 양=3월 15일 15시 30분.  
\*박철순(94년 社會大卒)군·이성원 양=3월 28일 18시.  
\*김거원(95년 工大卒)군·모금숙 양=3월 30일 12시 30분.

新刊

명화와 의학의 만남



의학적 관점에서 보는 흥미진진한 「그림 읽기」. 오래전부터 미술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거듭해 온 법의학자 文國鎭(55년 醫大卒·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동문은 이 책을 통해 명화를 의학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다양한 컬러사진과 함께 명화를 의학적으로 분석한 색다

른 책이다. (예담刊·값16,500원)

베토벤의 삶과 음악의 세계

—曹洙哲 著



소아·청소년정신의학을 전공한 曹洙哲(73년 醫大卒·모교 정신과학교실)교수가 베토벤의 생애를 조명한 책을 펴냈다. 인간과 음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음악은 인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음악의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음악가들이 있어 왔지만 베토벤만큼 널리 알려진 음악가도 없을 것이다.

그의 삶 그 자체가 그의 음악만큼이나 영웅적이었다. 베토벤의 음악은 그의 심성이나 사상의 발달단계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베토벤의 삶과 음악을 컬러 사진과 함께 들여다 보고 또한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서울대학교출판부刊·값19,000원)

야생초 편지

—黃大權 著



학원간첩단 조작사건에 연루, 13년 2개월간 수감되었던 黃大權(82년 農大卒·생태공동체 연구모임 으뜸지기)동문이 감옥에서 유일한 벗으로

삼았던 야생꽃들에 대한 편지글들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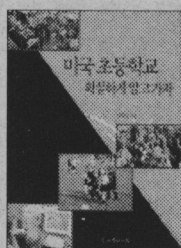
행동의 자유가 없는 감옥에서 야생꽃 하나 하나를 애정어린 시선으로 관찰하고, 더불어 즐긴 이야기를 당시 편지에 함께 그려 넣었던, 잎 모양 하나 하나 생생하게 묘사한 그림들과 함께 묶은 책.

단순한 들꽃의 생태, 자연과 생명의 신비 예찬을 넘어 권력의 폭압으로 자유를 구속당한 인간의 삶과 인간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성찰이 담겨 있다. (도솔刊·값8,500원)

미국 초등학교 확실하게 알고 가자

—沈良燮 著

인터넷 신문 「송알송알」 발행인인 沈良燮(87년 人文大卒)동문이 미국 초등학교의 수업내용과 방식, 교내생활 등을



총망라한 책을 펴냈다.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동반유학을 떠나는 학부모들이 꼭 읽어야 할 유익하고 생생한 정보. 미국인도 잘 모르는 진짜 미국 초등교육현장의 모든 것을 발로 뛰며 체험으로 기록한 최신 가이드북. 이 책에서는 미국 초등교육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그리고 소수민족으로서 한국인 학부모들이 억울한 일이나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의 반론을 제기하는 방법,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할 일 등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람과사람刊·값16,000원)



# 미주관악후원회 이사회비 납부 현황

## 재미동창회보 발간을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 계
01	남가주	심상은(\$1,000, 상대 54입) 이종도(\$200, 공대66입) 김상호(\$250, 사범대 56졸) 오길평(\$500, 치대 61입) 노명호(\$3,000/ 종신이사비, 공대 61입) 서동영(\$200, 사범대 60입) 제영혜(\$200, 가정대 71입) 정원훈(250 상대38입)	8	5,600
02		김형자(\$300, 약대 61입)	1	300
03	샌프란시스코	정유석(200 의대 58입)	1	200
04	뉴욕(NY, NJ, PA 일부 CT)	김승호(\$200, 공대 71입) 윤정옥(\$1,000, 약대 50입) 강상욱(\$500, 상대 63입) 뉴욕지부동창회(\$2,000) 이준행(\$500, 공대 47입) 김상각(\$200, 상대 57입) 이운순(\$200, 의대 52입) 김용재(\$200, 의대 60입) 최영태(\$200, 문리대 67입) 이전구(\$300, 농대 60입) 이재덕(\$200, 법대 60입) 한창섭(\$200, 문리대 57입) 김용화(\$300, 법대 70입) 강영국(\$1,000, 수의대 67입) 이용락(\$5,000, 공대 53졸) 최인갑(\$200, 공대 57입) 최용완(\$200, 공대 57입) 정길화(\$200, 의대 65졸) 김기태(\$200, 의대 52입) 임춘수(\$500, 의대 57입) 김정주(\$200, 문리대 64졸) 박영규(\$300, 농대 57입) 송재현(\$200, 의대 48입) 김기태(\$200, 의대 58졸) 박창만(\$200, 공대 56입) 정승규(\$300, 공대 60입) 조대현(\$200, 공대 57입) 소진문(\$300, 치대 58년입) 장기남(\$1,000, 문리대 62입) 최호승(\$200 사범대 58입) 전현일(\$200, 농대 62입) 강영국(\$300, 수의대 67입) 송순영(\$1,000, 문리대 52입) 구경희(\$500 의대 59입) 시카고 지역동창회(\$4000) 한재은(\$1500 의대 59입) 엄무광(\$500 문리대 61입) 이용락(\$5000 / 종신이사비 \$3000 일반이사비 \$2000 공대 53졸)	13	6,000
05	시카고 (IL, IN, WI, MO, MI, OH)	박윤수(\$1,000, 문리대 48입) 방은호(\$300, 약대 42입) 워싱턴 DC 지역동창회(\$1,200) 변만식(\$200, 사대 49입) 신상근(\$500, 의대 52입) 이영목(\$250, 공대 59입) 권철수(\$500, 의대 68입) 박윤수(종신이사비 \$3,000, 문리대 48입)	26	23,400
06	워싱턴 DC (MD, VA)	한민섭(\$200, 공대 49입) 김성열(\$200, 치대 67졸) 허윤희(250 사범대 57입)	8	6,950
07	워싱턴주	조시호(\$1,000, 문리대 59입) 김정훈(\$200, 공대 46입) 휴스턴 지역동창회(\$400)	3	650
08	휴스턴		3	1600
09	달라스			
10	미네소타	미네소타 지역동창회(\$400) 권승림(\$200, 공대 52입)	2	600
11	조지아	임수암(\$200, 공대62입) 조지아지부(\$500) 김용건(\$200, 문리대 48입)	3	900
12	아리조나	오덕겸(\$500, 의대 58입)	1	500
13	유타			
14	하와이			
15	오레곤	김상순(\$200 상대 67입)	1	200
16	기타1(서부)	록키마운틴즈 지역동창회(\$300)	1	300
17	기타2(중부)			
18	기타3(동부 & 캐나다)	오인석(\$1,000, 법대58입) 이종진(\$300, 공대55입) 오인석(\$3,000/ 종신이사비, 법대 58입)	3	4,300
19	필라델피아	이상봉(\$200, 문리대 65입) 현재원(\$200, 공대 60입) 정정수(\$200 의대 56입)	3	600
20	뉴잉글랜드	뉴잉글랜드 지역동창회(\$900)김제호(\$200, 상대 56입) 강경식(\$500, 문리대 55입) 유상래(\$200, 수의대 62입)	4	1,800
21	한트랜드	김호원(\$1,000, 치대52입) 이상문(\$200, 상대 57입)	2	1,200
22	중부펜실바니아 특별후원금			
일반 이사 합계			79	\$43,100
종신 이사 합계			4	\$12,000
총 계			83 명	\$55,100

재미서울대동창회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번달 납입현황

(2002년 7월 01일~2003년 3월 28일)

#### 종신이사

강영빈, 박경민, 박병기  
방은호, 서영석, 심상은  
오인석(2), 오홍조, 윤선홍  
이교락, 이기영, 이병준  
이세열, 이전구, 정 태  
이청광, 전희택, 윤정옥  
한홍택, 조시호, 이용락  
노명호, 박윤수

#### 신규 일반이사

최인갑(\$200, 공대 57입)  
최용완(\$200, 공대 57입)  
정길화(\$200, 의대 65졸)  
미네소타 지역동창회(\$400)  
김기태(\$200, 의대 52입)  
이종진(\$300, 공대 55입)  
한민섭 (\$200, 공대 49입)  
임수암(\$200, 공대 62입)  
김승호(\$200, 공대 71입)

#### 동창회보 발간을 지원하기위한 특별관악후원회비 출연이사

심상은(\$1,000, 상대 54입)  
방은호(\$300, 약대 42입)  
조시호(\$1,000, 문리대 59입)  
윤정옥(\$1,000, 약대 50입)  
이용락(\$5,000, 공대 53졸)  
박윤수(\$1,000, 문리대 48입)  
오인석(\$1,000, 법대 58입)  
김호원(\$1,000, 치대 52입)  
강영국(\$1,000, 수의대 67입)

중단없는 재미서울대동창회보 발간을 지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명 단
01	남가주 247	이건영(\$120, 문리대 71입) 박경순(\$120, 간호대 53입) 이근설(상대 56입) 조상문(보건대학원 71입) 박형건(문리대 63입) 임희식(치대 59입) 김지익(의대 44입)김정빈(공대 66입) 이종도(공대 66입) 김종원(\$100 추가구독료, 문리대 69입) 김달준(약대 50입) 전낙관(사대 60입) 박혜란(음대 73입) 이봉수(수의대 66입) 김진숙(간호대 72입) 김현걸(치대 56입) 전동희(공대 58입) 김성호(법대 64입) 정민영(의대 51입) 고영련(사범대 57입) 김용일(보건대학원 65입) 전병희(약대 55입) 허영진(문리대 62입) 최왕욱(공대 69입) 이체진(문리대 55입) 박진득(농대 67입) 송정자(의대 73입) 윤용길(공대 55입) 최재윤(문리대 54입) 김태윤(법대 53입, 전년도 납입, 추가납입) 이상신(법대 57입) 김산기(법대 59입) 이상욱(치대 66입) 민희숙(간호대 74입) 정만영(약대 66입) 김창덕(약대 53입) 최영순(간호대 69입) 최희봉(상대 56입) 김진호(약대 64입) 김동훈(의대 71입) 김선주(사범대 49입) 박정모(문리대 66입) 정종훈(치대 74입) 전희택(의대 60입) 박남수(문리대 74입) 김제무(상대 58입) 최수명(문리대 59입) 장동호(공대 53입) 남홍범(공대 59입) 김정화(미대 63입) 김성환(의대 71입) 김광은(음대 56입) 주 훈(음대 ?) 김준일(공대 62입) 김종표(법대 58입) 신정식(상대 64입) 박희규(수의대 55입) 김현직(농대 58입) 박제인(약대 60입) 이정규(농대 69입) 이송희(간호대 47입) 김두희(문리대 58입) 최종권(문리대 59입) 김영배(미대 61입) 이기재(사범대 52입) 이종희(공대 53입) 박재덕(상대 52입) 강봉창(약대 50입) 선우동훈(문리대 54입) 권처균(공대 51입) 김순길(법대 ?) 서재섭(상대 53입) 신광재(공대 73입) 김태호(상대 57입) 이 승(공대 59입) 임낙균(약대 64입) 민경탁(의대 61입) 호기원(치대 70입) 최순자(약대 53입) 박영근(상대 56입) 곽철(법대 64입) 최준호(치대 58입) 신정현(미대 59년입) 서관석(미대 67년입) 이양구(상대 57입) 이홍표(의대 60입) 방윤자(문리대 59입) 임재영(공대 59입) 박익순(\$50 수의대 74입) 김창섭(\$100 약대 44년입) 최예섭(치대 45년입) 강항운(농대 52년입) 김옥권(미대 76년입) 배효식(문리대 52년입) 이명선(상대 58입) 오인근(약대 59입) 유진형(상대 48입) 이범식(공대 61입) 최명룡(음대 ?) 김재신(음대 60입) 이동성(의대 53입) 박태호(치대 66입) 탁혜숙(음대 67입) 이호경(치대 63입) 홍훈정(음대 70입) 이병희(수의대 75입) 노봉식(음대 ?) 오형원(의대 53입) 송길장(사범대 58입) 이정욱(공대 52입) 강배영(상대 54입) 황봉찬(문리대 48입) 김창무(음대 53입) 김은희(치대 50입) 고재천(공대 57입) 김동익(법대 57입) 김광자(약대 62입) 조만연(상대 58입) 김혜인(가정대 69입) 김중원(문리대 69입) 이호일(의대 60입) 강영만(상대 72입) 서동영(사범대 60입) 이동휘(공대 63입) 김태웅(의대 63입) 배재호(공대 58입) 나민주(음대 65입) 정현진(간호대 72입) 황서우(의대 53입) 윤병인(의대 64입) 박범순(가정대 70입) 윤진수(의대 57입) 노병일(경상법학전문 41입) 김성철(법대 54입) 김성복(공대 59입) 임선영(음대 57입) 안승호(공대 71입) 이완규(공대 54입) 김일선(사범대 67입) 정기정(상대 69입) 권대원(대학원 59입) 윤방현(사범대 53입) 최재현(수의대 66입) 이상학(공대 59입) 김학천(치대 71입) 노명호(공대 61입) 고용규(의대 67입) 김윤걸(자연대 77입) 임용오(의대 57입) 탁익용(상대 58입) 김상익(공대 46입) 조정시(공대 60입) 박영근(상대 63입) 정황(공대 64입) 김원탁(공대 65입) 신동국(수의대 76입) 김정협(치대 59입) 도영미(사범대 52입) 김명자(치대 57입) 하기환(공대 66입) 이경호(공대 67입) 심상은(상대 54입) 이진택(경영대 72입) 서경만(의대 51입) 윤경민(법대 55입) 박취서(약대 60입) 이승재(상대 67입) 한원민(의대 59입) 홍성애(의대 60입) 신한경(약대 56입) 김재(간호대 69입) 김원경(약대 59입) 장동석(문리대 66입) 이해란(미술대 72입) 장진성(약대 66입) 양은석(음대 70입) 김상열(공대 57입) 김선주(사범대 50입) 신우식(치대 ?) 신무수(치대 63입) 백만일(공대 64입) 강신호(사범대 49입) 김세담(법대 55입) 정동구(공대 57입) 고석규(치대 65입) 신우천(치대 64입) 양은혁(상대 56입) 정복근(\$100, 사범대 69입) 차민영(의대 78입) 김동호(치대 ?) 이강훈(치대 65입) 손학식(공대 61입) 김동산(법대 59입) 정경화(의대 70입) 박계영(공대 57입) 김은종(상대 59입) 이정재(수의대 45입) 김건진(문리대 62입) 오재인(치대 33입) 최호준(의대 77입) 권길상(음대 46입) 이호준(공대 55입) 오길평(치대 61입) 이현세(법대 68입) 김선명(공대 75입) 김희재(사범대 66입) 최복영(사범대 56입) 이성호(의대 72입) 김영(수의대 63입) 조성윤(법대 46입) 홍진(간호대 55입) 김용채(문리대 61입) 신정자(사범대 63입) 박인창(농대 65입) 김희봉(공대 72입) 노상규(공대 60입) 송두빈(사범대 57입) 김영기(의대 54입) 김근빈(법대 56입) 이난경(음대 66입) 남정우(치대 48입) 이근섭(치대 54입) 우원섭(치대 65입) 김일영(의대 65입) 한종철(치대 62입) 강동순(법대 59입) 한홍택(공대 60입) 신상화(공대 58입) 박인하(치대 56입) 박혜숙(간호대 69입) 이근원(공대 67입) 임민빈(상대 58입) 조종웅(공대 45입) 엄세욱(간호대 69입) 권기상(경영대학원 72입) 육중훈(상대 67입) 강경수(법대 58입) 정원훈(상대 38입) 임택선(공대 52입) 김석구(공대 66입) 최숙규(간호대 65입) 문덕수(공대 73입) 최승류(상대 53입) 서치원(공대 69입) 지인수(상대 59입) 이화진(상대 68입) 임택선(공대 52입)
02	1	김항자(약대 61입)
03	샌프란시스코 4	박세록(의대 57입) 황동하(의대 65입) 정조웅(공대 60입) 홍경삼(문리대 61입)
04	뉴욕 (NY, NJ, PA일부CT) 212	이현호(공대 58입) 김해암(의대 58입) 송재한(약대 65입) 이희자(간호대 70입) 전응상(\$100, 공대 52입) 이종대(약대 65입) 박경룡(약대 63입) 김영일(\$100, 약대 58입) 우관혜(음대 63입) 엄종열(미대 65입) 송기인(의대 60입) 고강희(약대 56입) 송병문(공대 66입) 윤병우(문리대 67입) 강충무(\$100, 사범대 65입) 김종현(법대 61입) 김창수(약대 64입) 이영재(상대 58입) 조달훈(사범대 66입) 최태식(\$50, 의대 74입) 이진규(농대 60입) 허병렬(사범대 42입) 이준행(공대 47입) 최일단(미대 55입) 박승규(의대 55입) 김순자(\$50, 약대 63입) 김영만(상대 59입) 윤인숙(간호대 63입) 현영수(음대 61입) 임건식(음대 54입) 최일단(미대 55입) 손주현(의대 61입) 석창호(의대 66입) 김문경(약대 65입) 김재민(약대 57입) 조희재(음대 58입) 강 호(음대 63입) 손영철(공대 68입) 이태상(문리대 55입) 유숙현(간호대 61입) 강영선(공대 50입) 홍선경(의대 58입) 한용진(미대 56입) 문미애(미대 56입) 정연희(미대 64입) 변영석(의대 65입) 신남철(인문대 81입) 김현기(공대 62입) 민준기(\$50 공대 59입) 배상규(약대 61입) 김학수(상대 65입) 장기선(약대 61입) 윤영섭(의대 63입) 최영혜(간호대 64입) 김태호(약대 63입) 서종웅(약대 70입) 조상근(법대 69입) 박대규(법대?) 윤준식(법대 58입) 유택상(문리대 58입) 박경원(미대 66입) 박성일(상대 58입) 박진수(의대 58입) 강우정(음대 62입) 조시래(문리대 57입) 고석원(문리대 50입) 최승웅(의대 61입) 이명해(의대 79입) 김영덕(공대 53입) 이봉상(약대 59입) 연봉원(문리대 61입) 최정애(간호대 66입) 김관준(약대 46입) 최재홍(의대 67입) 박선섭(공대 61입) 김익성(상대 52년입) 윤봉균(사범대 54년입) 이영숙(간호대 56년입) 최형무(법대 69년입) 이유찬(의대 58년입) 윤여민(상대 60년입) 김규화(상대 63년입) 김훈일(공대 60년입) 윤갑석(공대 53년입) 권영대(공대 69입) 송관호(의대 58입) 배명애(간호대 45입) 윤현남(공대 63입) 노경희(간호대 66입) 문길용(음대 45입) 소무영(상대 65입) 유재은(미대 71입) 반영철(\$100 약대 58입) 차국만(상대 56입) 김현중(공대 63입) 조대영(공대 61입) 정진우(의대 72입) 서병선(음대 65입) 송용길(신문대학원 69입) 김원복(문리대 50입) 손갑수(약대 59입) 임문수(공대 72입) 백윤자(간호대 64입) 김양호(의대 57입) 이기준(\$100 문리대 66입) 선우지민(약대 54입) 조문혜(약대 59입) 김학자(간호대 63입) 임석태(법대 48입) 이정애(미술대 57입) 이영연(상대 58입) 성백문(공대 61입) 선종철(의대 57입) 이대영(문리대 64입) 최석진(사범대 54입) 전재우(공대 75입) 이종성(의대 58입) 정택수(문리대 45입) 김양수(미술대 69입) 김석식(의대 56입) 박상원(음대 69입) 강상진(의대 59입) 남상대(간호대 65입) 백영복(간호대 69입) 이필영(사범대 54입) 장미숙(치대 85입) 황문하(수의과대 76입) 박건호(의대 57입) 한승원(미술대 60입) 전병삼(약대 54입) 김용재(의대 60입) 오정환(의대 55입) 이재원(법대 60입) 홍명희(간호대 61입) 이연찬(의대 52입) 허재순(사범대 54입) 김정빈(약대 54입) 조정현(보건대학원 64입) 현건섭(공대 55입) 이경태(공대 63입) 조경호(의대 66입) 라준국(공대 47입) 조성무(공대 56입) 김현희(간호대 63입) 이승호(상대 63입) 이경립(상대 64입) 조충열(의대 60입) 한호(상대 66입) 조숙자(간호대 59입) 남일우(법대 57입) 이명희(의대 60입) 최창식(의대 61입) 변광록(간호대 72입) 김광호(의대 72입) 정일화(상대 55입) 김영용(치대 60입) 조규웅(의대 66입) 이정은(의대 58입) 박순영(법대 56입) 김영일(의대 69입) 최수용(상대 55입) 오준영(상대 49입) 최한용(농대 58입) 이홍재(의대 68입) 전성진(사범대 58입) 탁명양(약대 56입) 서상철(의대 56입) 최구진(약대 54입) 송재한(약대 61입) 윤정욱(약대 50입) 김우영(상대 60입) 송영순(사범대 60입) 이기영(농대 70입) 장동만(문리대 63입) 나연수(사범대 53입) 유호근(법대 71입) 김충정(상대 64입) 김주은(공대 71입) 강재현(상대 70입) 김한중(의대 56입) 이재덕(법대 60입) 권우열(상대 73입) 최환선(공대 56입) 이종호(의대 63입) 윤순철(사범대 44입) 김상각(상대 57입) 이정자(간호대 63입) 강석권(법대 61입) 이근미(문리대 60입) 변찬의(상대 63입) 나찬국(의대 64입) 김진승(문리대 53입) 성기호(약대 57입) 심정섭(의대 53입) 김기훈(상대 52입) 김희국(약대 54입) 최희웅(문리대 64입) 김병술(약대 52입) 조종수(공대 64입) 이국진(사대 51입) 전민욱(간호대 66입) 이정순(법대 53입) 최영태(문리대 67입) 노용면(의대 55입) 한용호(법대 52입) 이문휘(문리대 54입) 김세환(공대 65입) 박창익(농대 64입) 전희근(의대 54입) 이덕인(미술대 56입) 허선행(의대 58입) 김영두(농대 61입)



###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인원	명 단
05	시카고(ILL. IN. WI. MO. MI. OH)	143	한중하(의대 58입)임춘수(의대 57입) 김인섭(음대 ?)임이섭(\$100, 미대 54입)이승훈(\$50, 공대 66입) 김이순(공대 56입) 주명순(간호대 64입) 민영기(\$120, 공대 65입) 이지연(의대 68입) 정광훈(공대 64입) 정경근(농대 59입) 신석균(문리대 54입) 박창만(공대 56입)문조훈(약대 62입) 광영로(수의대 76입) 임영신(의대 52입) 정승규(공대 60입) 이인선(미대 72입) 이범서(의대 57입) 최희수(\$100, 문리대 67입) 김현규(의대 47입) 정남재(사범대 56입) 조 철(공대 49입) 홍규식(문리대 64입) 이윤모(농대 57입) 제환수(사대 65입) 이범구(공대 59입) 이소희(의대 61입) 이수인(\$120 의대 56입) 조형원(약대 54입) 김정일(의대 57입) 육태식(의대 61입) 김택수(의대 57입) 장 철(의대 71입) 남상용(공대 52입) 강태수(의대 65입) 최호승(작년도 선납) 한재은(의대 59년입) 지명식(사범대 65년입) 구자원(법대 55년입) 이영모(의대 59년입) 이태석(의대 67년입) 이한중(의대 61년입) 장병호(의대 66년입) 한경희(간호대 67입) 이근정(공대 73입) 이규남(의대 68입) 이종일(의대 71입) 유효운(의대 63입) 이한홍(의대 68입) 임현재(의대 59입) 황치룡(문리대 65입) 박영준(문리대 67입) 최순분(간호대 56입) 구행서(공대 69입) 엄무광(문리대 61입) 오상현(의대 71입) 김정근(의대 61입) 한성수(의대 56입) 최인갑(작년도 선납, 공대 61입) 김영호(의대 77입) 장재찬(의대 59입) 장세곤(의대 57입) 박정일(의대 61입) 조중환(의대 63입) 박숙(의대 64입) 이설희(간호대 73입) 최순강(음대 65입) 이수자(간호대 66입) 전현(문리대 60입) 이정일(농대 57입) 이소정(음대 84입) 고성서(경성사범 38졸) 배건재(공대 53입) 김일훈(의대 51입) 이재풍(의대 58입) 정길화(의대 65입) 신영규(의대 57입) 이상일(의대 54입) 김승희(법대 55입) 김택수(의대 57입) 박노균(상대 55입) 송용덕(의대 57입) 김형수(농대 68입) 김유식(의대 64입) 이종기(농대 55입) 서영일(의대 68입) 강영국(수의대 67입) 김용성(상대 54입) 백영구(행정대학원 61입) 김현석(문리대 69입) 한의일(공대 62입) 김상기(문리대 61입) 배영섭(의대 54입) 임재일(농대 64입) 안정희(간호대 75입) 장시경(의대 58입) 진보리(의대 56입) 서상현(의대 64입) 김앤드류(상대 50입) 백준철(공대 62입) 김현욱(문리대 67입) 박준환(의대 57입) 박중수(수의대 58입) 이영웅(의대 62입) 장홍(문리대 61입) 고영철(의대 45입) 성훈환(\$160, 수의대 75입) 김윤화(음대 72입) 서승환(치대 61입) 손기용(의대 55입) 김한철(사범대 61입) 김세종(경영대 79입) 김용우(공대 58입) 박홍근(공대 64입) 허서룡(의대 60입) 정병욱(의대 59입) 김병운(문리대 65입) 이용락(공대 48입) 전영자(미대 58입) 하계현(공대 64입) 계명수(의대 69입) 박연희(간호대 65입) 김정주(문리대 64입) 임근식(문리대 56입) 이승자(사범대 60입) 김갑중(의대 57입) 정의철(의대 55입) 유준석(의대 53입) 조 철(\$50 공대 49입) 정 태(\$100 의대 57입) 이덕수(\$100 문리대 62입) 최승정(공대 60입) 이진주(문리대 55입) 송재현(의대 48입) 안창현(의대 55입) 유석홍(상대 61입) 서경원(공대 53입) 구경희(의대 59입) 안은식(문리대 55입) 유효명(\$100 의대 58입) 김정수(문리대 69년입) 홍혜례(사대 76년입) 도상탁(\$100, 의대 56년입) 최애옥(간호대 47입) 정두현(의대 55입) 김진은(사대 ?) 한의생(수의대 60입) 문성길(의대 63입) 윤만중(의대 53입)
06	워싱턴 DC (MD. VA)	53	김재동(인문대 70입) 김영기(법대 50입) 임필순(의대 54입) 진금섭(\$61, 약대 57입) 김국(농대 75입) 오기창(법대 50입) 장윤희(사범대 54입) 남광순(음대 64입) 심준보(상대 55입) 이재승(의대 55년입) 김기봉(공대 63년입) 조남현(의대 64년입) 문홍숙(간호대 55년입) 변만식(사범대 49년입) 고무환(법대 57년입) 소속영(간호대 64년입) 이내원(사범대 58입) 석근범(문리대 61입) 김충규(의대 60입) 박성대(문리대 71입) 이정섭(의대 48입) 오광동(공대 52입) 신상균(의대 52입) 김용덕(의대 53입) 김창호(법대 56입) 김창웅(법대 60입) 광홍(의대 45입) 이정희(의대 59입) 배병권(상대 55입) 김훈진(치대 ?) 홍인희(공대 58입) 엄승용(농대 57입) 박평일(농대 69입) 장병규(사회과학대 76입) 최두현(문리대 50입) 조병선(의대 71입) 팍태조(음대 64입) 오인환(문리대 63입) 안미애(가정대 81입) 박은희(미대 72입) 강경구(사범대 49입) 김정환(문리대 60입) 최경수(문리대 58입) 박홍우(문리대 65입) 박명영(의대 66입) 전경철(공대 55입) 윤계일(약대 60입) 주 일(의대 46입) 한민섭(공대 49입) 전병택(상대 69입)이경희(\$80 약대 82입) 황수택(의대 65입) 이혜숙(문리대 64입) 서공주(음대대학원 59입) 윤재명(의대 65입)
07	워싱턴주 (WA)	15	김영일(공대 53입) 이대원(사범대 58입) 유성렬(공대 72입) 전계상(공대 40입) 맹병규(문리대 70입) 채태용(법대 55입) 최두환(공대 83입) 허유환(사범대 57입)
08	휴스턴 (HOUSTON)	18	육복수(공대 69입) 이신광(약대 77입) 전중희(공대 56입) 신용선(공대 55입) 박승근(의대 59입) 탁순덕(사범대 57입) 조시호(문리대 59입) 유금영(법대 50입) 김성철(의대 61입) 최광욱(문리대 73입)
09	달라스 (DOLLAS)	4	권혁초(사대 52입) 김태훈(공대 57입) 김인호(공대 47입) 이병규(약대 61입)
10	미네소타 (MN)	10	강선명(상대 48입) 권승립(공대 52입) 김태환(의대 58입) 권학주(치대 59입) 왕규현(의대 56입) 박상빈(공대 71입) 문일지(공대 61입) 김권식(공대 61입) 남세현(공대 67입) 조형준(문리대 62입)
11	조지아 (GA)	13	백낙영(상대 61입) 계광무(공대 63입) 김용자(사범대 64입) 김용건(문리대 48입) 오경호(농대 60입) 김만복(문리대 72입) 유우영(의대 61입) 조덕성(공대 71입) 장병권(보건대학원 64입) 이철남(의대 50입) 백성식(약대 58입) 이관호(공대 45입) 윤민자(음대 65입)
12	아리조나(AZ)	7	장원석(농대 68입) 오덕경(의대 58입) 박성숙(간호대 59입) 이은수(경영대학원 73입) 서기권(공대 70입) 박양제(약대 48입) 이용길(의대 62입)
13	유타 (UT)	3	김 연(\$50 문리대 54입) 이정민(문리대 48입) 김인기(문리대 58입)
14	하와이 (HI)	9	임양수(\$50 사범대 62입) 김승태(의대 63입) 구자현(사범대 53입) 구해근(문리대 60입) 최치덕(법대 59입) 김용진(공대 50입) 신동인(공대 58입) 김동립(사범대 55입) 박성재(상대 49입)
15	오레곤 (OR)	11	이철민(공대 50입) 조형원(수의대 55입) 최태인(사범대 59입) 성성모(사범대 67입) 한영준(사범대 ?) 김상만(음대 46입) 나재관(공대 72입) 장윤자(공대 50입) 이태호(문리대 61입) 김상수(상대 67입) 최동근(문리대 50입) 박성주(\$120, 공대 47입), 왕경자(음대 54입), 배병욱(음대 58입), 류광현(추가 \$100, 문리대 58입), 김봉전(\$100, 공대 68입)
16	기타 (서부)	15	최덕상(농대 73입) 이학은(약대 57입) 박종익(사범대 83입) 류광현(문리대 58입) 최원웅(약대 62입) 안동욱(자연대 72입) 이수환(의대 53입) 김갑경(의대 54입) 박용호(의대 59입) 홍지호(공대 53입)
17	기타 (중부)		
18	기타 (동부 & 캐나다)	16	이수정(음대 88입) 한용현(의대 48입) 박경희(음대 57입) 박종선(공대 60입) 이종진(공대 55입) 김주영(의대 63입) 운영욱(의대 57년입) 김경권(의대 55입) 김수산(의대 52입) 김연국(수의대 74입) 오인석(법대 58입) 김기욱(공대 79입) 조무정(약대 62입) 조동립(의대 56입) 김미현(문리대 52입) 손정호(의대 53입)
19	필라델피아(PA)	42	서중민(공대 64입) 이정필(의대 58입) 김재술(약대 62입) 이행우(? 50입) 김용국(의대 58입) 김사영(약대 56입) 주기복(수의대 68입) 강영배(수의대 59입) 김태영(약대 55입) 정학량(약대 56입) 이승환(공대 56입) 문상규(의대 62입) 임광상(공대 57입) 장 호(문리대 69입) 박장생(의대 54입) 지재원(사범대 68입) 이만택(의대 58입) 최 환(공대 68입) 송영두(\$100, 의대 56입) 오진석(치대 56입) 이규호(공대 56입) 이윤성(수의대 81입) 김화섭(의대 55입) 김영우(공대 55년입) 심기련(상대 57년입) 이재희(상대 88입) 이성숙(가정대 74입) 조영호(음대 60입) 이상민(문리대 58입) 윤정나(음대 57입) 김세경(미대 62입) 김주진(법대 54입) 안지영(문리대 71입) 문대욱(의대 73입) 전방남(상대 73입) 김중규(치대 69입) 진병학(의대 57입) 서진석(의대 62입) 유창남(의대 58입) 전무식(\$50, 수의대 61입) 영극용(의대 60입) 김형달(의대 70입) 김은한(의대 60입) 이은희(\$50, 의대 54입) 도은희(농대 61입) 최인섭(의대 72입) 김성빈(문리대 59입) 강경식(문리대 55입) 김경석(문리대 70입)
20	뉴잉글랜드 (MA, RI)	28	박현자(음대 62입) 김문소(농대 61년입) 두선자(간호대 75년입) 한병희(문리대 60입) 인준식(사대 55입) 김종성(경영대 76입) 배성호(의대 65입) 박종건(의대 62입) 채도경(의대 59입) 권이덕(공대 68입) 이희규(공대 69입) 윤상래(수의대 62입) 김호영(약대 52입) 문형성(의대 65입) 김영일(사대 59입) 이재신(공대 57입) 김제호(상대 56입) 김유경(음대 ?) 김병국(공대 71입) 노인규(의대 52입) 김정태(문리대 53입) 오계숙(미대 59입) 배규태(상대 61입) 설원종(의대 60입) 박혜송(음대 68입) 이상강(의대 70입) 오명순(가정대 69입) 배규영(사범대 68입)
21	하트랜드	15	박세화(의대 76년입) 지일선(의대 61입) 신두식(의대 58입) 김호원(치대 52입) 임하지(의대 79입) 이상무(상대 57입) 구명순(간호대 66입) 오태오(의대 56입)
22	펜실베니아	1	이수경(자연대 81입)
23	케롤라이나	4	정양수(의대 60입) 박태진(의대 62입) 한광수(의대 57입) 정일환(의대 63입)
<b>특별기부금</b>			
<b>계</b>		<b>871</b>	<b>53,391</b>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백만달러 기금  
납입 현황**

(2002년 1월 19일 ~ 2003년 3월 28일)

**Anchor-Donor (2만달러 이상·약정)**

- 방은호 (워싱턴 DC · 약 42입)
- 윤정옥 (뉴욕 · 약 50입)
- 김영덕 (뉴욕 · 공 53입)
- 이병준 (남가주 · 상 55입)
- 김병수 (뉴욕 · 상 55입)
- 최수용 (뉴욕 · 상 55입)
- 유창남 (뉴욕 · 의 58입)
- 오인석 (뉴욕 · 법 58입)
- 이전구 (뉴욕 · 농 60입)
- 임낙균 (남가주 · 약 64입)

**3,000달러 이상**

**1,000달러 이상**

- 정태 (의대 57입) \$1000
- 이용락 (공대 53졸) \$1000

**300달러 이상**

- 노명호(공대 61입) \$500
- 조상근(법대 69입) \$300
- 조시호(문리대 59입) \$500
- 정정수 (의대 56입) \$500
- 워싱턴DC 지역동창회 \$510  
(조수미 CD 34장 판매대금/  
CD 판매 총액 300장 총 \$4500)

**300달러 이하**

- 한만섭(공대 49입) \$200
- 임춘수(의대 57입) \$200
- 고영련(사범대 57입) \$100
- 윤재명(의대 65입) \$200
- 이경림(상대 64입) \$200
- 이소정 (음대 84입) \$200
- 변만식 (사범대 49입) \$100
- 장병건 (보건대학원64졸) \$250

**母校와 後進을 위한 1백만불 기금 지부별 입금 현황  
基金을 출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7월 1일 ~ 2003년 3월 28일

지역 번호	지부명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계
01	남가주(CA)	고영련(100) 노명호(500) 한홍택(1,000) 황석우(100) 정인환(200) 권길상(100) 한상철(333,400) 이병준(20,000) 심상은(1,000) 조용명(500) 임낙균(500) 이명선(300) 박취서(200) 이종열(200) 이강훈(150) 임택선(100) 김옥권(100) 권기상(100) 이정재(100) 신동국(100) 김일영(100) 유병원(100) 도영미(100) 황석우(100)	24	359,150
		이양숙(200) 박우선(200)	2	400
03	샌프란시스코	김양주(300)	1	300
04	뉴욕 (NY, NJ, PA 일부, CT)	조상근(300) 이경림(200) 김기훈(250) 최수용(5,000) 김석식(100) 진성호(19,400) 추재욱(10,000) 오인석(20,000) 김병수(7,000) 최수용(5,000) 김영덕(5,000) 윤정옥(5,000) 이전구(4,000) 황관일(1,500) 김진승(1,000) 허리훈(1,000) 허선행(500) 이준행(500) 강영선(500) 김용재(500) 이기범(500) 이재진(500) 변찬의(500) 김상각(300) 홍선경(300) 이경림(300) 방준재(300) 주의돈(300) 남상태(300) 조성준(300) 김기훈(250) 박승서(250) 이기형(200) 김연희(200) 동형근(200) 리준국(150) 황진환(100) 주대영(100) 허병렬(100) 심기련(100) 유진형(50)	41	92,100
05	시카고 (IL, IN, WI, MO, MI, OH)	임춘수(200) 정태(1000) 이용락(1000) 이소정(200) 소진문(100) 임춘수(200) 이용락(1,000) 조영재(300) 정태 최호승(500) 배영섭(200) 전영자(200) 임춘수(200) 강영국(200) 박종수(200) 구자원(200) 이기춘(200) 김윤태(100) 문병훈(100) 변만식(100) 지역동창회(510, 조수미 CD 34장 판매대금) 방은호(5,000)	19	7,100
06	워싱턴 DC(MD, VA)	지역동창회(3,990: 조수미 CD 34장 판매대금) 이규섭(150) 방은호(5,000) 박유수(1,000) 박용길(100) 오인환(200) 김창호(50) 장병건(50) 이선명(50)	11	16,200
07	워싱턴주(WA)	한만섭(200) 윤재명(200)	2	400
08	휴스턴(HOUSTON, TX)	조시호(500) 강영빈(500) 박승균(300) 유금용(100) 김충열(200) 박민자(100)	6	1,700
09	달라스(DALLAS, TX)	김인호(200)	1	200
10	미네소타(MN)	송창원(100) 변우진(100) 김태환(300) 왕규현(100) 변우진(100) 남세현(100)	6	800
11	조지아(GA)	장병건(250) 장병건(100)	2	350
12	아리조나(AZ)	박양세(100) 박양세(200)	2	300
13	유타(UT)			
14	하와이(HI)			
15	오레곤(OR)	이태호(100) 익명(300)	2	400
16	기타(서부)			
17	기타(중부)	이회백(1,000)	1	1,000
18	기타(동부&캐나다)	한광수(333.33)	1	333.33
19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PA)	정정수(500) 정정수(500) 서중민(1,000) 이정필(800) 정정수(500) 한혜원(300) 현재원(300) 정홍택(300) 강형진(200) 윤경숙(100) 정구영(100)	11	4,600
20	뉴잉글랜드(MA)	도운희(200) 이재신(3,000) 이금하(200) 정태진(100) 김제호(100)	5	3,600
21	하트랜드	오태요(500) 김명자(500) 이상문(250) 배한홍(100)	4	1,350
22	펜실바니아			
	특별 후원금	간호대동창회(13,560) 모교동창회/모교순방단(3,000) 입광수 서울대총동창회부회장(5,000) 한규남(유화1점: 현재 경매 중)	4	21,560
	<b>총 계</b>	▣당회계년도 납입자 15명 - \$5,760	145	511,843.33

**약정하신 동문들**

\* 발드체는 금회계년도 납입자임.  
\* 작년도 집계표에서 강영빈씨를 중부 기타지역에서 텍사스주로 이동하였음.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계
현금 약정	방은호(워싱턴 DC/\$20,000약정 \$10,000납입) 서동영(남가주/\$100,000:생명보험 중 일부) 윤정옥(뉴욕/\$20,000중 \$5,000납입) 임낙균(남가주/\$20,000약정) 김영덕(뉴욕/\$20,000중 \$5,000납입) 김병수(뉴욕/\$20,000중 \$7,000납입) 최수용(뉴욕/\$20,000중 \$10,000납입) 이전구(뉴욕/\$20,000중 \$4,000납입) 유창남(20,000약정) 강영빈(기타 중부 /\$500중 \$500 납입) 강경식(뉴잉글랜드/생명보험 중 일부)	11명 (7명 납입)	\$260,500 (\$41,500 납입)
기타	방은호(유증) 김태환(유증) 정태	3명	
<b>총 합 계</b>		<b>152 명</b>	<b>730,843.33</b>



### 재미서울대동창회보 유료광고 안내

재미서울대동창회보는 현재 매월 5,600부가 인쇄되어 북미주(미국, 캐나다)와 母國에도 매월 배포되고 있습니다. 재미동창회보는 우리 동문들이나 관심있는 업체들에게 유료광고를 접수, 게재합니다. 광고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흑백광고

- 전면: 한번에 \$500, 일년에 \$5,000
- 1/2면: 한번에 \$300, 일년에 \$3,000
- 1/4면: 한번에 \$175, 일년에 \$1,750
- 1/8면: 한번에 \$100, 일년에 \$1,000

#### ◆ 직종별 분류광고

한번에 4줄당 \$25, 추가 한줄에 \$5, 일년에 \$300+\$

#### ◆ 칼리광고

뒤표지 전면에 게재할 수 있으며 한번에 \$1,000

◆ 전문광고문안이나 내용의 제작에 따른 추가비용은 광고주와 협의하여 정함

◆ 광고문의처: 재미서울대동창회 회보편집실 전화 847-981-1464, 팩스 847-981-1465

재미서울대동창회보 광고위원장 강영국(수의대 67년입)

### 재미 총동창회 지부회장 / 동창회보 지국장 명단

지 부	회 장	총무 / 동창회보 지국장
뉴욕	김종용 B:914-714-0587 F:914-686-0186	한창섭 B:212-594-0493 H:201-848-8665
남가주	곽철 B:213-352-9669 F:213-525-9656	홍옥자 H: 818-836-0588
샌프란시스코	정조용 B:408-496-6838 H:408-972-4026	임승래 B:415-777-1133 H:510-537-5369
시카고	장기남 F:312-357-1002 H:630-321-1943	이승자 B:773-553-1930 H:847-564-5948
뉴잉글랜드	이재신 B:508-577-9424 H:508-923-0031	변종원 H:508-366-2743 B:508-389-1760<ext.3038>
조지아	조덕성	문종현 B:770-409-8844 H:770-449-0301
미네소타	왕규현 H:952-941-7637	김권식 B:952-646-0236 H:952-646-0290
워싱턴 DC	이영목 B:703-578-6806 H:703-748-0269	유홍렬 B:202-283-5247 H:703-204-2798
워싱턴주	이혜숙 B:253-927-8668 F:253-627-2542	고희선 H:425-787-0292
휴스턴	박진섭 H:713-932-6260	이재용 E-mail:Paul.j.lee@earthlink.net
달라스	이병규 B:817-251-8789 H:972-304-0748	강성호 B:972-570-0234 H:214-496-9393
아리조나	윤성수 H:480-283-9806 yunss@cox.net	최윤근 B:480-967-9461 H:602-502-9988
하와이	김승태	정재훈 B:808-951-7242 H:808-926-6089
유타	한성양 B:801-272-7444 H:801-485-2065	황선종 B:801-582-1695 H:801-582-1695
오레곤	정성국 B:503-226-6467 H:503-524-7741	라제관 B:503-696-3422 H:503-645-5550
필라델피아	김용식 Fax:610-664-3447 C:215-771-2957	신영근 F:610-917-7005 H:610-519-9695
하트랜드	이상문 B:402-472-3915 H:402-483-0221	장명우 F:402-472-5290
중부펜실베이니아	이수경 B:814-833-1587 H:814-234-5529	이 욱 B:814-862-0494
캐롤라이나	김기현 B:919-560-6451 H:919-560-5012	Fax : 919-560-5012
캐나다/온타리오	유동성 H:604-435-8937	이의병 B:416-385-0107 H:416-250-6908
캐나다/밴쿠버	조금희	김현승 B:604-415-9011 H:604-945-5634
캐나다/에드먼튼	김봉전 C:303-229-3332 F:303-623-2910	김명호 H:303-773-0534 O: 303-671-0304
로키마운틴즈	최인갑F:614-447-3844 H:614-436-5780	
오하이오		

### 동문 사업체 안내

<p><b>강관</b></p> <p>Pusan Pipe America 이병준(상 55입) (562)692-0600 Sant Fe Springs, CA</p>	<p><b>국제금융</b></p> <p>Sit/Kim International Investment Associate 김병수(상 55입) (212)750-7215 New York, NY</p>	<p>김용화 변호사 김용화(법대 69입) (212)869-7000 New York, NY</p>	<p>한미종합보험 박일순(상 59입) (718)458-3551 Jackson Hts, NY</p>	<p><b>염색</b></p> <p>Care Tex Industries, Inc. 강봉창(약 50입) (562)602-6567 South Gate, CA</p>	<p><b>인터넷 사업</b></p> <p>Aladdin USA 이형렬(문 79입) (323)692-9888 LA, CA</p>
<p><b>골프용품</b></p> <p>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 60입) (212)564-2255 New York, NY</p>	<p><b>금고</b></p> <p>Alco Lock &amp; Safe 정인식(상 58입) (212)867-3377 New York, NY</p>	<p><b>병림 내과</b></p> <p>Joon J Bang, MD 방준재(의 63입) (718)768-1264 Brooklyn, NY</p>	<p><b>부동산</b></p> <p>Cosmo Realty 이재택(법 60입) (201)944-4949 Palisades Park, NJ</p>	<p><b>운송통관</b></p> <p>S. Y. Shipping 김종표(법대 58입) (592)467-5455 Artesia, CA</p>	<p><b>자동차 부품</b></p> <p>Knox-Seeman Whse, Inc. 서동영(사대 60입) (310)327-1006 Gardena, CA</p>
<p><b>공인회계사</b></p> <p>Young Sik Oh Cpa 오영식(법 72입) (201)569-1177 Englewood Cliff, NJ</p>	<p><b>금융/용지</b></p> <p>EAC Trading Inc. 윤정옥(약 50입) (516)466-5678 Great Neck, NY</p>	<p><b>병림 수외과(독물병리)</b></p> <p>Charles H. Sung, DVM DVM 성홍환(수의 75입) (330)534-8383 Hubbard, OH</p>	<p><b>부동산</b></p> <p>C-21 Infinity 이재원(법 60입) (201)944-5353 Palisades Park, NJ</p>	<p><b>용지</b></p> <p>Equitable Financia Service 원영배(미 74입) (213)368-5705 Los Angeles, CA</p>	<p><b>전자</b></p> <p>Amkor Anam 정홍택(상 61입) (214)580-1879 Philadelphia, PA</p>
<p>이범선(상 48입) 이경림(상 64입) (212)768-9144 New York, NY</p>	<p><b>무역</b></p> <p>Nina America Inc. 강석권(법 61입) (212)683-6462 New York, NY</p>	<p><b>병림 신경외과</b></p> <p>Rim and Sul, MDPC 임춘수(의 57입) (313)882-2922 Grosse Pointe.</p>	<p><b>부동산</b></p> <p>REMAX(회망부동산) 최 호(문 61입) (201)461-3525 Palisades Park, NJ</p>	<p><b>용지</b></p> <p>Hanin Federal Credit Union 이영일(문리 57입) (213)368-9000 Los Angeles, CA</p>	<p><b>주류상</b></p> <p>Smithtown Wines &amp; Spirits 이지현(문리 73입) (613)265-1121 Smithtown, NY</p>
<p>Young Tail Choi EA 최영태(문 67입) (212)695-0206 New York, NY</p>	<p><b>법포사</b></p> <p>최형무 변호사 최형무(법대 69입) (718)463-3500 Flushing, NY</p>	<p><b>병림 신경정신과</b></p> <p>Kenneth Song 송관호(의 58입) (212)423-4817 New York, NY</p>	<p><b>부동산</b></p> <p>Gateway Title Co. 박인수(농 64입) (213)388-3333 Los Angeles, CA</p>	<p><b>의료기구</b></p> <p>MASH 심상은(상 54입) (213)487-5695 Los Angeles, CA</p>	<p><b>학원</b></p> <p>Kumon Educational Institute 김형덕(상 57입) (718)358-0538 Flushing, NY</p>
<p>Delloitte &amp; Touche LLP 김낙구(상 67입) (213)688-5585 Los Angeles, CA</p>	<p><b>미국서적 전문 서울서점</b></p> <p>권혁진(문 60줄) 창업 (773)463 7756</p>	<p><b>병림 위장내과</b></p> <p>Chang Ho Suk 석창호(의 66입) (718)461-6212 Flushing, NY</p>	<p><b>부동산</b></p> <p>ERA Premier Properties 변만식(사대 49입) (703)750-0000 Annandale, VA</p>	<p><b>의류</b></p> <p>Jeffrey Allen Corp. 이기명(농 70입) (201)863-5160 Secacus, NJ</p>	<p><b>한의원</b></p> <p>Joong-Ang Medical Center 이수호(보건대학원 71입) (718)353-6207 Flushing, NY</p>
<p>Wesley Y Chung 정일희(상 55입) (212)736-6590 New York, NY</p>	<p><b>보험</b></p> <p>Gold Plus 서재숙(음 65입) (212)354-8988 New York, NY</p>	<p><b>병림 지과</b></p> <p>Sung Bo Hong, DMD 홍성보(치 63입) (201)871-0007 Tenafly, NJ</p>	<p><b>부동산</b></p> <p>로얄 부동산 임우광(문 65입) (800)474-0200 SKOKIE, IL</p>	<p><b>의류</b></p> <p>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량(상 61입) (201)440-8500 Moonachie, NJ</p>	<p><b>화장품</b></p> <p>Revicci(레비치) 신정택(약대 52입·화장품, 약품개발) (973)994-1421 Short Hill, NJ</p>
<p>이규섭(상 68입) CPA, CFA (703)642-2900 Annandale, VA</p>	<p><b>보험</b></p> <p>KOI 종합보험 김성희(상 67입) (213)387-5252 Los Angeles, CA</p>	<p><b>부동산</b></p> <p>Pacific Hotel Motel Specialists, Inc. (HMBA American Hotel Broker) 김동호(농대 58입) (206)972-3675 Everett, WA</p>	<p><b>설계</b></p> <p>Booming World Design &amp; Engineering 김상익(공 49입) (310)539-7760 Court Lomita, CA</p>	<p><b>인터넷 사업</b></p> <p>KS E biz 장세완(농 69입) (201)722-4796 River Vale, NJ</p>	<p><b>화원</b></p> <p>Flowers On Lexington 박상원(음 65입) (800)2525-way New York, NY</p>
<p><b>공익상담</b></p> <p>IBECONS INT'L 김제철(공대 58입) (212)460-2815 New York, NY</p>	<p><b>보험</b></p> <p>Modern Gifts &amp; DUNDEE SHISEIDO 지명식(사대 65년 입) Tel: 847-559-1005 Northbrook, IL UPS, Mail Order 가능</p>	<p><b>부동산</b></p> <p>Booming World Design &amp; Engineering 김상익(공 49입) (310)539-7760 Court Lomita, CA</p>	<p><b>설계</b></p> <p>Queens Plumbing Supply 김승호(공대 71입) (718)392-0111 L. I. C. NY</p>	<p><b>인터넷 사업</b></p> <p>Modern Gifts &amp; DUNDEE SHISEIDO 지명식(사대 65년 입) Tel: 847-559-1005 Northbrook, IL UPS, Mail Order 가능</p>	<p><b>화원</b></p> <p>Seward Florist 김수향(간호 72입) (626)287-6161 San Gabriel, CA</p>



# 금년에도 재미서울대 총동창회와 동창회보 간행을 후원하여 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동창회는 전 동문의 네트워크를 위해 Data Base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동문은 이 설문지를 기입한 후 오려서 동창회 사무실로 우송바랍니다.

## 재미 동문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설문 및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공개 여부 설문 2002. 7. 1 ~ 2003. 6. 30 회보 구독료 납입서

재미 서울대 전 동문들의 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모교 지원사업 및 동문 지원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문에 간단히 답하시어 동봉의 반송봉투를 이용 설문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창회보를 받지 않는 주변 동문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본 설문지 여백에 적어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성명 : 한글 \_\_\_\_\_ 영문 \_\_\_\_\_
2. 모교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3. 졸업전공 : \_\_\_\_\_ 대학 \_\_\_\_\_ 학과 \_\_\_\_\_
4. E-mail 주소 : \_\_\_\_\_
5. 새 자택 주소 : \_\_\_\_\_
6. 새 자택 전화번호 \_\_\_\_\_ Fax. \_\_\_\_\_
7. 직장주소 : \_\_\_\_\_
8. 직장 : Tel. \_\_\_\_\_ Fax. \_\_\_\_\_
9.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에 공개 무방 ( ), 가급적 동문들에게만 공개 원함 ( ).
10. 동문 자료 은행구축과 모교와 조국을 위한 지적 봉사단의 자료를 위하여 귀 동문의 자세한 이력사항을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동창회보 일년 구독료 \$ 60은 동창회보 발간 사업 뿐 아니라 모교지원을 위한 업무 및 재미 동문 지원사업을 위하여 긴요한 자원입니다. 재미 총동창회 집행부는 모든 회원들을 위하여 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 유지하겠습니다.

본인은 2002. 7. 1 ~ 2003. 6. 30 구독료 \$60을 함께 우송합니다.

Yes. ( )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No. ( )

수표 보내실 곳 : SNUAUSA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12. 소속 지역동창회 이름 : ( ) 지역동창회

**1** 재미서울대 동창회보 구독료 \$60(2002.7. 1. ~ 2003. 6. 30 회계년도)을 납부합니다.

## **2** 미주 관악후원회 4차년도 후원 이사회비 出捐書

본인은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활동재원 확보와 미주동창회보의 지속적인 월간발행을 후원하기 위하여 결성된 「미주관악후원회」 회원임을 명예스럽게 생각하며, 제 4차년도 관악후원회비를 아래와 같이 보냅니다.

- 매년 불입 후원이사
  - 년 \$ 200이상 (금액명기 \$ )
  - 년 \$ 500이상 (금액명기 \$ )
  - 년 \$ 1,000이상 (금액명기 \$ )

●일시불 종신후원이사  
\$ 3,000이상 (금액명기 \$ )

▷이 후원금은 세금 보고서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차 후원금에 대한 세금보고용 영수증은 별도로 송부하겠습니다.  
: \$ 280 이상만)

## **3** 母校와 後進을 위한 기금 出捐書

본인은 영원한 서울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모교와 후진을 돕기 위한 1백만달러 기금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음과 같이 기금을 낼 것을 동의합니다.

- 총액(금액명기 \$ )
- ①일시불 ( )
- ②3년 분할 납입 ( )
- (\$ )씩 ( )회 분납

▷이 기금은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미 총동창회는 재산을 이 1백만달러 기금에 남겨주실 유언 (A Will) Program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

Check Payable to :

**SNUAUSA**(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Check 보내실 곳 :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usa@snuaa.org